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원망속에 있어서 노염 없으며
내 생존 이미 전단하여라.
모든 사람 서로 원망하는 속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원망없이 살아가라.
-법구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사찰불사의 모든 것
책임 상담해 드립니다.
02)733-4800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7월 5일 수요일(주간) 제 277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작년 11월 문을 연 '해외 과학 기술 정보 네트워크(OSTIN).'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수집해 관리하던 해외 과학기술 정보를 한데 모은 OSTIN은 2300여 명의 과학기술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전달하는 등 정보교류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생일이나 학위취득을 비롯해 개인적 신상에 관한 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축하하는 등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는 인터넷은 학술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교계학술단체들도 불교학 관련 논문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한국불교학회(myhome.netsgo.co.kr/buddhistmsc), 한국불교연구원(kiis.or.kr), 고려대장경연구소(sutra.re.kr), 인도철학회(bora.dacom.co.kr) 등의 단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들의 목록과 논문내용을 서비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던 논문들도 다운받을 수 있다.

불교학술 정보 공유체계 강화

이를 통해 학회나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떨어지는 학술논문과 학회 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논문 목차나 간략한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료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인터넷의 활성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에 발맞춰 이들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즉 각 단체가 지금처럼 개별적인 수준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공원 제도개선위 구성하자"

조계종-시민·환경단체, 정부에 공식제안 '사찰과 공원' 워크숍

조계종과 시민·환경단체, 환경부 합동의 가칭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정대)과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여연)가 공동 주최해 6월 28일 열린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한 워크숍' 발제자로 나선 현응스님(종회의원)은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해체하고 별청으로 공원관리청을 설치해야 한다"며 "국립공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환경운동단체 및 이 날 발제자로 나섰던 환경전공 교수(호남대 오구균 교수, 서울시립대 김용근 교수) 등은 현재의 국립공원 정책과 관련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가칭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신흥사와 현은사를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을 낸 참여연대의 박원석 시민권리부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르면 다음 주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원회 참여를 제안하고, 초기 논의를 위한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국립공원지역 사유지의 최대 소유자이자 지난 1천여년 동안 자연환경과 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해왔던 주체로서 앞으로 만들어질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와 관리공단 그리고 시민·환경단체와 더불어 바람직한 국립공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워크숍에서는 현행 공원관리 체계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되었다. 워크숍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대체로 △자연공원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공원관리청 혹은 국립공원관리청의 설립이 필요하며 △공원관리예산은 현행 공원입장료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워크숍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양장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 '국립공원 관리 현황과 이용실태 및 개선방향'(김용근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국립공원의 특수성에 따른 사찰의 비중과 새로운 역할'(오구균 호남대 도시·조경학부 교수) 발제와 조태경 녹색연합 생태보존부 간사, 정의경 환경부 자연공원과 사무관, 박원석 참여연대 시민권리부장, 현응스님(종회의원)의 토론으로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관련기사 3면〉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유전자지도 초안 발표
도덕·윤리성문제 대두

'유전자 지도' 초안이 6월 26일 공개됨에 따라 생명공학기술의 새시대가 열리고 질병극복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맞춤인간' 시대가 도래하고, 개인 유전정보 누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 사회·도덕·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불교계의 다각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불교가 이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시대에 맞는 교리적 해석을 통해 게놈 프로젝트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명우 기자

"종교지도자 평양방문 북에 제의"

박지원 문화장관 밝혀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6월 26일 서울 필동 한국의 집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 등 종교지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있을 언론사 사장단의 평양방문 때 남한 종교인들이 동행해 단체방북하는 것을 북측에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참석한 종교인들이 단체방북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히고 "남북교류는 '민족의 눈'으로 폭넓게 봐야 하며, 이 같은 관점에서라면 종교인의 단체방북도 충분히 제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서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이만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박정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최창규 성균관장, 김광욱 천도교 교령,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지리산 살리기 범불교연대 '출범'

댐건설 백지화 추진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한 56개 불교단체들은 6월 2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과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살리기·댐 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 창립대회를 갖고 지리산댐 백지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정부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리산을 파괴하는 댐 건설계획 백지화와 낙동강을 살리는 효율적인 방안 강구 △공급 위주 수자원관리정책의 즉각 중지 △청와대는 대선 공약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자연환경 수호를 위한 감독·조정기능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범불교연대는 앞으로 △지리산댐 백지화 추진 백만인 서명운동 △지리산의 생태, 문화, 생활, 종교환경에 대한 조사연구 △시민·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지리산댐 백지화 국민행동'을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는 실상사 수경스님(상임대표)과 청화 종회부의장, 혜담 선우도량 상임대표,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김기병 포교사단장, 전안호 대불청 회장 등 6인을 범불교연대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6월 29일 '지리산 살리기 범불교연대' 창립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서울 조계사에서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펼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경주 세계문화유산 등록 확실시

문화재청은 6월 29일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 제24차 의장단 회의에서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고창·화순·강화 고인돌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본회의에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두 유적지구는 11월 27일부터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정식 등재될 전망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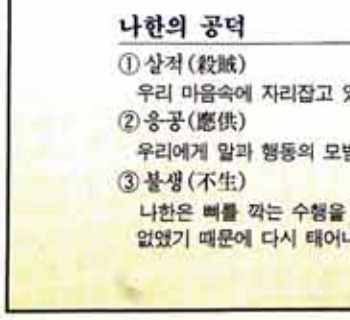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 20~22일
에버랜드·용주사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 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3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롤러코스터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0년 7월20일(목)~22일(토) 2박3일(사찰 1박, 에버랜드 롤러코스터 1박)
◇장 소 : 용주사, 목아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50명)
◇참 가 비 : 6만원
◇준 비 물 : 도시락,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문 의 : 전화 080-717-0114, 011-317-2555
◇은행계좌 : 농협 100030-52-039999 (예금주 : 이성훈)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선재이벤트
•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조계사·한마음선원·봉은사·삼보사·보덕학회·(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대한불교예술원
■단집·탁자 법당내부 시공·수리 전문
■목탱화·영단·대웅전·단청·탱화 불사
☎ 02)930-1681 / 011)336-5200



규격×높이 : 1자(30cm)

16 나한 木 500 나한



나한이란? 모든 사람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하고 공덕을 두루 갖춘 성자를 말합니다.



나한의 공덕
① 살적(殺賊)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응공(應供)
우리에게 말과 행동의 모범이 되므로 정성을 다하여 공양해야 합니다.
③ 불생(不生)
나한은 뼈를 깎는 수행을 하고, 마음의 평정을 방해하는 마음의 적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윤회의 고통이 없습니다.

木 나한의 특징
◆ 혼이 담긴 작품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었습니다.
◆ 반가격으로 보시해 드립니다.
※ 스님의 주문에 따라 상호와 크기(규격)를 별도 제작해 드립니다.
◇ 전화주시면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한국불교전통공예
서울 중랑구 망우3동 518-34(효성빌딩)
대표전화 : (02) 494-4890

전국 승가대 교과과정 통일

조계종, 내년부터…경학원에 개선연구 의뢰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6월 30일 은해사 승가대학원 1기 졸업생 모임인 조계종 경학원(회장 능허, 범어사강원 강사)과 '승가대학 교과과정 개선안 연구' 의뢰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승가대학 교과과정 통일화 작업에 나섰다.

조계종 경학원(經學苑)은 교과과정 개선을 위해 4급 승가고시 제도 개선에 따른 출제교과목 선정 및 기본교육기관 기본교과의 통일성 확보를 목표로 △기본교육 방향설정과 교과개선 대안마련을 위한 워크숍 2회 개최 △교과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교육기관 실태조사 △강사·학인 설문조사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연구성과를 8월 말까지 교육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경학원의 승가대학 교과개선 보고서를 기초로 9월경 공청회, 10월 교직자(중강) 연찬회를 거쳐 학장회의에서 표준교과목을 심의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계종 16개 승가대학의 경우 치문, 사집, 사교, 대교반을 기준으로 교과목이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개설 과목이 각각 상이하고, 여기에다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초선원과의 교과목 편차는 더욱 심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승가대학 교과목 통일화 작업은 일원화된 승려 기본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원은 전국 승가대학 교과과정 개선 작업을 마친 뒤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등 기본교육기관 기본교과 통일성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여 종단 기본교육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전국승가대학 교직자회와 공동으로 승가대학 교과과정 개선을 추진했으나 진전을 보지못했다"며 "올해 내 기본교육기관 기본교과를 통일화하고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경학원은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원장 무비) 1기 졸업생 10명의 경전연구모임으로 경학연찬과 종단교육불사에 기여키 위해 지난 5월 창립됐다. 조계종 교육원 산하단체로 등록된 경학원은 경전, 선어록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경학산림을 매년 하안거 이후 1주일간 열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기본교육체계 확립

기본교과 통일 '의미'

승가고시 시행포석

이번 기본교육기관 기본교과 통일화를 위한 승가대학(전통강원) 교과과정 개선작업은 도제양성과 승려의 자질향상 체계를 확립키 위한 4급 승가고시 시행의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교육원은 기본교과 통일화를 통해 기본교육 체계의 완결성을 확립, 종법상 기본교육 목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종법상 인정하는 기본교육기관은 해인사강원등 16개 승가대학과 가초선원 교육부 인정 4년제 대학인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로 이뤄져 있으며, 한해 1300여명의 사미·사미니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본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과 습의교육이 제시하는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공통과목과 교양교과 및 수행을 함께 이수함으로서 출가사문으로서 공통된 의식기반과 사상적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종단차원에서도 학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점제시행, 졸업자격고사, 수행기록부 시행, 학제정착 등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전국승가대학교직자회 회장 지오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은 "4급 승가고시가 기본교육과정 이수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기본교육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목들의 정비작업은 꼭 필요하다"며 '16개 승가대학(전통강원)의 경우도 강원별로 개설과목의 차이와 편차가 심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강원의 경우 교구본사, 4년제 대학은 교육기관의 방침과 방향에 따라 교과목이 편성돼 기관별 교육차별화가 심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승가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단과 교육현장이 하나의 완결된 체제를 이루지 못해 21세기 승가상 구현을 위한 승가교육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본교과과정의 통일은 종단에서



종교청년 평화캠프 '다름은 아름다운 것'

3회 종교청년 평화캠프에 참가한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청년들이 6월 29일 조계사를 방문, 발우공양을 하며 오관게를 독송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과 천주교 베본성지 등에서 진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中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유감"

"한국 외교주권 침해말라"

국회의원 모임, 中에 촉구

중국은 6월 27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오는 11월에 방문하도록 허용한 한국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주방자오(朱邦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달라이 라마는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티베트 독립 운동을 벌이고 있는 망명자"라면서 "중국은 외국 정부가 달라이라마를 초청, 정치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6월28일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외교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하길 바라며 한국 정부도 문화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27일 티베트 일본대표부 대사 자툴린포체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가 방한하면 조계종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달라이 라마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신흥사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 심리연기

6월 27일 열릴 예정이던 신흥사 문화재관람료 반환 소송 첫 심리가 원고인 참여연대의 심리연기 요청으로 미뤄졌다.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참여연대에서 심리 연기를 요청한 것은 헌법소원 제기 또는 자료보강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통일 교육프로 개발"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념)는 6월 29일 불교회관1층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7차례의 정책세미나 개최, 북한불교 현황 및 통일 관련 기초조사, 남북불교회담, 자료집 및 소식지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에 따른 1억9천2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정책기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27일 첫 모임을 갖고 이달 초 '남북화해 시대의 불교의 역할' 주제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자료제출 불응 종단무시 처사"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 연구소위원회(위원장 영담)는 6월 27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송재운 동국학원 사무처장을 불러 자료제출 불응 발언에 대해 따졌다.

송 사무처장은 3차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무처에서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결정된 것이 없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위원들이 재차 "이사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침묵을 지켰다.

연구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종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종단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히고 동국학원에 유감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문화부장에

혜자스님 임명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4일 오전 총무원 문화부장에 혜자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문화국장에는 항명스님(안산 쌍계사 주지)을 임명했다.

혜자스님은 청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67년 사미계, 76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현 조계종 소청심사위원, 상계동 도안사 주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 청담학원 이사, 노원경찰서 경승.

항명스님은 성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85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정성운 기자

법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

도공·원담스님 당선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도공(사진 왼쪽), 원담 스님이 당선됐다. 6월 29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진구스님이 문중화합을 위해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도공, 원담스님이 무투표 당선됐다.

도공스님은 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73년 월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74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 충북청원 현암사 주지, 청주불교방송 사장.

원담스님은 무상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77년 이두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8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청주불교방송 본부장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전국 10개대학 불교학 전공교수들이 6월26일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해인사 홍제암에서 모임을 갖고 불교학과 신행의 상호보완 관계를 모색했다.

"불교학과 신행 상호 보완 관계"

불교전공 교수들 '산사의 만남'

불교학 전공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학과 신행'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종단 관계자들과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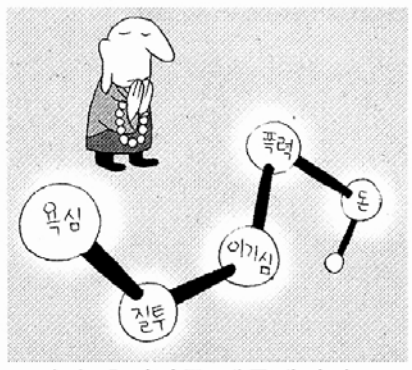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 주관으로 6월 26일부터 1박2일간 해인사 홍제암에서 열린 이번 산사의 만남에는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등 전국10여개 대학에서 20여명의 교수와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스님, 포교국장 주경스님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 첫 발제자로 나선 강건기교수(전북대 철학과)는 "불교가 지적인 작업에만 머물러서는 말이 끊어진 깨침의 세계를 온전히 전할 수 없다"며 "믿음과 이해를 함께 하는 신해상겸(信解相兼)이야말로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로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강대 종교학과 길희성 교수는 "대학의 불교학이 포교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되지만 인간의 내면적 세계를 다루는 불교학이 신행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는만큼 어떤 형태로든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에 대한 이해와 의견수렴' 시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는 △역사적인 부분에에 치중한 불교학의 세분화 △선지식의 법문 A/V 자료나 불교 관련자료정리 △불교도서관 설립 △불교관혼상제 의식제정 △경전 한글화 가속 △문화재관람료사찰 불교홍보책자 배포 △주말법회 활성화 △도심사찰 적극적인 포교방안 마련 △종단차원의 불자지침 마련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윤호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인간 유전자를 해독했더니…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인기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땅임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아!
時空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쩌-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Z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日 ₩1,349,000
· 일 정 : 서울 - 서안- 돈황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 출 발 일 : 7/14, 21, 28 8/4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 [21박 22일] 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타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 현지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상한도 1억원 여행자 보험
· 출 발 일 :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인도전문 여행사 혜초에서 선보이는
새천년 인도, 네팔 자유여행(28日) ₩1,990,000
◈ 인도 대도시 :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카주라호
◈ 불교 성지 : 룸비니, 쿠시나가르, 녹야원
◈ 북인도 : 다람살라, 레, 스리나가르, 잠무
◈ 네팔 : 카트만두 여행등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
· 일 정 : 서울 - 델리 - 다람살라 - 마날리- 사추 - 레 - 사스풀 - 카르길 스리나가르 - 잠무 - 델리 - 자이푸르 - 아그라 - 카주라호 바라나시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카트만두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 열차, 차량, 숙소(조식포함), 보험, 안내
· 불포함사항 : 비자비용, 여권발급비, 서울 공항세
· 출 발 일 : 10명이상 수시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15명이상 수시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목어

역지사지의 의사소통

의약분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의사들이 폐업하고 환자들이 최소한의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많은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한 측인 의사들은 환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긴다 하여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았고, 의사들의 자탄과 절망감 또한 높아갔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의사소통 구조에 잘못된 점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필자를 포함한 국민들은 논란의 중요한 당사자임이 분명한 의사들이 충분히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과 지면상의 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죽어 가는 환자들을 외면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을 매도하기에 바빴다.

과연 그 동안 의료보험수가가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의사들이 길고 고된 수련과정을 거쳐 받는 보수가 그들이 의과대학을 지망할 때에 기대하던 수준이었는지, 보험제도 등 여러 보상체계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의사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적의 수술처치를 하지 못하지 않았는지 등등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의사들을 욕하여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의사들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지탄대상이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 때문만은 아니다. 병·의원에서 겪어야 했던 저간의 여러 가지 경험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그러므로 의약분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논의 자체가 밥그릇 싸움에서 시작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건행정 당국에 대하여도 한마디 하고 싶다. 우선 의약분업을 시행하고자 한 의도는 높이 평가한다. 장관 재임 중에 시끄러운 일은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피하고 빛나고 매끄러운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해 일단 사회적 논란이 엄청날 것이 뻔한 일을 맡고 행한 점은 칭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의도만 앞세운 점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에 있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아쉬운 현실이다.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학원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先 공원제도 개선 後 관람료 해법

'사찰과 국립공원 올바른 관계…' 워크숍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조계종과 환경단체, 국립공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원칙적으로 동의함으로써 국립공원 관리,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

참여연대가 신흥사와 천은사를 상대로 낸 문화재관람료 반환 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6월28일 조계종총무원과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가 공동주최해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주제로 열린 워크숍으로 문화재관람료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다. 참여연대도 소송을 내며 문화재관람료를 돌려받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국립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개선 방향을 찾자는 것이 취지였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워크숍으로 취지에 부합하는 논의의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소송 제기의 이유가 엷어졌다.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는 국립공원의 관리라는 큰 틀의 문제이며,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 참여연대도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며 동의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원공단이라는 제도의 문제,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징수 방법,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 불교의 역할 등 네 가지 문제로 압축되었다.

공원관리청 설치 필요

▩ 공원공단의 문제

공원공단의 문제점은 부실한 제도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부실한 법 조항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령 2조에 규정된 도로·삭도(케이블카), 호텔, 승마장 등 체육시설 등 8개의 공원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설악산 한라산 케이블카, 속리산의 온천, 계룡산 민속박물관 설치가 합법화되고 있다.

환경부 자연공원과의 사무관 1명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공원공단 '관리'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공원공단 이사장을 대통령이 정치적 안배의 차원에서 임명하고 있어 환경부의 산하기관이지만 상전격이라는 지적이다.

현응스님은 "자연공원법 17조에 공원관리 업무를 위해 별청으로 공원관리청을 두도록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공원관리공단이 이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편법"이라며 차제에 공원관리청의 설치를 주장했다.

그동안 공원공단의 반환경적 행태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양장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은 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공원공단 직원들의 부동산 소유, 계룡산 국유림 헐값 불하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입장료 폐지의견 많아

▩ 공원입장료와 관람료징수 방법

공원관리의 합리적인 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이번 워크숍에서 몇 가지 대안이 제시돼 이후 활발한 토론이 기대된다.

공원입장료의 경우, 폐지 의견이 많았다. 오구균 교수는 "국토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계가 보존된 3.8%의 국토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200억원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국립공원의 생물자원 보호와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현응스님은 "입장료 수입의 38%를 인건비로 지출하는 등 공단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공원공단의 역할을 공원관리청에 인계하고 공원입장료는 폐지해 국고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부장은 공원입장권과 문화재관람권을 분리 매표하되, 문화재관람료의 인상 및 공원입장료의 문화재보수비 지원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공원입장료 폐지를 전제로 문화재 유지·보수비의 정부 지원 및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지 보상 정부 과제

▩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의 면적은 육지 3824㎢, 해상 2648㎢로 모두 6473㎢. 육상면적 가운데 사유지가 절반에 가까운 44.7%(사찰 소유지는 8.3%) 에 이른다. 〈표 참조〉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합리적 보상 또는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자연환경 훼손을 동반하는 불사나 정부의 도로 확장, 주차장 시설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민들의 행위규제는 오히려 강화해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이를 빌미로 선거철만 되면 공원구역 재조정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어 국립공원 구역 축소 논란이 한복되고 있다.

사유지 보상 문제는 문화재관람료 문제와도 관련되는 것이어서 이후 논의의 핵심이 될 가능성도 크다.

사찰도 환경훼손 반성

▩ 불교의 역할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국장은 "마을 앞 작은 동산으로 전락될 것처럼 보이는 국립공원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공원마다 터잡고 있는 사찰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며 불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울러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사찰이 개발에 의한 수행환경 침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환경훼손자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구균 교수는 대형화하는 건축불사에 의한 산림훼손은 물론 일본산 외래종 식수로 자연경관과 생태계의 훼손, 오·폐수와 쓰레기 등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수질 및 토양 모염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정책워크숍을 통해 조계종과 시민·환경단체들이 국립공원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워크숍은 조계종총무원과 종회 사회분과위원회 공동주최로 6월 28일 송현클럽에서 열렸다.

◇ 육상 국립공원 토지소유 비율(%, 면적=㎢)

공원명	면 적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찰지
지리산	440.5	49.8	0.05	35.7	14.4
경 주	138.2	10	-	84.7	5.4
계룡산	61.1	40.8	6.1	43.2	9.8
설악산	373	84	0.05	9.4	6.7
속리산	283.4	46.2	0.01	39.3	14.5
한라산	149	98.8	-	1.2	-
내장산	76.1	37	0.17	35.4	27.4
가야산	80.2	19.1	15	24.3	41.5
덕유산	219	73.5	0.07	24.7	1.8
오대산	298.5	70.2	-	10.7	19.1
주왕산	105.3	49.2	-	15.8	35
북한산	78.5	61.5	-	35.1	3.4
치악산	182.1	59.1	-	40.4	0.5
월악산	284.5	71.4	-	26.4	2.2
소백산	320.5	76.3	-	23.3	0.4
변산반도	157	64	4.9	29.1	2.1
월출산	41.3	48.4	2.9	32.6	16.1

워크숍 이모저모

본사주지 등 높은 관심

○…워크숍에는 참여연대가 낸 소송의 당사자인 천은사 주지 종고스님과 신흥사 사무장,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총무국장 중현스님, 기획국장 혜안스님, 종회사무처장 영배스님, 종회 사회분과위원장 여연스님, 종회의원 세영 학담스님,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비롯 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 등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소송취하 가능성 시사

○…총무부장 원택스님도 박원석 부장에게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이에 대해 박 부장은 "참여연대에서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에 대한 문제를 모두 파악한 후 대안을 가지고 소송을 낸 것은 아니다. 소송을 낸 이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문제를 보는 관점도 새로 생겼다"며 소송 취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립공원 관리 무엇이 문제

개발위주 정책 환경훼손 심화

6월28일 '사찰과 국립공원의 올바른 관계정립' 주제의 워크숍에서 공원 관리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돼 국립공원관리공단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 양장일 환경조사국장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관리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공원관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양 국장은 건교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99년 발표를 인용,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환경부하가 15만배 증가했고, 생태파괴지수는 생태적 생산능력의 9배 이상을 초과하는데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훼손을 부추기고 있다고 몰아부쳤다.

양 국장은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속리산 등의 파괴 사례를 제시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위협이 계속된다면 국립공원은 최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리산은 양수발전소, 지리산랜드 건설과, 온천 개발, 지리산 댐 추진 등 대규모 환경파괴 계획이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공원법 개정

종교환경 보호 의무화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이 건설부와 내무부 지역개발과가 관할하던 때의 개발 위주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남대 오구균교수는 "자연생태계 및 풍경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국민들이 영속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 보수해야 한다는 것이 국립공원 관리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환경운동 단체에서 "그린벨트 마저 무너지는 마당에 국립공원은 야생동물의 최후 서식처이자 사람들의 최소한의 휴식공간이다. 국립공원은 개발에 대한 신성불가침 지역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환경부도 동의하면서도 국회의원들의 지역개발 공약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응스님은 자연공원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개정 법에는 △사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배려 △생태·문화·종교환경 보호 조항이 반드시 삽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공원을 놀고 먹고 마시는 놀이터로 인식해 단체관광 위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인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연스님(조계종종회 사회분과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수려한 자연풍광과 역사·문화 유적의 보고인 만큼 단순한 휴양지가 아닌 생태·역사·문화 교육장"이라며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 기사넘쳐 '선과 21세기' 쉽니다.

갈월사 영탑(靈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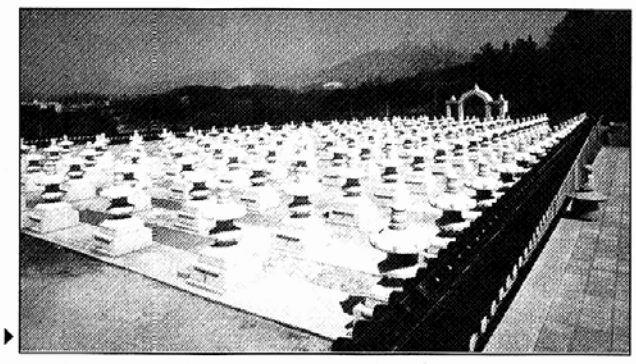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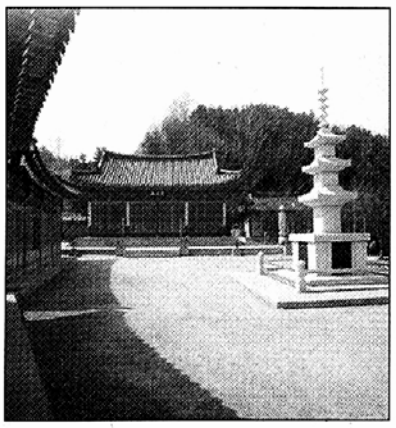
조성된 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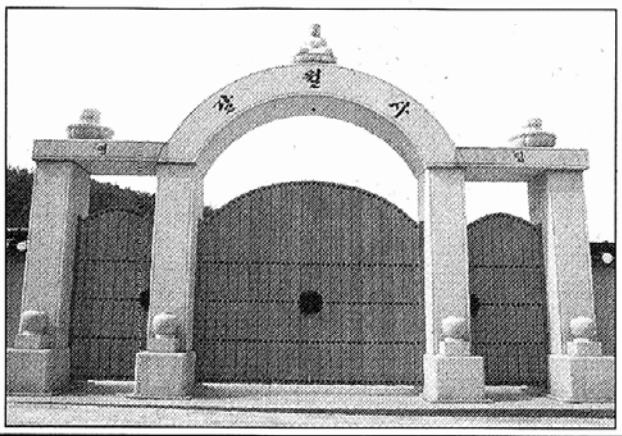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사통팔단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은 양고비사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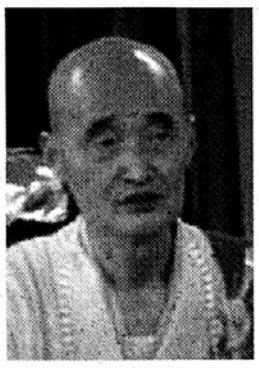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 의: 0338)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 월 사**
▶홈페이지: http://galwalsa.bz.co.kr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김지장상 건립 동참 바라"

한국 방문한 구화산 방장 인덕스님



"지장보살 교각스님의 노천 동상은 구화산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공사로 중-한 두 나라 불교계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대작불사입니다. 한국 불자들의 적극적이며 정성어린 동참으로 지장보살 동상이 원만하게 조성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신라 성덕왕의 아들로 중국인들로부터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교각스님의 동상 건립을 발원, 지장보살 성지조성 불사를 하고 있는 중국 구화산 기원사 방장 인덕스님이 6월 24일 열흘간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 인덕스님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과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불교계의 중심적인 인물. 이번 방한 목적은 지장보살상 건립 불사에 한국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인덕스님은 "지장보살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불교명산인 구화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9월 착공한 지장보살 성지 조성 불사의 중심은 연화좌 23m, 불상 높이 76m의 지장보살상. 인근에 대웅보전 등 30여 동의 전각과 부대시설을 갖춰 2002년 9월 6일 낙성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관음정진하며 통일 발원"

200km 도보대장정 주관 도원스님



"화엄경에서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쉼없는 구도의 길을 떠나는 것과 같이 이번 걷기대장정 동참자들도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 한발자국 한발자국 걷는 자기 고행을 통해 진정한 불자로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행사 목적입니다"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서울 우면동 관문사에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적멸보궁까지 200km 걷기대장정 행사를 주관하는 천태종 총무원 교육부장 도원스님은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가 마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만남이후 열리는 만큼 "걷기대장정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한반도 통일을 진심으로 기원하게 된다"고 밝힌다.

이번 걷기대장정에는 금강불교대학 재학생 전원과 금강대 총동문회 회원 등 300여명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도보정진은 4일 오전 6시 관문사에서 출발해 곤지암, 여주, 원주, 제천, 단양 등을 거쳐 9일 오후 2시 구인사 적멸보궁에서 회향한다.

"도보행진은 상행삼매(常行三昧)의 실천법으로써 천태지관의 사종삼매(四種三昧)중의 하나인 구도행각"이라고 소개한 도원스님은 "몸으로는 오로지 길을 걸으며 입으로는 끊임없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고 마음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해야 합니다"고 말한다. 또 스님은 "이번의 대장정이 육신의 편안함과 감각의 쾌락만을 좇는 현대인들에게 경책이 되며 나아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발견해 삶을 내실있게 이끌며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목탁을 들고 행진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경봉 스님 열반 18주기 법회

통도사 극락암(주지 명정)은 28일 경봉 대종사 열반 18주기 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신허 스님, 석정 스님, 활산 스님을 비롯한 문도회 스님들과 신도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스님의 뜻을 기리는 경봉장학회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가졌다.



전몰장병·희생영령 합동 천도재

육군 5군단 호국금강사(주지법사 이종인)는 6월25일 6.25 50주년 기념 제17회 전몰장병 및 희생영령합동 위령 천도대재를 봉행했다. 봉행사에서 밀운스님(봉선사 주지)은 "한때 적으로 싸웠지만 한민족이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왕생극락을 기원하자"고 말했다.

영가천도의식, 위령대재, 탑돌이로 오전행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도피안사, 제2땅굴, 월정리 전망대, 노동당사 등으로 성지 및 전적지 순례를 했다.



동국대 교직원 하계수련회 실시

동국대 정각원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직지사에서 '2000년도 교직원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교직원 61명이 참여한 이번 수련회는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의 법어, 법산스님(정각원장)의 강의를 비롯해 예불과 정근 그리고 참선실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동국대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올바른 교직원 상'을 정립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년과 달리 강도 높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은평노인복지관 창립 1주년 기념식

서울시립 은평노인복지관(관장 성운)은 6월 30일 복지관 강당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법성 관음사 주지, 원화 석가사 주지, 혜인 신흥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강인석 국회의원, 이지형 은평구청장, 나영수 은평문화원장, 이미자 이대교수 등 내빈과 어르신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티베트 불교교류 바람직"

경주엑스포 티베트공연 추진 신근호 원장



"티베트는 불교문화를 비롯해 민속학, 약재, 광물, 체육 등 연구·교류 분야가 무한한 곳입니다."

오는 9월 제2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때 티베트 전통가무단의 공연을 추진중인 한·티베트문화연구원 신근호 원장(56, 영남이공대 산업디자인과교수)은 중국의 티베트 개방정책에 대비해 장기적 안목에서 티베트와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연이 성사되고 오는 11월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실현될 경우 올가을에는 한차례 티베트 열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지난 95년 발족한 한·티베트문화원은 96년 7월 중국 서장대학과 공동으로 장족문화예술연구소(藏族文化藝術研究所)를 중국 서장 자치구의 라사(Lhasa)에 개원했다. 이 연구소는 서장 자치정부가 인정한 티베트내 최초의 티베트학 연구소로 중국 신화사통신과 인민일보에도 보도된바 있으며 지금까지 2편의 논문을 발간하고 '티베트 귀자 발생연구' '한·티베트 단청 비교연구' 등 3편의 논문을 진행중에 있다.

98년 11월 사단법인으로 승격한 한·티베트문화연구원은 최근 서장대학과 대구대와 자매결연을 추진, 성사단계에 와 있으며 대구시와 라사시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하는 등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수행중이다. 이 연구원은 또 티베트어 교본을 발간하고 불교교양대학을 설립해 일반 시민들에게 티베트불교 및 문화를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티베트 3대 사원인 세라사원 주지스님의 속가제자가 될 정도로 티베트에 심취해 있는 신원장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혜초스님의 행적을 본받던 우리나라 스님 3명이 1940년대에 티베트 사원에서 수행하다 문화혁명 시대에 쫓겨난후 사망한 비화를 소개하고 스님들의 행적을 조사하여 공덕비를 세워주고 싶다고 말했다. (053)651-8852, 011-826-1200

이윤호 기자



북한에 밀가루 210톤 기증



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상임대표는 6월29일 CJ39쇼핑 대회의실에서 대북지원을 위한 제13차 지원물품(밀가루 210톤) 기증식을 개최했다.

미주 태권도 창우회 초청 행사

성공 제주 약천사 주지는 6월 30일 미주 태권도 창우회 한국방문단을 위한 '제주 문화의 밤' 행사를 약천사 잔디광장에서 가졌다.

美 뉴욕대와 의료협약 체결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1일 미국 스토니부룩 뉴욕주립대를 방문, 2002년 개원 예정인 동국대 부속 일산병원과 뉴욕주립대 부속병원과의 의료진 연수, 공동연구, 영상진료 등 의료 협약을 체결했다.



총금강회 지부장 간담회



혜명 진각종 포항교구청장은 6월 29일 포항시 북구 보정심인당에서 개최된 총금강회 지부장단 연석 간담회에 참석했다.

종암서 경승실 월례법회



회정 진각종 총무부장은 6월 28일 서울 종암경찰서 경승실 6월 월례법회에 참석, 설법했다.

중기 특별위원장에 임명



조한천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6월26일자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장에 임명됐다. 조 의원은 연등회 이사로 국정과 의정활동에 노력하는 불자상을 만들고 수행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북유럽 건축 답사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는 6일부터 16일까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로 해외건축 답사를 떠난다.

월드컵 디너쇼 개최



김홍국 축구사랑모임회장은 8일 오후 6시 힐튼호텔 컨벤션 홀에서 2002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김홍국 월드컵 디너쇼'를 개최한다.

북녘 불교유적 강연

윤범모 경원대 미술대 교수는 8일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리는 조계사 열린강연회에서 '북녘의 불교문화유적'을 주제로 강연한다.

미술대전 문인화 우수상

소현당 강정숙 한국화가는 제1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소나무를 그린 '高節'로 문인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초발심자 길잡이 역할 최선"

부산불교 거사림회 김정도 새회장



"제방의 스님들의 교화와 불자님들의 마음을 모아 원융한 불교의 진리를 생활 속에 적용시켜 나갈 수 있는 법회의 장을 계속 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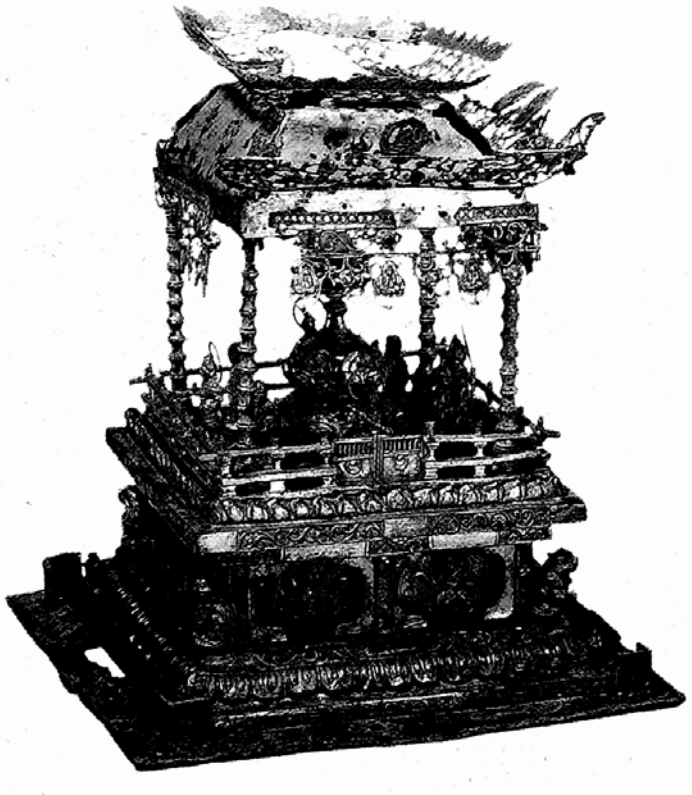
27일 부산불교거사림회 창립 28주년 기념법회에서 12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정도(62) 회장의 말이다. 생활불교를 표방하며 72년 창립된 부산불교거사림회는 28년 동안 636회의 법회를 주관해오면서 불자를 길러내어 부산 불교의 옥답 역할을 해왔다.

부산불교거사림회를 거쳐간 불자만도 수 천명에 달한다. 그들 중엔 많은 이들이 이제 부산 주요 신행단체의 단체장들이 되어 있기도 하다.

앞으로도 28년의 역사를 이어온 월 2회의 법회를 계속하겠다는 김 회장은 "불교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다"는 말로 포부를 대신했다.

김재경 기자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경주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신축개관 1주년 기념특별전 『불사리신앙과 그 장엄』전이 많은 불자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성원으로 지난 2일 개막 이래 연일 3,0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지금까지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사리장엄구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불교예술품으로, 1996년 발견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감은사동탑 사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0여 기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와 1,400년만에 처음 공개되는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는** 금생(今生)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모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쌓아 업장소멸하시기 바랍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 ~ 7월 31일까지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 장 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 예약안내 : 전화 0523) 384-0010, 팩스 0523) 384-0030(담당자 : 이승현)
(연락시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상인원, 인솔스님 법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부산, 울산, 경주 등 가까운 지역에서 친견을 오실 때 3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박물관 버스(45인승)를 운행해 드립니다.

e-mail 매거진

포교사 역할 '톡톡'

붓다뉴스등 10여개 발행…무료 서비스

뉴스 · 도서 · 사이트 등 다양한 정보

이메일 매거진으로 부처님 말씀도 듣고 다양한 불교 정보도 접하며 참선 수행도 한다. 인터넷 서핑으로 찾아 다니는 불교 사이트가 아니라 사이트 소식 및 부처님 말씀을 이메일로 전달해 주는 이메일 매거진이 인기다. 네티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메일 매거진은 이메일을 통해 홈페이지와 같은 양식으로 다양한 기사를 제공하는 신종 미디어로 개인도 얼마든지 손쉽게 발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일간 현대불교 붓다뉴스닷컴(www.buddhanews.com)은 매일 불교계의 다양한 뉴스를 담은 이메일 매거진을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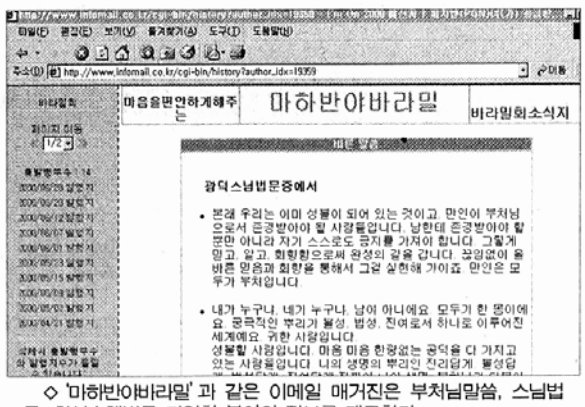
대표적인 이메일 매거진 사이트는 이매그21(www.eMag21.com)과 인포메일(www.infomail.co.kr). 이곳에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매거진 10여개가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 접속해 매거진을 신청하면 매주 때론 격주로 부처님 말씀이 담긴 매거진들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메일 매거진만 발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대중불교처럼 홈이 있으면서 발행되는 매거진들도 있다.

지난해 7월 발간을 시작한 대중불교는 격주로 불교계 소식, 불교 서적, 불교이야기, 불교 추천사이트 등 각종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중불교와 함께 불교교양 강좌도 이메일 매거진으로 발행하고 있다. 역시 격주로 발행되는 불교교양강좌는 불교교리, 불교사, 신앙생활, 경전, 선, 불교문화 등의 강좌형식으로 진행된다. 불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꾸민 것이 특징. 주2회 발행되는 '경 읽는 소리 법 읽는 마음'은 〈불교성전〉에서 발췌한 불경 한구절씩을 보내준다.

참선법 및 선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전달하는 〈선나라〉의 '그대, 선을 아시는가!'는 부정기로 발행되는 이메일 매거진으로 화두참구법은 물론 선사들의 선문답 등을 좀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화두선을 중심으로 선의 현대적 의미, 실천 선, 수행공동체 '백두대간', 고금선원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연꽃나라의 불교이야기'는 격주로 조계사 소식 및 불교정보, 부처님 말씀, 조계종 · 태고종 등 종단 소식을 전하고 있다. 태고종 원광사에서 열흘에 한 번 발행하는 '살면서 찾는 불교마당'에서는 한국불교 소식과 더불어 팔만법문 등이 한문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다.

불교학당에 올려지는 내용을 바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꾸민 전문 불교 매거진 '불교학당'에는 불교학당 공지사항, 경전 해설, 불자 편팔 소개, 사찰 찾아가는 길 안내 등 알찬 내용이 가득하다. 월간으로 발행되는 '알기쉬운 불교'는 부처님의 생애, 기초교리 등 불교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 '마하반아바라밀'과 같은 이메일 매거진은 부처님말씀, 스님법문, 참선수행법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

◇e-mail 매거진 발행사이트

www.eMag21.com	www.infomail.co.kr
연꽃나라의 불교이야기(http://my.netian.com/~lottus)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
불교학당(http://user.chollian.net/~mirrk1)	바라밀회(http://members.tripod.lycos.co.kr/baramil)
알기쉬운 불교(http://my.dreamwiz.com/y2000pch)	살면서 찾는 불교마당(http://user.chollian.net/~w2i2)
연꽃의 향기(http://myhome.cjdream.net/onein)	
대중불교(http://studybud.buddhism.org), 불교 교양강좌(http://studybud.buddhism.org)	
경 읽는 소리 법 읽는 마음, 〈선나라〉 그대 선을 아시는가(http://www.netian.com/~hul000)	

전남대 불교학생회 소식을 전하는 '연꽃의 향기', 부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수행자들의 모임인 바라밀회와 같은 동호회 소식지 역할을 하는 이메일 매거진도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 윤 수
〈KBS 방송작가〉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어서 어젠 여주 고달사지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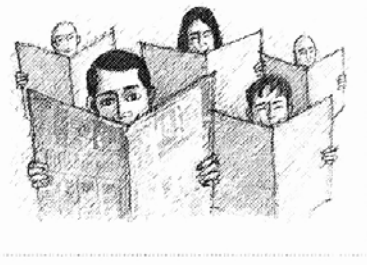
몇해전, 잡초 무성한 고달사지 빈터에서 홀로 상상의 나래를 펴며 대찰을 그려봤을 당시와 달리 어느덧, 흙빛 속살을 드러낸 발굴 현장 곳곳은 석축과 돌무더기들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더군요. 모나지 않게 돌을 쪼아 축대를 쌓고, 초석을 만들고, 회랑을 만들었을 옛 스님들의 진한 향기가, 그 돌무더기마다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땅 어느 가람 배치와도 닮지 않아, 곤혹스러워 하는 발굴단원들 사이를 헤매면서 저 홀로, 금당이 어디쯤일지, 박물관 뜨락에 놓인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어디쯤 자리하고 있던 것일지, 가슴설레이며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러진 폐사지에서 이끼 무성한 돌덩이를 매만지며, 이 하나하나의 돌무더기에 숨결을 불어넣었던 이름모를 석공들의 불심도 떠올려 봤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 모습을 찾을 길 없지만, 과연 고달사지 발굴 현장에도 스님의 자료는 몇장 채 되지 않는 데에 비해 그 목사님 자료는 한무더기였습니다. 기독교를 신앙으로 삼는 일간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방송국이 생겼을 때 불자들은 집집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시절이 있었지요.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면 그날 하루 방송국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자비의 손길이 이어졌고, 정법을 펴는 스님의 가르침이 있는 날은 테잎을 구하지 못해 스님의 말씀을 녹음하지 못한 분들의 안타까운 전화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힘있는 불교 언제 볼 수 있을까

이처럼 간절하게 드넓은 대찰을 일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기인했던 것일까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폐사지에서 조금씩 흔적을 드러내는 건물터, 부서진 청자 조각들… 그것들을 엮어 사라진 역사의 조각을 맞추는 일은 흡사 퍼즐게임을 통해 과거로 떠나는 일과 다름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수한 스님들이 정진하고, 무수한 스님들이 불사를 이루며 추구했을 그 과거의 세계로 떠나면서 단 한줄의 기록도 전하지 않는 현실, 잃어버려 되찾지 못하는 역사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수호하지 못함에 대한 질책과도 같은…

펼쳐진 고달사 발굴터는 예산 부족으로 다시 덮어진다고 하더군요. 다시 나라 예산이 나오면 그때 이어서 발굴을 할거랍니다.

또다시 무성한 잡초로 뒤덮일 발굴현장에서, 저는 힘없는 오늘의 불교를 맘아프게 보아야 했습니다.

최근 특집방송으로 스님과 목사 한분을 모신 일이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스님임에도 스님의 자료는 몇장 채 되지 않는 데에 비해 그 목사님 자료는 한무더기였습니다. 기독교를 신앙으로 삼는 일간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던 방송국이 생겼을 때 불자들은 집집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부처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시절이 있었지요.

어려운 이웃을 소개하면 그날 하루 방송국 전화가 불통이 될 정도로 자비의 손길이 이어졌고, 정법을 펴는 스님의 가르침이 있는 날은 테잎을 구하지 못해 스님의 말씀을 녹음하지 못한 분들의 안타까운 전화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해들으려는 이웃들이 줄지어 서있던 풍경… 꼭 십년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십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불황에 시달리던 라디오 방송은 질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일이 예전같지만은 않습니다. 몇차례의 구조조정으로 안간힘을 쓰던 불교 텔레비전은, 이제 껍질로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천만 불자라고 이야기하고, 불법홍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여겨집니다. 언로가 살아있고, 매체를 통해 소통하지 않는한, 어쩌면 여전히 우리 불교는 근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건축 불사에 매진하는 일 이상 소중한 것은 불교 언론을 되살리는 작업입니다.

뿌리 깊게 내려 무성한 잎을 피워내고 서늘한 그늘을 드리워주는 아름드리 나무처럼 그렇게 꿋꿋하게 의지처가 돼줄 우리 언론을 되살려내는 일… 주간 신문들이 활력을 얻어 일간지로 거듭나고 불교방송도 활성화돼서 불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은 각박한 세상, 방황하는 이웃들 곁에 진정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기도 · 연등공양 사이버 절로 오세요"

WWW. dosolchun.com개설…스님 상담도



사이버 사찰 도솔천(http://www.dosolchun.com)에 가서 부처님을 향한 발원 내용을 적고 기도를 올려보자.

'마음으로 열어가는 세상'을 표방하고 나선 사이버 사찰 도솔천에서는 부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기도 뿐만 아니라 연등 공양을 올릴 수도 있다. 사찰에서나 할 수 있었던 기도, 연등 공양 등을 대거 사이버상에 구현한 것이 도솔천의 특징이다.

연등 공양 코너에서 출생년도와 소원하는 등을 선택하면 1년간 무료로 축원을 해준다. 불전함도 구비되어 있어 성심껏 마음을 낼 수 있다.

스님과 직접 상담을 할 수도 있는 스님 코너를 클릭하면 불교에 대한 의문이나 생활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죽비'는 스님들이 직접 사회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열린공간, '내마음을 찾아서'는 사계절이 담긴 사진 · 명상음악과 함께 하는 나만의 명상공간이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할 수 있는 '이젠 울지 않아요'는 영가의 사진 등 추억의 물건을 올려놓는 곳이다.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품목을 직거래할 수 있는 '불자님네 장터'도 마련되어 있다. '바람없이도 우는 풍경'에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선행하고 있는 불자들을 알려 고마움을 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가족이나 연인들의 사서함 '가족의 쉼터', 유용한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세상둘러보기' 등도 있다. 나만의 비밀을 담아두는 '종이학'도 독특한 코너. 도솔천에서는 골어귀, 자비마을 등의 동호회도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클릭! 새 홈 페이지

■ 깨달음으로 가는 길(http://www.nestor.or.kr)-선화와 더불어 선문답을 싣고 있는 홈페이지. 선사들의 일화 및 삶을 통해 진리를 안내하고자 만들어진 곳이다.

■ 중앙대학교 불교학생회(http://budda.cau.ac.kr)-중앙대학교 불교학생회 홈. 동문회도 개설되어 있다. 기초교리 백문백답 법구경 등 교리 강좌 및 행사 안내 등을 하고 있다.

■ 붓다포토(http://www.buddhaphoto.co.kr/buddhaphoto)-다보사 주지 지암스님의 불교 관련 사진 사이트. 회원등록을 해야 사진을 볼 수 있다. 김도형, 김태환, 박정자, 배재민, 이종봉, 정승렬 등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 금산사(http://www.kumsansa.net)-6월23일 개설. 금산사 가상체험은 물론 성보박물관 안내, 기초 교리 강좌 등을 볼 수 있다. 영문 페이지도 준비하고 있다.

■ 기초불교(http://buddha.hihome.com)-초전법륜, 사성제, 불교용어, 육바라밀, 반야심경 등이 수록되어 있다. 자료실에는 삼귀의, 청법가, 보현행원 등의 찬불가를 직접 들을 수 있다.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풍경소리 회보 창간

역-사찰 결연도 추진

지하철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풍경소리(대표이사 성운)가 6월 15일 회보를 창간했다.

성운스님은 "풍경소리가 지하철 포교활동을 시작한지 9개월"이라며 "'자비의 말씀' 한장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회보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회보에는 다시보는 자비의 말씀, 함께 읽는 페이지, 풍경소리 소식 등이 담겨있다. 풍경소리는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풍경소리는 '자비의 말씀' 게시판 설치와 관련해 각 역과 인근 사찰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02) 736-5583

석불硏 광주군 석불 답사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9일 경기도 광주군 일대로 석불 친견 순례법회를 떠난다. 오전 8시 이대부속병원 응급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회비는 2만5천원, 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광주군 일대에는 유정리 좌불상 등의 석불들이 남아 있다. (02) 760-5171

한편 12일 오후6시에는 삼청동 가족 아카데미아에서 사랑방 모임을 갖는다. 이날 발표는 신은정 회원이 '불교와 불교미술'을 주제로 한다. (02) 760-5138

지하철법우회 법당신축

서울지하철법우회는 6월27일 2호선 종합운동장 역 대합실에 가건물 형태로 설치된 법당에서 고불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를 마지막으로 법우회는 법당을 폐쇄하고 가건물 형태의 법당을 확장 신축하는 불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권선문을 배부하는 등 3천만원의 예산 마련에 분주하다.

정기법회는 9월 완공될 새 법당에서 다시 봉행할 방침이다.

구로승무사무소 성지순례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회장 박창식)는 6월27일 구미 금오산 해운사로 사찰 순례법회를 다녀왔다.

직지사 말사인 해운사는 도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절 뒤편으로 도선국사가 머물렀다는 도선굴이 있다.

한전 반야회 실상사 순례

한국전력 본사 반야회(회장 김영창)는 6월24일~25일 지리산 실상사 황대선원 등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41명의 회원이 동참해 서로의 신심을 다졌다.

한전 반야회는 매주 정기법회 외에 봉은사 원광스님과 함께 한달에 한번 〈초발심자경문〉 기초교리강좌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모임에선

2000 수덕사 선 실천 수련회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21세기입니다.
지난 세기는 과학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아 왔지만
정신적인 빈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이제 새로운 사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바로 '선'입니다.
선은 인류평화와 행복의 지름길로 향도하는 이치입니다.
한국 근대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덕수총림 수덕사에서는
〈〈2000 수덕사 선 실천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안정과 평화, 행복의 길로 초대합니다.

일 시 · 1차 수련회 - 7월 22일 ~ 7월 25일(토~화, 음 6월 21일 ~ 6월 24일)
· 2차 수련회 - 7월 27일 ~ 7월 30일(목~일, 음 6월 26일 ~ 6월 29일)

장 소 수덕사 황하정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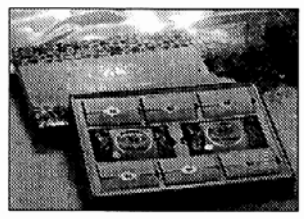
◆참가자격 : 선에 관심있는 일반인
◆개인준비물 : 필기구, 간편한 복장, 운동화, 세면도구, 침구
◆수련회비 : 50,000원
◆접수방법 : 선착순 100명한도 - 방문, 전화, FAX, 우편접수
◆문 의 처 : 수덕사 종무소 전화 041)337-6565, FAX 041)337-0072

대한불교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김법장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딩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5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불교, 통일 주역 나서자

오랜 남북한의 대립 구도는 남북한 모두에게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통된 문화적 정서적 모태를 바탕으로 각각의 다양성이 인정되기 보다는, 오직 내 것만이 옳다는 적대적 논리 속에서 민족은 두 조각이 났다. 양쪽 모두 불완전한 반쪽이면서도 자신이 전부이고 저쪽은 완전히 없다는 병적인 의식 구조가 일반화되어, 결국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고, 자신마저도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접근하는 이 마당에 우리가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병적인 의식구조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가르침을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불교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불교는 원효성사가 화쟁사상을 편 이후 상대방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커다란 통일성을 지향하는 흐름을 지니고 있다. 이런 훌륭한 전통을 바탕으로 불교계가 남북의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서 통일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과 남한, 그리고 해외에 이주해 있는 많은 동포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불교 나름의 모색이 있어야 한다.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 자체가 남한과 북한을 각각 다양성의 하나로 인식하고, 그 차이점을 지양하고 공통적 지향성을 찾아가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 중심의 논리에 매달리지 말고 동등한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시각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불교도 그것에 집착한다면 오히려 외도가 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남북한의 교류에 불교가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가에 중요한 시사를 준다. 북한을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되는 대상으로 고정하지도 말고, 그쪽에 도움이 되면서도 우리와 한민족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이루어야 한다. 불교의 전파라는 조그만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

불교의 고유한 방법론과 영역을 확보하고, 거기에 교계의 힘을 모아야 한다. 불교 교리와 한국 불교의 전통이 지닌 화합과 통일의 정신, 민족문화의 계승자로서 민족의 심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점 등은 불교가 지닌 큰 자산이다. 이런 가능성들을 현실적인 통일 촉진의 힘으로 발현시키는 불교계의 노력이 있어야 할 때이다.

유전자 지도 기대와 우려

인간유전자 지도 초안이 완성되었음이 미·영 두 나라의 정상에 의해 공식 발표되었다. 인간이 달에 착륙한 사건을 능가하는 쾌거라는 말이 의미하듯 이제 세계는 정보산업시대에서 생명공학시대로의 전환에 급한 물살을 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학과 윤리가 장차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라는 새로운 문제가 현실로 바짝 다가섰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과학이 인간 삶의 외피를 구성하고 윤리 도덕적 가치는 인간 삶의 질적인 내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였고, 그에 못지 않게 새로운 윤리의 패러다임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제 생명공학이 세계의 흐름을 이끌어 갈 이 시대에 요청 받게 되는 윤리적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불전과 논서에서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서로 연민하는 마음이나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찾아왔다. 따라서 이 시대의 과학이 이제까지 신비의 영역에 가려져 있던 유전자정보를 해독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 맞춤아기를 낳을 수 있고 람보같은 인간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불전에서 찾아온 인간다움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본다.

비록 과학과 의학이 인간이 안고 있었던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인간의 생명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연장한다고 해도 그 삶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것이어야 의미있는 것이지,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생명만을 연장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비극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인간의 원초적 욕구다. 불자 역시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자의 가치있는 삶은 오래 살고 싶은 욕구를 성취해 가면서 그칠 줄 모르는 이타적 정신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것이 보살의 삶이요, 성불의 꿈을 실현하는 대비원리의 자세이다.

불전에 네 가지 불가사의의 하나로 중생불가사의를 들고 있다. 그 불가사의는 생명에 대한 신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만을 위하려는 이기적 욕망을 가진 인간이 동시에 이웃에 대한 그칠 줄 모르는 연민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불가사의하다고 하겠다.

이타적 연민심을 보다 더 진지하게 실천하고자 결단하고 나서는 일이야말로 생명연장의 꿈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불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게놈 프로젝트와 불교 생명관

① 유전자 조작, 인간존엄 파괴인가
② 불교적 관점에서 본 유전자 조작
③ 현재의 행위(業)가 중요하다

어떻게 살아야 생명존엄인가

●게놈지도 초안발표

생명의 신비를 밝혀줄 열쇠인 인간게놈 초안이 6월 26일 마침내 공개됐다. 이에 따라 멀지 않은 장래에 난치성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 백신이 개발되고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부작용을 최대한 없앤 '맞춤의학'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발표된 1차 초안에서는 인간 유전체(게놈)의 97%가 규명됐으며, 85%가 정확히 조합됐다. 특히 인간 DNA를 이루는 약 31억개 염기 중 85%의 염기서열 정보를 조합한 것은 이 85%의 염기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의 99%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각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과학자들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0만여 개에 달하는 유전자 기능을 종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규명할 수 있게 됐으며, 유전자 기능 연구와 개인간 차이를 나타내는 단일염기변이(SNP)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는 포스트게놈 시대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기능이 밝혀진 유전자는 1만여개 정도. 그러나 나머지 5만개의 기능이 다 파악될 경우 질병극복은 물론 '맞춤인간'도 가능해 이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게 됐다.

●연기설로 본 유전자조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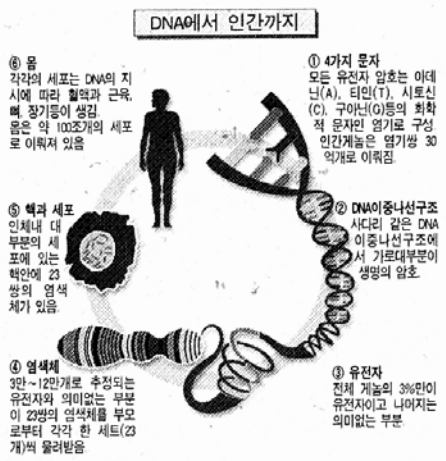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유전자는 진화의 산물이고,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우리'는 업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자연과학에서의 인과의 필연성(유전자)은 외적인 원인과 결과이지만, 불교에서의 필연성(業)은 내적인 의지를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내적인 자기 성찰과 자기 수련없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 완전한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업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다.

업설과 배치된다는 것은 곧 연기·윤회론과도 어긋남을 의미한다. 업에 의해 생사윤회하며, 우주만물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다수의 원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연기법으로 볼 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변화는 생명질서 파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미륵경〉을 보면 '미륵불이 이 세상에 출현할 때쯤에는 사람들은 아무런 질병이 없고, 공해도 없고, 농작물이 풍성하며,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피고 맛좋은 과일들이 많이 열리는 나무들이 가는 곳마다 숲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어떤 원인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모습이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인과법에 어긋나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 "유전자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말을 고려하면 유전자의 이동에도 의지의 중요성 즉 업설의 이론이 적용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

김성규 교수(영남대 의대)는 "게놈 프로젝트가 불교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한다. 40억년 전의 인간 유전자 정보를 안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윤회해 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며, 업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도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불교가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따라서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과학적인 불교가 미래의 대안종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전자 조작의 明과 暗

명	암
부작용이 없는 맞춤신약 가능	유전정보 누출로 사생활 침해 우려
질병발생 확률 예측 가능	인간특성 개조로 유전자 계급 사회 도래
암 등 난치병 치료	획일화된 유전자로 생물학적 다양성 상실
거부반응없는 장기이식 가능	유전정보의 상업적 이용
젊고 건강한 장수시대 도래	맞춤인간 등 윤리적 문제 대두

영생추구는 또다른 苦 낳아
불교, 긍정적 발전 유도해야

이중표 교수(전남대 철학)는 "유전자 조작으로 고매한 인간이 탄생하고 삶이 윤택해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를 비난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종교적 시각만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삶의 구조'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전자가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봉춘 교수(동국대 불교학)는 "긍정적 부정적인 양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문제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간의 문제이기도 하며, 불교가 말하는 이상세계와 결부시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과학의 '무한대 욕구충족'은 필연적으로 인류에게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불교가 삼법인의 진리를 통해 과학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정 박사(동국대 명예교수·과학사상 편집장)는 유전자 조작과 윤리·도덕적 문제는 별개라는 견해를 보였다. "생명공학은 유기론적·전체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생명은 유기론적으로 보면 부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유전자 조작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유전자 조작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윤리·도덕적 문제는 결과에 대한 예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제열 법사(유마선원장)는 "업과 윤회의 법칙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질서에 역행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전제하고 "가치론적인 접근보다는 유전자 조작이 어디까지 도달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교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법사는 "유전자 조작은 영생을 바라는 생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만큼 고(苦)를 낳게 될 것이고, 따라서 혼돈을 야기시킬 소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행위(業)가 문제다

이처럼 유전자 조작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견해 가운데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다. '행위(業)'가 그것이다.

유전자 조작이 불교교리에 배치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지만, 이런 차이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다.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은 '생명질서를 거스르는 인위적인 조작행위'를 문제삼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입장은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인간이 어떤 업을 쌓아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업설에 배치되건 그렇지 않든 간에 유전자 조작을 '업'의 문제로 보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다만 전자는 유전자 조작 행위(業)로 인해 反인간적인 결과가 초래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가치는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놈 프로젝트에 대한 윤리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불교가 생명태동 방식보다는 내적인 자유의지에 의해 자기 자신을 결정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인간이 탄생한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행위가 문제라고 말한다. 즉 업이 문제되, '유전자를 조작하는 인간의 행위'와 '조작된 인간의 행위'의 문제인 것이다.

●불교의 지향점

기존의 생명관은 생명의 기원에서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찾았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생명의 현상을 여실하게 관찰함으로써 체험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 즉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것은 무의미하며,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생명이 존엄해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이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이런 견해에도 적절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는 단서는 붙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유전자 조작 행위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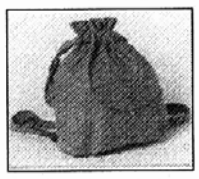
'맞춤인간'이 유전자 조작에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다. 획일화된 문명 속에서 자의적 수행에 무관심한 오늘날의 현대인 역시 '사회'라는 유전자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 '맞춤인간'이나 다름없다.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유전자 조작 문제는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에 대한 사랑, 즉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지혜와 자비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곧 현재의 우리 삶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유전자 조작으로 비롯되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마땅히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경시되고 있는 현실과 유전자 조작으로 초래될 지도 모를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바랑"을 메세요


▲B-1001 ₩40.000


▲B-1002 ₩35.000


◀B-1003(大) ₩35.000


◀B-1004(大) ₩32.000

■벙거지


<팔각>
▲B-1005 ₩20.000


<타원형>
▲B-1006 ₩20.000


<조리개, 끈>
▲B-1007 ₩20.000

※본 바랑 및 벙거지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사 ☎(0572)636-6546/632-6546

입금계좌 외환은행 : 223-22-03071-5
농 협 : 061-17-001230
우 체 국 : 013805-01-001737

제조·판매원 천화무역(주) TEL. 02)449-8844,449-9100

■취급점 모집중 (가까운 곳에서 구입하십시오)

서울	건지불교사	02)739-3032	건성불사	02)735-3543	태성불교사	02)732-7375
	제일불교사	02)73500918	대복전	02)737-0969	이화불교사	02)720-1700
	화계사	02)997-7517	도선사매점	02)906-2279	구룡사	02)575-7766
경기	봉녕사	031)256-4127	포교원	031)253-1055	양평불교사	031)771-4747
	구리반물	031)563-7554				
부산	부다가야	051)865-4383	고려불교예술원	051)807-6842	산사의 뜰	051)508-6300
광주	금성상회	062)369-1937	태동불교백화점	062)224-6696		
대구	삼영출판사	053)425-4097	동화불교사	053)255-0784	봉은불교사	053)424-5462
대전	보문불교서점	042)257-0161	용해불교미술원	042)274-3727	대구승복사	042)254-8772
강원	원주금강불교사	033)743-7442	강릉관음불교사	033)642-8880	홍천이화불교사	033)434-8446
	춘천동해불교사	033)256-984	치악산구룡사팔각정	033)732-1216		
경남	진주관음불교사	055)743-4655	진주제일불교사	055)742-8174	아산불교종합전시관	055)255-6678
충남	김해일광불교사	055)326-0780	창원경남불교전시관	055)295-8911		
전북	천안불교백화점	041)551-4765	동양불교사	041)865-4544	백제불교사	041)855-5621
	이리유기	063)855-3883	상운각	063)274-6639	거북불교사	063)532-2996
	남원불교사	063)625-0234				

天蓮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氏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率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줌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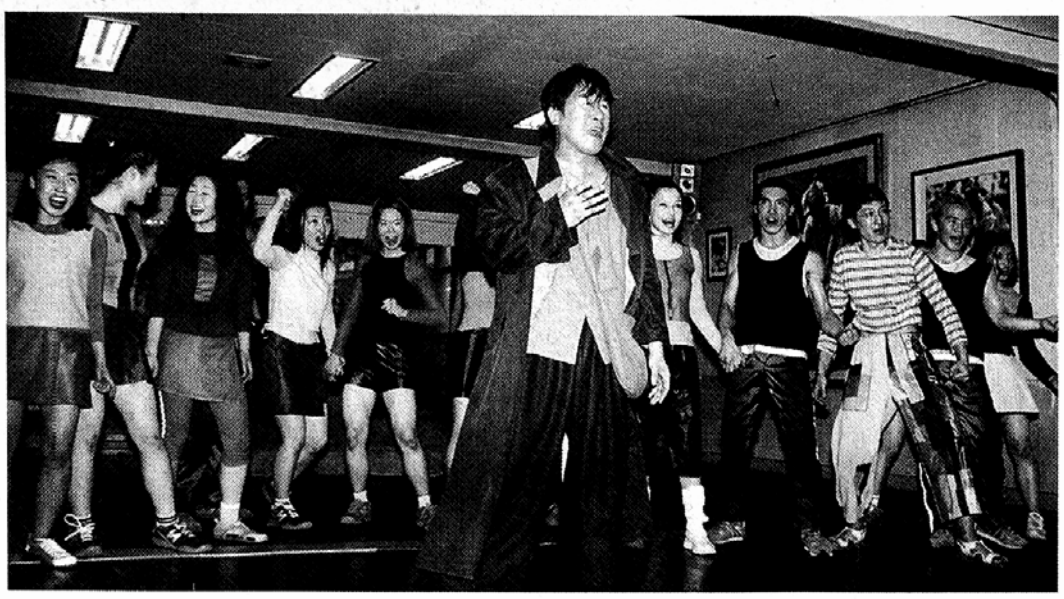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흉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뮤지컬 '도솔가…' 는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반목을, 전통의 해체와 복원을 통해 문화적 화해로 풀어낸다. 사진은 6월24일 밀양연극촌 리허설 현장.

뮤지컬 '도솔가-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디지털 사회의 삶 월명과 니체의 대안 "마음을 나누고 살자"

7일~22일 서울 엘지아트센터…9월부터 경주 공연

9월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주제공연 작품인 뮤지컬 '도솔가-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가 엑스포에 앞서 7일~22일까지 서울 강남 엘지 아트센터에서 첫선을 보인다.

월명 스님이 지은 향가인 도솔가를 재해석한 연출가 이윤택씨의 두 번째 연출작인 '도솔가-…' 는, 올 초 선보였던 음악극 '일식' 에 이어, 지난 세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세기의 비전에 대한 고민을 담은 대작이다. '일식' 이 세기 전환기에 문화적이고 평화적으로 새 세상을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면, '도솔가-…' 는 디지털세대와 아날로그세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반목을 전통의 해체와 복원을 통해 문화적 화해로 풀어내고 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들은 이것들과 마음을 나누지도 못하는구나" 하고 노래하는 주인공 짜라(박철호 역)가 세상을 등진 진리로 상징되는 누이(이정화 역)를 찾아 부패와 독재, 절망의 세상 속으로 뛰어들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을 일군다는 것이 대강의 줄거리다.

특히 뮤지컬 '도솔가-…' 는 연출가 이씨가 기존 뮤지컬의 성격에다 우리의 연극성을 찾는 작업을 보태어 한국적인 뮤지컬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우선 음악에 있어서 우리 나라 불교전통음악인 범패와 전통 영가, 속요를 사용했다. 또 우리고유의 선무도를 신세대들의 힙합과 절묘하게 결합시킨 한국형 힙합댄스 선무힙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전통의 요소들에 현대 대중음악 장르인 록, 발라드, 힙합, 테크노까지 뒤섞고 충돌시켜 가장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장르인 뮤지컬로 포장했다.

뮤지컬 '도솔가-…' 는 독일철학자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보여지는 인간중심사상과 신라의 화랑도 정신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신라 중기 혼돈기에 도솔가를 지어 난세를 구하고 세상의 평화와 사랑을 실천한 월명스님 이야말로 위대한 동양의 짜라투스트라일 수 있다는 단서에서 출발한다.



◇연출가 이윤택씨

세상속에서 짜라는 테크노댄스로 상징되는 요즘아이들과 개인을 속박하는 절대권력을 만나고, 2000년 오늘 세상을 지배하는 디지털문화와 21세기 N세대적 삶의 방식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의문도 관객에게 던진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도시를 전염시키고 해가 둘로 나누어지는 대환란이 시작되자, 재난을 피해 황야로 몰려든 사람들. 주인공 짜라는 먼 옛날 신라의 월명스님이 그랬듯 구원의 노래로 사람들을 깨우친다.

인간중심 사상에 근거한 일상성의 회복과 사랑만이, 난세를 극복하고 내일을 열어가는 유일한 대안임을 깨닫고, 새 세계를 열어가게 된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말이다.

6월 24일 폐교를 개조한 밀양연극촌에서 5개월여의 합숙 연습 끝에 일반에 처음 공개된 뮤지컬 '도솔가-…' 리허설 현장의 뜨거운 열기는 이번 공연의 성공을 예견하는 듯했다. 뮤지컬 '도솔가-…' 는 서울 공연에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일 2차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장내 백결공연장에서 총 140회 공연을 갖게 된다. (02)2005-0114

이은자 · 천미회 기자
(ejlee@buddhapia.com)

뮤지컬 '도솔가-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7월 공연에 이어, 〈직지심체요절〉을 소재로 한 오페라 '직지' 가 오는 9월 공연을 목표로 제작되고 있는 등 최근 불교를 소재 또는 주제로 한 연극들이 다수 선보이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의 무대 언어화가 활발해진다는 점에서 우선 반가운 일이지만, 이에 대한 교계 차원의 관심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런 기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동안 끝없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연극계에서 불교 소재의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는 것은 무모한 모험과도 같았다. 지금까지 선보인 다분히 불교적인 연극들은, 불자들로부터도 철저히 외면 받았고, 일부관객과 언론의 관심 외에는 흥행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 후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불교적 내용을 소재 또는 주제로 삼은 연극들이 총 15편(월평균 1.25편)이나 선보이면서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극이 8편, 뮤지컬 6편, 오페레타 1편이 무대에 올랐다.

"불교연극 많이 보자"

'도솔가 '직지' 등 잇달아 무대에

교계 연극여건 열악

형식면에서도 불교사상을 접목시킨 현대극, 불교 창작음악과 연극을 혼합한 음악극, 음악과 무용, 그리고 연극을 혼합시킨 총체극 등 다양성을 갖췄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팔만대장경 제작에 얽힌 사랑이야기, 혼돈의 시기 대안사상으로 떠오른 불교 사상, 불상제작에 얽힌 이야기 등 한결 풍성해졌다.

지난해 무대에 올려져 갈채를 받았던 뮤지컬 '팔만대장경' 은 지난달 20일부터 일본을 비롯한 전세계 순회공연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가운데 순수하게 불교계 역량만으로 제작된 작품은 지난해 6월 선보인 불교극단 하늘개인날의 연극 '느낌, 극락같은' 과 9월 선보인 오페레타 '아미타불', 올 4월 선보인 뮤지컬 '오! 부처님' 3편 밖에 없어 여전히 교계 여건 성숙과 내적 역량의 강화는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연극 '느낌, 극락같은' 으로 전국 연극제에서 연출상을 받았던 연출가 곽종필씨는 "연극계 일부에서 소재의 독특함 때문에 불교소재의 연극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수박겉핥기식으로 표출된 연극은 허상만 쫓게 되고, 자칫 일반인들에게 잘못된 이해를 심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불교의 철학을 가장 알기 쉽게 풀어줄 수 있는 현대감각에 맞는 불교연극이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교계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불자들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면서 "거듭되는 관심과 노력으로 시대의 언어로 보편화된 불교사상을 접목시키는 일이 바로 불교연극을 보편화하고, 대중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소재의 무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단 연극계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서 불교는 우리 문화의 영원한 자양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연극계에서 선보인 불교소재의 작품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교계 내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비평하고,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화를 매개체로 한 새로운 포교방편의 싹이 꽃도 피우기 전 시들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은자 기자

용인에 문 연 '돌조각 박물관'

석탑 · 석등 · 맷돌 등 1만여점 전시

'돌은 말은 없으나
철학자에게 철학으로
음악가에겐 음악으로
예술가에겐 예술로
종교가에겐 종교로
~(중략)
세월없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깊은 침묵으로
삶, 그 존재의 말로 있나니.'
〈 조병화의 詩 '돌' 〉

옛 돌 조각의 전시를 통해 선인의 숨결을 느끼고, 자연스레 우리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돌 조각 전문 '세중 돌 박물관' 이 1일 경기도 용인에서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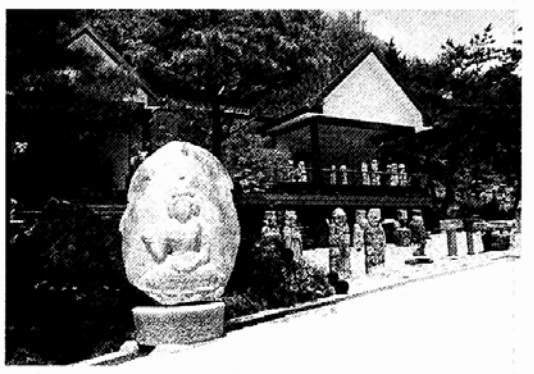
세중 돌 조각 박물관은 5000여평의 공간에 한국불교와 돌, 동자들의 마음, 12지신상 조형탑, 희노애락의 언덕, 탐라국의 동자들, 생활속의 돌, 돌짐승과 함께, 민속신앙의 돌, 벅수동네 등 10개 야외 전시관으로 구분해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1만여점을 상설 전시한다.

사찰에서 예배와 기원의 대상이 된 석탑, 석불과 중생의 마음에 한줄기 빛을 주고자 밝혀두었던 석등, 고승의 사리를 온전히 지켜온 부도 등의 불교 유물에서부터, 연자방아, 맷돌, 다듬잇돌 등 우리 조상들의 생활도구, 그리고 왕릉을 보호하던 석수, 마을의 수호신이었던 장승 등이 대자연속에 펼쳐진다. 특히 개관을 기념해 4,333개의 다듬잇돌과 열두띠 동물상으로 새롭게 조성한 12지 신상 조형탑이 눈길을 끈다.

세중 돌 박물관은 20년 동안 우리 옛 돌조각 수집과 보존에 노력을 기울여 온 불자 천신일씨((주)세중 대표)의 원력으로 이루어졌다.

천씨는 "한국미술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옛 돌 조각 작품만을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할 것"이라면서 "민속적, 종교적 측면뿐 아니라 순수예술 작품으로서 돌조각의 조형적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새로운 한국의 미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031)321-7001

이은자 기자



◇옛 돌조각을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의 깊이를 체험하게 하는 돌박물관은 총 10개의 야외전시관으로 구성되었다.

초여름 밤 산사 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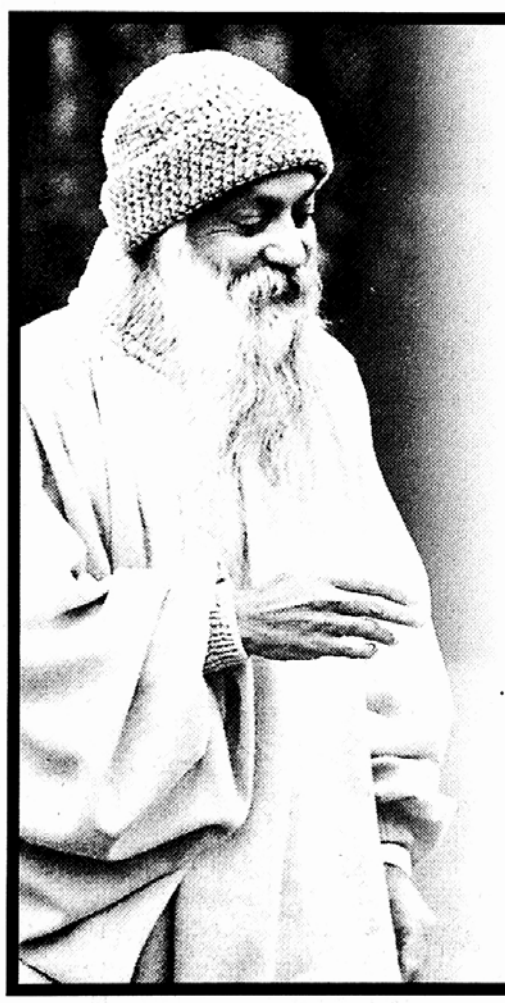
5일 진천 보탑사

초여름 밤을 문화의 향기로 가득 채울 산사음악회가 5일 저녁 7시 충북 진천 보탑사에서 열린다.

이날 음악회에는 음성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정률스님의 찬불가 공연과 영산재 이수자 동희스님의 범패공연 등 불교음악을 비롯해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비틀즈 히트곡 모음, 국악인 신영희씨의 판소리, 가수 이동원, 성악가 박현준 등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우리 노래가 여름 밤 산사의 저녁을 장엄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진천 보탑사와 불교텔레비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사찰 기능을 창출하고, 불교문화의 다양성을 널리 펼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은자 기자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The Book of The Books
법구경 I·II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전2권 각권 값 10,000원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니,
우리는 마음을 통해 세상을 만든다.**
오쇼의 법구경 강의는 방금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이 넘친다. 불교의 경전을 넘어서서 참다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진리의 선물이다.

The Diamond Sutra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그대는 오직 의식하는 만큼만 존재하리라.
의식은 그대를 깨어 있게 한다.**
이 진언은 '그대 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 를 흔들어 '깨달음의 땅' 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여기 금강에서 가장 높고 웅으며 완벽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The Heart Sutra
반야심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그냥 존재하라. 삶이 춤추도록 놓아두라!
이것이 진리가 찾아 오는 유일한 길이다.**
집착과 소유를 버려라! 삶의 덧없음에 명상하라!
그대가 무(無) 안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날, 모든 붓다들이 그대를 환영하고, 열반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대업는 깨달음
10. 신우도
11. 선심령
12. 하산 연꽃들(대대서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인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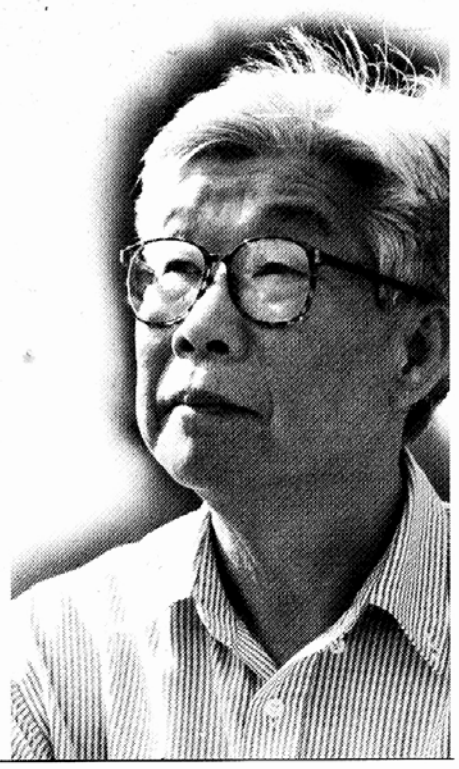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노철학자의 의심덩어리 '나는 누구인가'

박이문 교수 '나의 출가'



상아탑서 반세기 정신적 편력과 지적 방랑 담아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것은 그냥 말뿐이다. '나'라는 말을 둘러싼 생물학적 존재의 변화만이 있을 뿐이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잡히지 않는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밖과 안에서부터 일어난 변화의 산물이다."

'나는 누구인가'를 평생 화두로 삼아왔던 박이문 교수(전 포항공대)가 반세기 교단생활을 접으면서 내놓은 결론이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앎은 아무리 깊다 해도 수박 겉껍데기 정도의 깊이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고 해야 할만큼 배워야 할 것이 무한히 많고 어렵다"며 초발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나의 출가 ; 영원한 물음〉(민음사)은 분명 박이문이라는 '나'의 이야기이지만, 단순한 개인사의 고백을 넘어 삶과 존재의 궁극을 향한 모든 인간의 열정을 대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생각을 뎟씌우려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없는 겸손과 청년의 열정으로 '나' 박이문의 물음에 충실할 뿐이다.

원로 시인이면서 철학자인 박 교수는 "세속적 욕망을 끊고 구도의 길로 접어드는 출가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치열한 실존적 결단을 요구하는가"라고 자문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출가정신으로 철저하고 치열하게 살아야겠다"고 토로한다. 이 책의 제목에 '출가'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책머리에서 "나는 불교신자가 아니다"고 밝힌 그가 출가에 큰 의미를 두는 이유는 무얼까. 진리에 목말라 그 답을 찾기 위해 학문의 길에 들어서서, 한국에서 프랑스로, 미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오가며 문학과 철학, 미학, 사회학, 그리고 생태학까지 두루 섭렵했지만, 끝끝내 자신이 던진 물음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종교적 구도와도 같았던 자신의 학문 궤적을 되짚기도 한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에는 반세기 동안의 정신적 편력과 지적 방랑의 과정 그리고 교단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1부 '나의 길 나의 삶'은 삶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2부 '사랑할 시간이 없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물음과 그 대답들로 채워져 있다. 3부 '고별강연'은 지난 2월 포항공대 정년퇴임 때의 강연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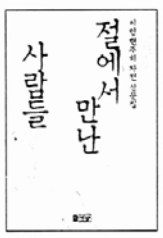
글쓴이는 말한다. 도대체 존재의 진리란 것이 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고. 세상과 나 자신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진다고. 하지만 그는 존재와 세계의 투명한 진리 찾기 탐구는 멈추지 않는다.

지칠 줄 모르는 글쓴이의 '영원한 물음' 던지기는 놀라운 힘으로 우리를 그 물음의 자장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위해 '출가'를 할 것인가? 이미 했다면 과연 출가정신에 얼마나 투철한가? 어쩌면 이 책의 진정한 메시지는 어떤 해답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물음'이라는 커다란 의심덩어리가 아닐까. 값 6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큰스님들도 장난친대요

현주하 산문집 '절에서 만난 사람들'



자루속에 구산스님 ——— 국수 삶는 법정스님

제목부터 시선을 끄는 시인 현주하 씨의 산문집이다. 현 씨는 고암·구산·법흥·해월·자운·법정 스님 등 원만한 사람들도 다 아는 이 시대의 큰스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의 인간적이며 솔직한 삶의 이야기와 은밀한 사생활을 들추어낸다.

그 동안 큰스님들의 법문과 수행담을 엮은 책은 많이 출간됐지만, '사생활(?)'을 담은 책들은 거의 없었다. 〈절에서 만난 사람들〉(명상)은 스님들의 가행정진 이면의 생활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일화 등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큰스님 세계'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여기 소개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구산 스님이 계시는 송광사 삼일암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다. 스님을 부르며 되돌아 나오는 순간 마루에 푸대 자루가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푸대를 조심스럽게 만지는 순간 구산 스님이 얼굴과 팔다리를 불쑥 내민다. 너무 놀라 안절부절 못하는 현씨에게 스님은 "불을 지폈더니 너무 뜨거워서 말이야"라고 대수롭지 않은듯 말한다. 스님은 방안이 더워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푸대 속에 들어갔던 것이다. 일명 푸대 속의 정진이야기다.

이처럼 이 책에는 국수를 삶는 법정 스님, 군불을 지피던 아궁이에 갑자기 물을 뿌리던 해월 스님, 여자의 유혹을 참지 못해 망신당한 스님, 한 처녀의 눈물겨운 삭발을 비롯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절집 생활 등 짧막한 이야기 55편이 굴비처럼 줄줄이 엮여 있다.

이 책의 이야기들은 소설처럼 극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담백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읽어 가다 보면 마치 큰스님들과 함께 있는 듯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잘 접할 수 없었던 스님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다. 값 7천5백원.

김중근 기자

청소년 위한 눈높이 명상

최시선 교사 '…명상이야기'

'21세기는 명상과 선(禪)이 화두가 될 것이다'는 전제 아래 10여 년 동안 청소년 명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최시선 교사(증평상고)가 청소년 눈높이로 본 명상집을 펴냈다.

〈청소년을 위한 명상 이야기〉(불광)는 명상을 청소년들에게 맞게 새롭게 해석·정리하고 있다. 특히 불교경전, 중국 선사 어록, 동양과 서양고전 등에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101가지의 이야기들, 더 나아가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 말미에 덧붙인 '물음'과 '나의 명상록', 그리고 '명상 도우미'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명상 노크하기와 명상 맛들이기로 크게 나눈 뒤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춰 명상할 수 있도록 출간된 이책의 백미는 '바로 읽고 바로 명상하기'이다. 명상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등서양 성인들의 일화를 통하여 명상의 실전에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누구나 손쉽게 사찰음식 만들기

적문스님 '전통사찰음식'

가정에서도 손쉽게 사찰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조리법을 담은 〈전통사찰음식〉(우리)이 출간됐다.

적문(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스님이 펴낸 이 책은 사찰음식 250여 가지를 사계절로 나눠 재료와 만드는 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초보자들도 조리할 수 있도록 재료의 중량(4인 기준)을 표시해 놓은 것은 이 책의 또 다른 배려다. 하지만 사찰음식을 조리하는 데 법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청정(淸淨), 여법(如法), 유연(柔軟)의 원칙과 오신채를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정신이 배어 있기에 사찰음식은 다른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맛과 향이 배어 나는 것은 아닐까. 값 1만3천원.

김주일 기자



일체경음의 · 정원신정석교목록2

한글대장경 새책 두권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 〈일체경음의〉와 〈정원신정석교목록 2〉이 나란히 출간됐다.

〈일체경음의〉는 여러 불전에 나오는 난해한 단어들의 음과 뜻을 풀이한 불교용어사전. 혜초 스님이 저술한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용어 해설도 실려 있다. 〈정원신정석교목록 2〉는 정원록에서 누락된 불전 등 모두 140부 413권을 기록한 책이다. 값 각권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새로나온 책



▲화엄경현담 1·2(징관 청량국사 지음, 불전국역연구원 공저, 중앙승가대학교 출판부)= 〈화엄경〉의 핵심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개설서. 중국 당나라 징관 청량국사가 지은 〈화엄경현담〉을 저본으로 한 이 책은, 교기인연, 장교소섭, 교리분제 등 12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불전국역연구원은 〈화엄경현담〉 잔여분을 역해해 계속 출간할 예정이다. 값 각권 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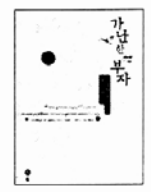
▲본대로 느낀대로 인도기행(정승석 지음, 민족사)= 혼자 인도를 여행하며 그날그날 느끼고 체험한 것을 담은 인도기행집. 인도철학을 공부한 정승석 교수가 쓴 이 책은, 봄베이와 칸헤리를 시작으로 마드라스 박물관까지의 여정을 일기형식으로 잔잔하게 풀어내고 있다. 이 속에는 인도의 불적을 비롯 사회, 문화가 있는 그대로 담겨 있어 마치 인도의 땅에 있는 착각을 할 정도로 생생하다. 값 8천5백원.



▲한·중·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김용운·진순진 지음, 문학사상사)= 수학자 김용운(한양대) 교수와 일본 역사소설가 진순진 씨가 '21세기 새천년을 맞는 한·중·일의 문명사적 회고와 전망'에 대해 토론한 내용을 담은 대담집. 한중일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고대부터 현재까지 각국의 문화를 비교하며 3국의 관계사를 정리한 책으로, 21세기를 맞는 공통 문화권으로의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전망한다. 값 8천원.



▲하루를 살더라도(세프라 코브린 피첼 지음, 김은정 옮김, 경성라인)= 마음을 열어주는 365일 명상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과 긍정적 신념, 그리고 자연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슬픔, 쓸쓸함, 이별, 두려움 등 그때 그때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들추어 볼 수 있도록 365개 단락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명상서라 할 수 있겠다. 값 8천9백원.



▲가난한 부자(이병한 지음, 솔)= 중문학자 이병한(서울대 명예교수) 교수의 고전 다시 읽기. 〈논어〉, 〈대학〉, 〈목민심서〉 등 동양의 고전 가운데 현대인들의 귀감이 될만한 문장만을 가려 뽑아 수록했다. 고전의 가르침과 현실의 접목을 시도한 책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모두 160편으로 각 편마다 고전의 원문과 해석, 그리고 저자 특유의 해설이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각 편의 분량도 많지 않아 틈틈이 음미하며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값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2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3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4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 족 사
5	마하르쉬의 복음	대 성	탐 구 사
6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 이 당
7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강원	법 공 양
8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 삼바바	정신세계사
9	선방의 아침	좌등의영	들꽃누리
10	위빠싸나 성자 아짠 문	김 열 권	불 광

도서 안내:(02)737-0695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남-북 문화재 교류 대비 '불교의 힘' 키우자

문헌연구 선결과제…사지복원 능력 강화

금강산 신계사 복원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교계 스스로 남·북 불교문화재 교류의 대계(大計)를 세우는 한편 제2, 제3의 신계사 복원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계 문화재 전문가들은 "신계사 복원과는 별도로 폐사지 조사·복원 등 불교문화재 교류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정립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종단이 중심이 돼 교류를 진행하되 문화재 관련 단체나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가 일고 있는 까닭은 신계사 복원 계획이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계가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의 측면도 있지만, 지금의 교계의 여건으로는 향후 계속될 수 있는 북측 주요 사지의 공동 발굴·복원·보존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 또한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문헌으로 확인된 북한의 사찰 수는 500여 개. 이 가운데 현존하는 사찰 수는 겨우 60여 개에 불과하다. 즉, 예전의 사찰 대부분이 폐사지로 남아있는 셈이다. 따라서 현지 조사와 문헌 자료를 종합·비교하는 학술적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 긴 안목으로 발굴 및 복원에 착수해야 한다.

금강산 신계사의 경우, 교계는 90년대 초부터 복원에 뜻을 품어 왔지만, 현재 '참여한다'는 원칙만을 세워놓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같은 후속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74년 신계사지를 발굴한 북측이 중창기(1597년)의 모습으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측설계 도면까지도 만들었기 때문에, 복원 자체보다는 제반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원칙이 앞설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교계의 역량으로는 신계사 복원에 깊이 개입할 수 없다"며 "복원이 결정되면 종단에서 특별 기구를 설립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종단 한 관계자의 말은, 남·북간 불교문화재 교류에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낳게 한다.



◇남·북 공동 사지복원의 시원이 될 신계사지 모습. 74년 이곳을 발굴한 북한은 '1597년(중창기)'의 사격으로 복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교계는 북한 불교 관련 문헌조사를 토대로 이룩한 1차 성과물을 적극 활용해 불교문화재 교류의 대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55년의 분단기간 변형된 서로의 모습을 벗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교계의 '북한불교 관심'은 〈북한불교연구〉(법타스님), 〈북한사찰연구〉(사찰문화연구원) 〈북한의 고대사 연구와 성과〉(김정배) 〈한국의 사찰-북한의 사찰〉(일지사 편집부), 〈북한문화재도록〉(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의 성과물을 낳았다. 특히 조계종은 올 11월경 〈북한문화재〉(가칭)를 발간함으로써, '북한불교'에 대한 문헌조사를 일단락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 전문가들은 "10여 년간의 문헌 조사를 토대로 북측 폐사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고, 현장 사진과 상세한 문헌 자료를 더 찾아야 한다. 또 사지의 중요도를 구분, 복원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동발굴위원회'(가칭)와 같은 기구를 구성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오종욱·권형진 기자 (gobaoou@buddhapia.com)

영변스님 '화엄경론' 발견

윤선태박사, 서울대 규장각서

100권중 필사본 6권

초기화엄사상 연구자료



◇윤선태 박사

초기 화엄학 연구에 전기를 마련할 경론이 나왔다. 윤선태(서울대 강사) 박사가 서울대 규장각에서 영변(643~712·중국) 스님의 〈화엄경론〉 필사본 6권(1책·규27780)을 발견했다.

영변 스님은 중국 북위시대의 대표적인 화엄학자. 전 100권으로 구성된 그의 경론은 〈60화엄〉의 일자일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체의 문맥을 유연하게 규명해, 법장(643~712·중국)·징관(738~839·중국) 스님들이 자주 인용할 만큼 당대 최고의 〈화엄경〉 해설서로 꼽혔다.

경론은 우리 나라에서도 고려시대까지 유통되었지만 모두 사라지고, 1944년까지 6권만이 송광사 장경각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전쟁으로 소실돼, 현재 전권 중에서 권3·10·14·16·17·18 등 6권만이 일본에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은 권51~권56을 묶은 1책에 불과하지만, 일본에 현존하는 경론과 함께 지론종(地論宗) 계열에서 출발하는 초기 화엄사상과 교학의 전개 과정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견된 필사본은 송광사 소장본을 저본으로 옮겨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사또 타이준(일본) 박사가 송광사에 남아있던 경론의 판식(板式)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규장각의 필사본 판식이 이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필사본의 각 판은 1행에 20자씩 총 30행으로 되어 있고, 각 판의 왼쪽 아래에는 '화엄론오십일'이라는 권 수와 장 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윤 박사는 "층독부나 경성제국대에서 송광사에서 발견된 경론을 필사·보관했고, 이 필사본이 서울대 규장각으로 그대로 옮겨진 것 같다"고 풀이하고, "송광사 소장본은 조선시대 장경도감에서 펴낸 〈화엄경론〉의 일부로 추정할 수 있다"" 설명했다.

〈화엄경론〉의 주 텍스트인 〈60화엄〉은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불타발타라가 418~420년에 한역했다. 이에 대한 주석서로는 〈화엄경론〉을 비롯해 법장의 〈탐현기〉, 지엄의 〈수현기〉 등이 유명하다.

오종욱 기자

회암사지 '유물보고'

청동금탁·분청향완·석재불상 발굴



◇사찰명이 새겨진 청동금탁.

조선초 왕실의 지원을 받아 번성했던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사적 제128호)에서 최상급 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됐다.

1월말부터 회암사지를 발굴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문화재단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 29일 그동안의 발굴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보광전 추녀에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금탁 2점에서 '태조 3년 6월(1394)'이라는 제작 연대와 함께 '천보산중회암사…'라고 기록된 명문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회암사'라는 사찰명이 새겨진 유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청동금탁에는 또 무학대사와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의 이름이 순서대로 새겨져 있어 회암사와 조선왕실의 관계를 알려주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조사단은 이번 2차 발굴조사에서 보광전 등 모두 15개소의 건물지가 발견돼, 조선왕실의 지원을 받아 사역 내 건물이 262칸에 이를 정도로 번성했던 국찰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건물지는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발굴돼 조선초 사찰건축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선 초기 조각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 석재불상과 토제 등 최상급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학술단신

불교학연구회 워크숍

불교학연구회는 8·9일 경기 남양주 불암사에서 '현대사회의 제문제와 불교'를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부처님 가르침을 오늘의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응용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는 '불교의 환경문제'(신규탁), '생태철학과 불교'(김종욱), '불교의 생명사상'(이중표), '정신치료와 불교'(김명숙), '불교의 신앙'(종범스님), '불교와 매스컴'(신진욱), '가상현실과 불교의 세계관'(이효걸)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02)2260-3128

한국선학회 7월 발표회

한국선학회는 15·16일 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간화선과 위빠사나의 수행법을 비교하고 직접 배우는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에는 홍명(지리산 토굴수행) 법사의 '간화선과 위빠사나 수행의 연관성', 황미향(동국대 강사) 박사의 '남방선의 수행법' 등이 발표되며, 해거·거해 스님과 강건기·김열권 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도 이번 발표회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선 실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참가비 3만원. (02)2260-3135

교불련 선종학술대회

한국교수불자연합회와 불교춘추사는 8월 11일 강서성 남창시 우민사에서 '강서 선종과 한국선의 이해'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마조선이 한국선종에 미친 영향'(일성·중국 진여선사 방장), '강서 선종과 구산선문의 원류'(이준·교불련 회장), 등 논문 9편이 발표된다. (02)720-6618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선불교 7계

선불교 미국·유럽 전파 '한몫'

선불교 7계(The Seventh World of Chan Buddhism)는 남녀노소를 망라한 사부대중이 함께 선불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불심 공동체다. 협회의 본부는 미국에 있으며 캐나다, 대만, 말레이지아, 베트남, 홍콩,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 지회를 두고 있다. 선불교의 사상을 탐구하고 체계적으로 참선을 수행하고 있는 세계적인 불교사회운동 NGO인 셈이다.

중국 선불교의 법통을 이어 받은 과거 중국 만주 지역 출신인 추안 유안(Chuan Yuan) 스님이 1962년 미국에서 설립한 단체로, 현재 다수의 불교사찰과 참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추안 유안 스님이 미국에서 거의 30여 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거의 30년 동안 선불교 경전과 사상에 대한 강연을 포교와 수행을 해온 결실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스님이 그 동안 펴낸 선불교 관련 해설서 100여 권에 대한 리뷰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책들은 미주와 유럽 지역에서 6개 국어로 번역될 정도로, 서양인 불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미국불교협회(SinoAmerica Buddhist Association)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참여와 활동이 미국인들에게 선불교를 소개하는 좋은 창구



가 되고 있다.

선불교 7계에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찰은 매일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불교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철저한 스케줄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소속 회원들은 모두 오계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이러한 협회 내부의 교육 프로그램인 3년 과정의 승가교육과 2년 과정의 평신도 교육은 미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3년 과정의 승가교육은 승려가 되기 위해서 전통적인 승려 품계 절차에 따라 비구 250계와 비구니 348계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한다.

특히 회원들의 수행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선택할 있도록 대승불교 계열의 다섯 가지 불교 종파들의 수행 가풍을 권장해, 참선 수행만을 고집하지 않는 여유도 보인다. 이들 종파에는 불교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율종, 참선수행에 매진하는 선종, 불교교리를 연구하는 교종, 주문과 기도에 주력하는 밀교, 염불을 열심히 하는 정토종 등이 있다.

선불교 7계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는 불교경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이 사업은 산하 기구인 불교경전번역협회(Buddhist Text Translation Society)에서 도맡아 진행했는데, 지금까지 100여권의 불교경전을 영어, 불어로 번역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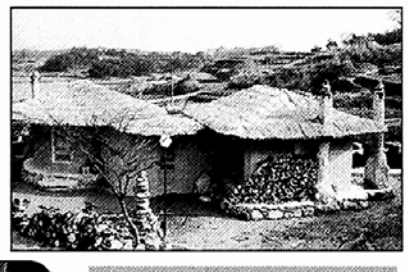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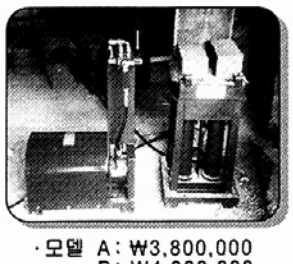
△http://www.hsuyun.org/Dharma/nanhua/7thworld/index.html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 이 가능 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금해스님의 여래선식



많은 분들께서 여래 선식의 뛰어남에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탄하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순금 만큼 값진 죽염 쥐눈이 콩간장, 콩메주를 발효시켜 한번구운 죽염으로 간장을 뜨고, 숙성시킨 간장에 진짜 자수정 죽염을 넣고, 자수정 죽염 1 : 쥐눈이 콩 간장 5 느릅나무 엑기스 1의 비율과 나머지 약재를 넣고 간장 1 말이 2되 되게 졸인 진 죽염 간장…
바르고, 넣고, 마시는 그 신비한 진 죽염간장
모든 암에 결정적 영향, 소화기 장질환에 급속 해결

▶▶ 숙취 해소, 가정의 비상약 ◀◀
· 진죽염간장 1L : 200,000원
· 원동 토종매실로 발효시킨 엑기스 1.5L : 60,000원
· 쥐 눈이 콩 메주 1kg 당 : 15,000원
· 쥐 눈이 된 장 1kg 당 : 10,000원

▶건강음료 및 장류 사업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자본 3억 이상 출자 가능하신분 .경영전문가

상담 문의 0523)372-1221 / 011)564-1217
▪입 금 : 우체국 611715-02-016346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2000학년도 제9기 법사 양성을 위한 —— 한국불교법사대학
법사교육 계절강좌 수강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불교 교리공부와 법사교육에 대발심과 큰 뜻을 두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수강신청 등록을 못하신 불자님을 위해 특별히 8월 하계절을 이용하여 전반기 법사교육에 관한 계절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전반기 법사교육 일정에 준하여 법사행도에 절차탁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편입 및 계절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하오니 불교교육과 섭수정법하는 법사의 행로에 관심있으신 분은 금반 법사교육 계절강좌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모집안내 출강 및 통신

●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7월 20일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법사종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pubsa.buddhism.org

5念 익히면 생사해탈 얻어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4〉

팔관재계-2

미움 버리고 부처님 생각한 여종
죄악 소멸돼 죽어 도솔천 태어나

부처님은 "자신이 지은 업이나, 짓고 있는 업이나, 앞으로 지을 업이 착한 업인지 악한 업인지를 항상 살펴서 선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라훌라를 가르치기 위해 『라운경』에서 말씀하셨다. 팔관재계에 있어서도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은 떳떳한 삶의 길이기 때문에, 이 계를 깨뜨리는 것은 무거운 죄업이 된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 것은 많은 잘못을 일으키는 재앙의 문이고, 팔관재계 가운데 마지막 네 가지 계는 게으르고 방일한 생활에서 일어나는 허물을 경계한 것이다. 팔관재계를 지키는 공덕에 대하여 『현우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북인도 아반제라는 나라에 한 늙은 여자종이 있었다. 여종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다. 조금만 잘못해도 채찍으로 맞고, 끼니를 때우기조차 어려웠다. 이런 괴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심해졌다. 그래서 여종은 때때로 스스로 모진 목숨을 끊고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어느 날이었다. 강가에 나가 항아리에 물을 긷던 여종은 설움이 북받쳐 산천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울었다. 그때 강가를 지나던 가전연 존자가 이 모습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서럽게 우십니까?"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한 집안에서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늙어갈수록 힘든 일은 더욱 많아지고 가난도 더해만 갑니다. 옷도, 먹을 것도 얻기가 어렵습니다. 죽으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듣고 어안이벙벙해진 여종은 존자에게 가난을 팔 수 있는 길을 물었다. 존자는 여종에게 발우를 주면서 말했다.

"발우에 깨끗한 강물을 떠다 주시겠습니까?"

존자는 여종이 정성을 다해 길어온 강물이 담긴 발우를 건네 받고 여종을 위해 축원을 하고 팔관재계의 계사(戒師)가 되어 이렇게 말했다.

"원망하거나 미워함이 없는 마음으로 일하고, 잠을 자고 숨을 내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밤이 되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면 문안에 들어가 깨끗한 풀을 깔고 앉아 오직 부처님만을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집에 돌아온 여종은 존자가 시키는 대로 하여 그 공덕으로 그 날밤 모진 목숨을 다해 도리천에 태어났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은 여종을 본 주인은 화를 버럭 내면서 사람들을 시켜 풀로 다리를 묶어 숲 속에 버리게 했다.

죽어 하늘에 태어난 여종은 하늘나라에서 오백 하늘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때마침 도리천에 머물던 사리불 존자가 갓 태어난 여종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복을 지어 이 같은 하늘 세상에 태어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천안통으로 여종의 지난 생을 살펴보았다. 사리불 존자는 여종이 지난 생에 가전연 존자에게 팔관재계를 받아 지닌 공덕으로 하늘나라에 태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리불 존자는 오백 하늘 사람들과 함께 여종의 송장을 버린 숲 속으로 나아가 향을 사르고 꽃을 뿌려 공양했다. 하늘 사람들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나와 숲을 환하게 비추자, 이것을 본 여종의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숲으로 왔다.

하늘나라 사람들이 죽은 여종에게 꽃과 향으로 공양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물었다.

"이 여종은 더럽고 천한 계집이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도 사람들이 보기조차 싫어했는데, 지금 죽어 있는 몸뚱이는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여종의 몸뚱이에 곱게 공양을 하십니까?"

하늘 사람들은 여종이 도리천에 태어난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공양을 마친 하늘 사람들은 곧바로 가전연 존자를 찾아가 계법에 대해 깊은 법문을 듣고 저마다 수다원과를 얻었다.

『불설재경』에 "팔관재계를 지키면서 다섯 가지 생각(五念:부처님, 법, 스님, 자성의 계, 하늘)을 익히는 것을 '불법의 재'라고 하는데, 이 재를 지키면 천신들과 같이 세 가지 덕이 있으니 죄악을 소멸하고 선행이 생겨나게 하며, 후생에 천상에 태어나고 마침내 열반을 얻는다." 하였다. 팔관재계를 받아지키면 비록 천상에 태어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반드시 생사의 해탈을 얻게 되는 커다란 공덕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생명이 화합하여 공존하는 원리인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화합하여 살아가는 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자기 불성 깨닫고 해탈하는게 불교"

법회중계

관음법회

〈2000년 6월 25일〉



경우스님
〈충주 신흥사 주지〉

복 · 극락 구하기 보다 지금 나의 문제 풀기위해 수행해야 올바른 불자

얼마 전에 한 사람을 찾아왔는데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더군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생의 복덕을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불교의 현실을 보게 하는 단면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지 16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기복불교란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의 잘못된 신앙관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른불교를 향해 승가와 재가가 정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여러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투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심이 쇠약해질 뿐 아니라 삐뚫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바른불교를 향한 수행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불교가 영원히 살길이고 발전하는 길입니다. 대부분 불자들은 그 길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여러 사찰에서 수련회 등을 통해 수행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행을 통해 참불자가 되자는 차원에서 수행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행위를 흔히 수행이라고 합니다. 즉 수행한다는 것은 자기를 변화시킴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칫 생각을 달리하면 불교가 죽은 후에 극락에 가기 위해서 또는 내생에 복을 받아 잘 살기 위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행하면 극락에 갈 수 있고, 다음 생에 더 나은 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목표가 돼서는 안됩니다.

수행은 다음 생을 위한 것도 전생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돼야 합니다. 남녀노소,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지요. 수행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수행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행위일 때 수행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탐구가 생활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자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수행은 아무 공덕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모든 공덕은 이러한 수행이 뒷받침 될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 있어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뚜렷한 목적의식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는 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불자들은 수행을 어렵거나 특정인만이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행(行) · 주(住) · 좌(座) · 와(臥)가 곧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더라도 우리는 모두 살아 있는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 자신의 불성을 깨닫고 고통과 번뇌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교입니다. 이 같은 철저한 수행을 할 때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행하는 불자가 됩시다.

정리=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서양눈에 맞춘 불교 '대중화 바람'

세계의 불교학 〈24〉 에스토니아

1930년대 티베트불교 전래…92년 공인
동양의학 · 무술 · 풍수 찾는 사람 많아



◇티베트불교 법사에게 수계를 받고 있는 에스토니아 여성불자.

구소련 붕괴후 발틱해 연안국 가운데 불교가 가장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곳이 에스토니아다. 이곳에 불교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30년대 초. 티베트불교 게규파에서 에스토니아인 법사를 에스토니아 불교담당으로 임명, 불교 정착을 시도할 때부터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2차 세계대전과 소련의 지배로 유명무실해져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후 1988년부터 독일과 영국의 상좌부 불교계 단체와 교류가 시작되면서, 에스토니아 불교의 서막이 올랐다.

이 서막을 올린 곳은 수도 탈린이다. 바로 이곳에서 에스토니아 불교계의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에스토니아불교회(Estonia Buddhist Society)가 태동한 것이다. 특히 불교회가 정부로부터 법적 종교단체로 인정되었던 1992년은 에스토니아 불교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불교회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불교 관련 서적 · 잡지를 번역 · 출판하고,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을 초청해 강연회와 법회를 활발히 전개했다. 불교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탈린에 연꽃이 망울 맺기 시작한 것이다.

불교회의 활동과 그 영향력은 법당 운영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율 법당'이라고 불리는 이 법당은 주중에도 늘 개방되어 있는데, 평균 70여 명의 신자들이 스스로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이곳은 불교 고유의 수행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율 법당은 서로의 관심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고 때론 강좌를 개설하는 배움의 장이다. 그래서 이 법당을 찾는 에스토니아인 가운데에는 동양의학과 무술 심지어는 풍수에 관심 있는 불자들도 많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에스토니아에서 서양불교도교우회(FWBO)가 처음 결성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불교는 탈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서양불교도교우회는 탈린 시내 중심에 법당을 마련해 놓고 주말에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한다. 이 단체는 서양에 전해진 불교를 서양인에 맞게 재해석해 불교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있어 명실공히 국제적 단체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쪽에서 전해진 불교가 서양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1993년에는 달라이 라마가 이곳을 비공식 방문했는데, 이 일은 에스토니아인들의 마음에 불심의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티베트불교에 대한 관심은, 이를 기점으로 급속도로 높아졌고, 티베트불교와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다. 티베트불교를 중심으로 한 불교에 대한 관심과 불자증가는 탈린 근교에 탑을 건립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이후 에스토니아의 불교는 명문 따르투대학 동양학과에서 티베트의 인권문제를 비롯해 티베트의 교육 · 문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티베트 문화를 연구 소개하는 비영리 학술 단체 '에스토니아-티베트문화회'가 설립되는 등 학계와 민간연구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997년 3월에 창립된 '에스토니아-티베트문화회'는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티베트학과장인 타랍 툴쿠(Tarab Tulku) 스님과 러시아 불교학자들을 초청해 티베트와 러시아 불교에 관한 강연 등을 주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임제선 계통의 참선모임도 있다. 불교회나 서양불교도교우회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체계적인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이웃 나라인 핀란드 헬싱키의 선센터를 오가며 수행을 할 정도로 조직적이고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갓바위. 소원성취

원광 달마도

◐ 전화주시면 먼저 달마도를 부쳐드립니다.



경영주사 그린달마도 입 · 합격 · 승진

부부화합, 결혼, 건강

사업성취 · 재수대통 · 수백차단

지장전 중창불사 기금조성 일원으로 달마도를 보급합니다.
선근인연공덕을 지어 성불하십시오.

지장선원 포교원 (053)982-4976

달마도 문의 011)813-3679

※ 일단 달마도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외닷지 않으면 반품하시고 마음에 드시면 입금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15-21-0517-898 이 민택

정성과 얼이 담긴

불기 상좌

승복 · 법복 보급안내

· 전통의 고증과 현대 감각을 살린 승복.
· 자가드 제직 최신 입체공법으로 원단 생산.
· 면 60수 2합 콤마샤 폴리 에스텔 결합(통풍, 촉감 우수)
· 옴, 연꽃, 만자 문양 처리로 미적 감각이 뛰어남.
· 정전기 방지(유해 잔지파 차단)



스님께 가사 불사 보시하면 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 팔난을 소멸함.

특별보급가격	
上,下	남:85,000 여:80,000
긴 조끼	남:85,000 여: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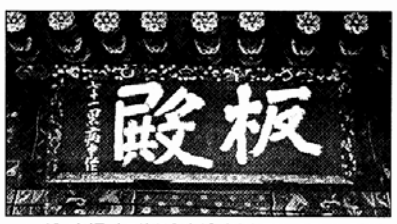
전국 대리점 모집
(가격,품질 면에서 경쟁력 있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승복 · 법복의 대명사 "수레바퀴"
제조 공급원 : 기 원 승 복
대구시 동구 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55-9889/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추 · 사 · 법 · 서 · 선 · 집 · 전7권

드디어 출간!!

秋史선생 學藝術 집대성



▶서울 강남구 수도산 봉은사 (추사선생 축기 3일전 쓴 글씨)



▶세한도

전 편
1 추사 해서첩
2 추사 서결행서
3 추사 계첩고행서
4,5 추사 예서첩 상, 하

후 편
6 추사 화집
7,8추사 서작집 상, 하(별책)
9 현사 예서 천자문

(총7권9책)

▶보급가 : ₩230,000
→ 특별보급가격 ₩200,000원

【특 징】

· 추사선생의 작품을 원로 서예가 김승호(73세)선생이 20여년 동안 자료를 수집 · 정리하여 편집하였다.
· 전편 추사해서첩, 예서첩 상, 하 등 5권 과 후편 추사화집, 서작집등 전,후편 모두 총7권과 9책으로 1,462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되어있다.
· 최초로 추사 김정희 선생의 學藝術을 집대성한 책으로써 서예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추사의 고결한 정신과 서한예서를 체계화한 선생의 혼을 이어 받을 수 있는 필독 지침서이다

※ 전화 구입 문의시 안내 소책자 발송해 드립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 615-21-0517-898 이 민 택

구입문의 : 053)982-4976/011)813-3679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1013-1(2층) 추사법서 보급원

시방세계

반야불교사
불사의 모든일 정성껏 하겠습니다.
0344)905-6368 / 011)9934-3512



◇함양 문정댐이 건설되면 지리산 실상사(사진 오른쪽) 인근 1km까지 물이 차게 된다. 인개일수의 급격한 증가로 생태계의 변화는 물론 문화재 훼손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리산을 더이상 건드리지 말라"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여론 확산



◇벽송사 서암에서 바라본 지리산 계곡. 함양 문정댐이 들어서면 서암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오르게 된다.

곳곳에 국보·보물등 문화재

백두산에서 길을 떠난 백두대간은 수천 수만의 산봉우리들을 솟구쳐올리며 남으로 남으로 내려온 끝에, 남은 힘을 모두 갈무리하여 힘차게 솟아올라 한반도 남녘땅에서 한라산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리산을 펼쳐 놓는다.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될 만큼 빼어난 경관과 함께 민족의 애환을 간직하고 있는 민족의 성산 지리산. 지리산 들어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고 편안하다. 어머니의 품처럼 후덕한 산이다. 아니 산이라기 보다는 거대한 땅덩이다. 높이가 해발 1915미터, 천왕봉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주릉의 길이가 1백여리, 둘레가 8백여리에 이르는 지리산은 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장대하다. 산맥이라 해야 어울릴성 싶다. 이렇듯 지리산은 크고도 깊어서 골골 삶살이 절경을 품고 있다. 평생 버슬길에 나서지 않고 지리산에서 학문에만 매진했던 남명 조식(1501-1572)은 지리산을 이렇게 찬탄했다.

"두류산 양단수(兩端水)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뜬 맑은 물에 산영(山影)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메뇨 나는 옌가 하노라."

지리산은 산 밖의 생명들이 지치고 힘겨울 때, 버림받고 서러울 때, 모든 이들을 말없이 보듬어 달래주는 어머니이다. 봉우리, 골골마다 문수보살의 중생제도의 서원이 서려있는 화엄도량이다. 그래서 종수지리서인 〈감결〉은 지리산을 이렇게 평했다.

"두류산에는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문다. 그래서 해다다 풍년이 들고 백성들은 온화하다. 속세를 벗어나 깊숙이 숨어 살고자 하는 이들이 이 산을 많이 찾으리라. 훌륭한 도인, 빼어난 선비들이 무수히 들어와 도(道)를 논하리니 훌륭하도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과 깨달음을 찾는 무수한 수행자들이 지리산으로 향했다.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들어와 성불한 뒤로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지금도 구도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지리산(智異山)에는 대지문수사리보살(大智文殊舍利菩薩)에서 산 이름이 기원했다는 전설에 걸맞게 신라 544년 연기조사가 창건한 화엄근본도량인 화엄사, 한국 법통의 연원인 쌍계사, 가야불교 인도 직접전래설이 전해오는 칠불암, 벽송지엄선사의 수행도량인 벽송사 등 200여개의 많은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7점의 국보와 41점의 보물, 51점의 지방문화재, 12곳의 중요사적지 등 유적과 유물이 곳곳에 산재한 불교문화의 보고이다.

지리산은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의 주릉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많은 계곡들이 흘러내린다. 해발 1500미터이상의 능선은 아고산 생태계의 전형을 보이고 있고 정상을 비롯한 고지대엔 고산 침엽수림을 비롯하여 온갖 희귀식물들이 들어차 있어, 우리나라 생물종의 30%가 서식할 정도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올벚나무·사향나무·하늘다람쥐·반달가슴곰·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세계적인 희귀동물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생물종 30% 서식

그러나 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문화와 역사의 현장인 지리산은 요즘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하게 건설된 환단도로는 생태계를 단절시켰고, 계곡마다 자리잡은 위락단지는 하류지역 하천수질 오염의 주범이 된 지 오래다. 10여년전 노고단 발치까지 닿는 성삼재 도로가 개통되면서 등산객과 관광객이 몰려들고 식수댐·골프장·케이블카 건설계획 등 무분별한 개발의 목소리가 끊일 없다. 민족의 영산(靈山)이 정부의 개발위주 정책으로 크게 훼손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리산 식수댐 건설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리산 자락인 함양과 산청에 문정댐과 덕천강댐을 각각 건설할 예정이다.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낙동강물 대신 지리산에 식수용 댐을 건설해 부산·경남권에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는 취지다.

지역주민들은 이같은 계획이 생태계는 물론 지리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불교계의 반대 움직임은 더욱 거세다. 6월29일 조계사에서 '지리산 살리기 댐 백지화추진 범불교연대' 창립식을 계기로 환경·시민단체와 연대해 댐 백지화 1백만인 서명운동, 지리산 문화재 지키기 등의 행사를 통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남강댐, 합천댐, 하동댐 등 지리산 양수댐 3기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2개의 대형 식수댐이 건설되면 지리산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 중산리 계곡과 달궁계곡 등 수려한 계곡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물론 안개 일수의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해 지리산 생태계가 크게 파괴 될 것이다.

지리산 식수댐 건설 계획은 무엇보다 지리산의 환경 파괴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낙동강을 포기하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여당이 96년 대구 위천국가공단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의 민심을 추스리고, 이를 반대하는 부산·경남권 시민들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당근'을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의혹이다. 영남지역에서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해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집권당과, 이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야당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지리산과 낙동강을 이용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된 것이 지리산 댐 계획이라는 정치논리의 산물이라는 시각이다.

생태계 회복불능상태 초래

김석봉 범영남권 낙동강유역 댐반대투쟁위 집행위원장은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함양과 산청, 진주를 지나 낙동강 하류로 흘러드는 자연스런 흐름을 단절시켜 청정한 남강상류를 오염시키고 남강중류의 수량을 감소시켜 남강하류(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최악으로 전락시킨다. 따라서 남강댐을 상수원으로 삼고 있는 100만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정부가 낙동강 중류의 집중 오염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상류지역의 청정수를 낙동강 본류까지 흘려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낙동강의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고, 지리산 댐에 집착한다면, 낙동강도 포기하고 지리산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리산댐 문제를 계기로 환경부(수질 관리), 수자원공사(수량 관리), 기초자치단체(상·하수도 관리)가 따로 맡고 있는 수자원관리를 일원화해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한정된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량확보 위주의 공급확대 정책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과거·현재·미래, 동과 서, 자연과 인간의 역사가 화합하는 통합의 장 지리산. 구산선문 최초의 사찰인 지리산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은 이렇게 호소한다.

"희망의 새 길을 열려면 대지의 상징, 생명의 상징인 지리산에게 물어보라. 지리산은 새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본래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오늘까지 왔다. 지리산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글=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산청 덕천강댐 상류 500m 지점에 완공 예정인 양수발전댐. 덕천강댐과 연계된 지리산의 2개 식수댐 건설계획이 지역주민의 삶이나 생태, 문화유적에 대한 고려나 여론수렴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추진되었음을 입증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몸 가꾸기, 마음 가꾸기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선체조동 자


비쓰는동 자


좌선동자


연꽃

제품가격
■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 4개 1세트 : 10,000원 (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옵션가격
■ 2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500원
■ 5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000원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건강 잠자리로 바꿔주세요!!
리빙스톤 "요람 침대" (맥반석,옥 물침대)
낮에 최선을 다 하셨으니 이제 편안한 잠자리로 보약을 드십시오.
좋은 잠자리는 보약입니다.
건강한 잠자리에서 희망찬 인생이 시작됩니다.

특 징
1 젖먹이 유아부터 수험생, 신혼부부, 노년층까지
2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뜨끈뜨끈하게…
3 유해전자파, 수맥파괴, 핀드기 공포에서 완전 해방
4 침대 바닥에서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5 www.kipa.org 특허기술장터 클릭 ▶검색어 (돌황토침대)

▶최고의 안락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편안함! 바로 그 침대
▶최고의 쾌적함! 바로 그 침대



상품신안 등록 (제0188136)
성포등록출원(제20-3104)
"요람침대" (기존침대에 올려 그대로 사용 보료로도 사용가능)

자애품 원적외선 BIO돌침대 (35만~45만원)
자애품 게르마늄 돌침대





氣 리빙스톤
본사·A/S : 02)424-9427, 2203-7821
◇ 전국 남여 영업직 모집

다시 푸는 경전

달마 관심론(觀心論) ⑤

今者能除貪嗔癡等三毒心
금자능제탐진치등삼독심
是則名爲度得三大阿僧祇劫
시즉명위도득삼대아승지겁
末世衆生愚癡鈍根 不解如來
말세중생우치둔근 불해여래
甚深妙義三 阿僧祇秘密之說
심심묘의삼 아승지비밀지설
遂言歷此歷劫 方得成佛
수언역차진겁 방득성불
末劫豈不疑誤修行之人
말겁기불의오수행지인
退菩提道也
퇴보리도야

지금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삼독심만 없애면 이것이 곧 삼 아승지겁을 뛰어넘는 것이 되는데, 말세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하여 부처님의 깊고 묘한 삼 아승지겁의 비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한량없는 겁을 지내야만 성불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어찌 말세에 수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알고 의심을 내게 하여 보리도(菩提道)에서 퇴보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變之皮安야 고명육바라밀

또 물었다. "보살마하살이 삼취정계(三聚淨戒)를 가지고, 또 육바라밀을 행해야 불도를 이룬다 하셨는데, 지금 수행자로 하여금 오직 마음만 관하고 계행을 닦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했다. "삼취정계란 바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니, 일독(一毒)만 제거해도 한없는 선을 이루게 된다. 취(聚)란 모았다는 뜻인데, 삼독을 제거하면 곧 세 가지 무량한 선만 있게 된다. 그 선이 모두 마음에 모이게 되므로 삼취정계라 한다. 또 육바라밀이란 곧 육근을 맑게 하는 것이니, 인도에서는 바라밀이라 하고 한문으로는 피안(彼岸)에 이른다는 뜻이다. 육근이 청정하여 세상 일에 물들지 않으면 곧 번뇌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르게 되므로 육바라밀이라 한다.

又問曰 如經所說 三聚淨戒者
우문왈 여경소설 삼취정계자
誓斷一切惡 誓修一切善
서단일체악 서수일체선
誓度一切衆生 今者唯言制三毒心
서도일체중생 금자유언제삼독심
豈不文義 有所乖也
기불문의 유소괴야
答曰 佛所說經
답왈 불소설경
是眞實語 應無謬也
시진실어 응무류야
菩薩摩訶薩 於過去因中
보살마하살 어과거인중
修菩薩行時 爲對三毒
수보살행시 위대삼독
發三誓願 持三聚淨戒
발삼서원 지삼취정계

一毒만 제거해도 한없는 선 이뤄
三毒 없애면 피안의 세계 도달

우문왈 보살마하살
由持三趣淨戒
유지삼취정계
行六波羅密方成佛道
행육바라밀방성불도
今令學者 唯持觀心
금령학자 유지관심
不修戒行 云何成佛
불수계행 운하성불
答曰 三聚淨戒者
답왈 삼취정계자
則除三毒心也
즉제삼독심야
除一毒成無量善
제일독성무량선
聚者會也 以除能三毒
취자회야 이제능삼독
卽有三無量善 普會於心
즉유삼무량선 보회어심
名三聚淨戒 六波羅密者
명삼취정계 육바라밀자
卽淨六根 胡名波羅密
즉정육근 호명바라밀
漢言達彼岸 六根清淨
한언달피안 육근청정
不染世塵 卽是出煩惱
불염세진 즉시출번뇌
便至彼岸也 故名六波羅密

또 물었다. "경전에는 '삼취정계란 모든 악 끊기를 서원하고, 온갖 선 닦기를 서원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서원하는 것이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직 삼독심만 제거하라 하시니 이는 경문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은 진실한 말씀이라 거짓됨이 없다. 보살마하살이 과거세상에서 인행(因行: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함)의 지위에서 보살행을 닦을 때, 삼독을 없애기 위해 세 가지 서원을 세워 삼취정계를 지켰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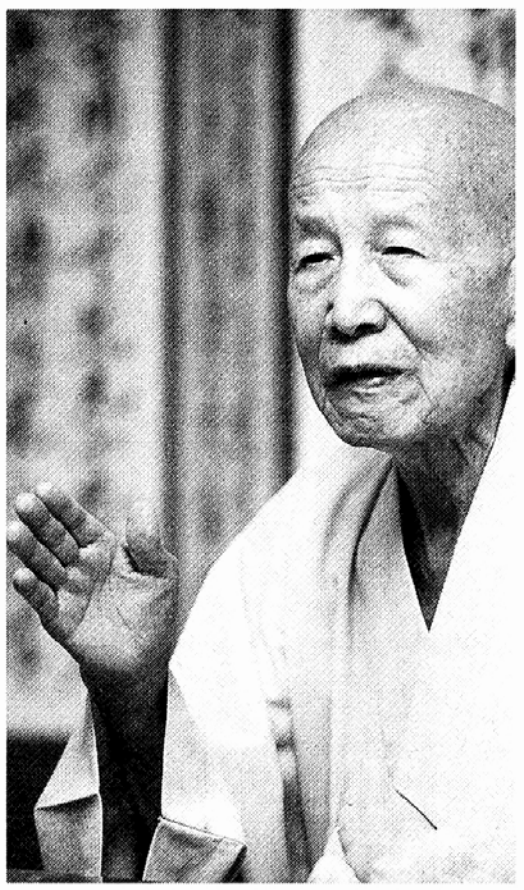
서옹스님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극한대립과 갈등을 빚어왔던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어오신 서옹스님을 찾아 최근의 남북화해, 인간유전자 지도 초안의 완성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달, 참사람운동의 깊은 뜻을 들었다. 서옹스님은 남북이 화해의 시대를 열었지만 통일의 날까지는 여러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내가 변해야 비로소 세상이 변하듯, 남과 북이 동반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년 7월 서울 역삼동에 참사람운동본부 개원을 앞두고 노구에도 불구하고 '참사람'을 역설하고 계신 스님은 "스스로 참사람임을 믿고, 참사람의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참되고 행복한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하는 법"



· 1912년 충남 논산 生
· 32년 장성 백양사 만암대종사 문하에서 득도
· 41년 일본 경도 임제대 졸업
· 스리랑카 국립 푸리베
니아대학 명예철학박사
· 64년 동국대 선학원장
· 65~74년 도봉산 무문관,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조실 역임
· 74~79년 조계종 5대 종정
· 현재 장성 백양사에 주석
· 저서에 〈서옹대종사 법어집〉 〈절대현재의 참사람〉 〈임제록 연의〉 〈선과 현대문명〉 등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림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지배해왔던 남과 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기운이 움트고 있습니다. 6.25전쟁 발발 50주년이었던 날에는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7대 종교 지도자들과 신도,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기념식을 갖고 "지난 역사를 떨쳐버리고 평화의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유일 분단국에서 세계평화의 메신저로 도약하자"며 북한어린이와 전쟁으로 고통을 겪는 어린이를 돕는 일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스님께서도 분단 55년만에 남북의 정상이 손을 맞잡는 감격스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주 큰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6.25는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었고, 세계의 스무 나라 이상이 참전한 큰 전쟁이었습니다. 6.25는 투쟁철학에 의해 발발한 1차대전과 2차대전 등 세계적 규모의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화해는 세계의 화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고,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한반도는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고, 한반도의 기운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묘향산에 갈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산스님이 금하기를, 지리산은 웅장하되 오묘함이 없다 했고, 금강산은 오묘하되 웅장함이 없으나, 묘향산은 웅장하고 오묘하다고 했습니다. 묘향산엔 보현사가 있지요. 내 나이 90이어서 장담은 못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정치적인 국토의 통합을 이뤄낸 지 10년이 됐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통합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리라 봅니다.

▲사랑에 겨워 결혼한 부부도 다툼이 있고, 혈육으로 이어진 부모, 형제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먼저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남북의 사람들은 55년 동안 서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서로 적이라 이름지어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뜻이 통하지는 않겠지요. 같은 민족으로, 동반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변하게 됩니다. 이 뜻을 지니고 통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너와 나, 이것과 저것, 사랑과 미움을 모두 초월한 절대적인 평등애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아끼기를 마치 어버이가 그 외아들을 생각하는 듯이 하는 경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사랑의 개념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이론이나 친소 관계를 초월하고 모든 이웃과 국가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절대평등인 본연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연(無緣)의 자비라는 말이 바로 불교에서 지향하는 자비세계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고집, 나만이 제일이라는 집착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존중하고 서로 돕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웃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자기 본위의 생각을 용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혹, 나는 자비심을 베푸는데, 상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자비심이 아니지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통일이 백번 낫겠지요.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이 자비의 실천이라고 한다면, 불자들에게 더없는 수행의 노정이겠지요.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통일을 만들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도 없다는 점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최근 인간유전자 정보를 해독해 유전자지도 초안을 완성했다고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암 등 난치병 치료와 예방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리라는 평가와 함께 '주문형 인간'의 등장으로 인간성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인간생활에 기여하는 것보다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선 과학만능주의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의 풍요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학의 공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탁기와 텔레비전과 휴대전화기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과학기술로 발명한 상품들이 인간을 더욱 여유롭게 하고 조화롭게 했나요? 그런 것이 없던 때보다 더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있나요. 나무와 풀과 물과 공기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있나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의 어느 농촌 마을에서는 지하수를 먹고 한 동네에서 여러 명이 암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자 매일 오존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서울 뿐이 아니예요. 오전을 막아주는 공기층이 파괴돼 피부암에 걸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을 버리고 100년 전, 200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가 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답도 아닙니다. 과학문명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원리를 문제삼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과학문명 자체는 선(善)한 것도 아니고, 악(惡)한 것도 아닙니다. 과학문명의 원리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명은 서양의 데카르트, 헤겔, 마르크스, 니체를 관통하는 이원론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너와 나, 인간과 자연을 구분짓고, 서로

생식은 사람의 체질을 건강하게 도와주며 몸의 균형과 다이어트식 자연 식사법입니다! 건강한 생식 다이어트 생식

희소식 아침식사 준비 끝!
아직도 주부님께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식사를 준비하십니까?
인스턴트가 아닌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장수마을 생식은 화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6배, 먹기좋고 맛있는 아침식사가 되실겁니다.

21세기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사혁명이 필요하며 그 방법론적인 대안으로서 생식을 제시한다.

다이어트와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분께!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요
스트레스 없는 다이어트를 하세요
꼭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주세요


식품공학박사 유 태 종
·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역임
· 독일 미인츠대학 교환교수 역임
· 식생활개선 국민운동본부 부회장
·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역임
· 공업 진흥청 KS위원
학 建陽大學校 敎授
학 食文化硏究院 院長

생식이란? 인간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 또는 왕성한 활동력은 생명력에서 얻어지는데 생명력을 얻으려면 생명력이 있는 식물을 먹어야 한다. 생식이 중요한 이유를 예를 들어 한가지만 지적해 보면, 우리의 몸에도 있으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로도 사용하기 위함이다.
생식은 옛날부터 도인, 성승(聖僧)등이 즐겨하던 식사방법으로 전해오고 있으며 장수마을로 알려진 곳에서는 대부분 생식을 생활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훈자와 같은 장수국에서는 현재까지도 생과일과 과일씨앗을 즐겨 먹고 있으며 씨를 맺는 식물을 생식할 경우 장수하는것을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리산 청학동과 같은 장수마을도 생곡물, 생야채 등으로 주식을 삼는것을 볼 수 있다.

건강을 꿈꾸세요~ 아침엔 생식이 있으니깐요!
건강한 아침 장수마을 생식으로 살아있는 기(氣)를 그대로- 활기찬 건강!

장수마을 생식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윤택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제품은 순수 국내산 곡물이며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남여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는 안전하고, 정확한 제품입니다.

건강한 식생활의 요령
▶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 동물성고기와 지방, 소금은 가급적 줄인다.
▶ 저장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되도록 피한다.
▶ 검게 탄 음식은 먹지 안는다.
▶ 영양을 균형있게 맞추어 식생활을 한다.

언론보도
◆생식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 일간스포츠 '95년 11월 7일
◆생곡류를 이용한 다이어트방식이 세계적으로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주목! ——→ 중앙일보 '97년 5월 10일
◆사람을 생명~ 생식의 모든것 ——→ 월간한방과 건강 '97년 9월호
◆나의 생식이 다이어트 성공... ——→ 라벨르 '99년 1월호
◆21세기 생식 다이어트법 ——→ 여성중앙 '99년 1월호
◆생식을 했더니 미용에... ——→ Queen '96년 1월호

장수마을 자연생식은!
현미, 보리, 알파미분, 알파현미, 미강, 율무, 율무, 수수, 차조, 검은콩, 흰콩, 참깨, 검정깨, 볶은팥, 케일, 고구마, 양배추, 다시마, 당근, 사과, 포도, 쑥, 솔잎, 표고버섯, 김, 유산균, 맥주효소, 올리고당, 죽염, 화분등 30여종의 자연식품

생식 다이어트에 건강이 보인다.
• 살을 빼기위해 굶어야 하는 고통이 없다.
• 몸속을 깨끗이 비워주는데 도와준다.
• 먹고 싶은 욕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 생식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있다.
• 체질개선에 생식이 좋다.
• 먹기 편안하고 휴대가 간편하다.

장수마을 생식의 특징
• 생식은 화식보다 인체내의 에너지 효율이 6배나 높아 소식(少食)으로도 왕성한 생활이 가능하다.
• 생식인은 1일 필요 칼로리의 1/3만 섭취해도 활기차고 맑은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다.
• 과식으로 인한 비만의 걱정이 없고 안전하다.
• 식이요법이 필요하신분에게 좋다.
• 먹기도 좋고 맛도좋아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 아침식사를 못하는 바쁜 직장인의 건강한 먹거리.

최근 생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식(火食)보다는 살아있는 음식을 찾는 생식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 나오는 약식이동원이라는 말처럼 음식은 바로 질병의을 치료하는 약의 개념이며 대체의학의 하나인 식이요법은 이에 근거한 개선방법입니다. 생식을 통한 체질개선은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릴것입니다.

현대인의 만성피로회복
· 각종 통증 및 질병의 원인이 되는 만성 피로를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하여 해소해 줍니다.
·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 비타민A,B,C,D,철분,칼륨,칼슘,망간,마그네슘,구연산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유태종 장수마을 생식 출시기념 특별홍보가

1개월분
▶30g × 30포
▶출시기념 특별홍보가(사은가)
☞ ₩80,000원(일시불)
▶분납가 : ₩29,600 × 3개월 (89,000원)

2개월분
▶30g × 60포+10포
▶출시기념 특별홍보가(사은가)
☞ ₩159,000원(일시불)
▶분납가 : ₩35,600 × 5개월 (178,000원)

특별보너스 2개월분을 주문시 10일분(10포)을 무료로 더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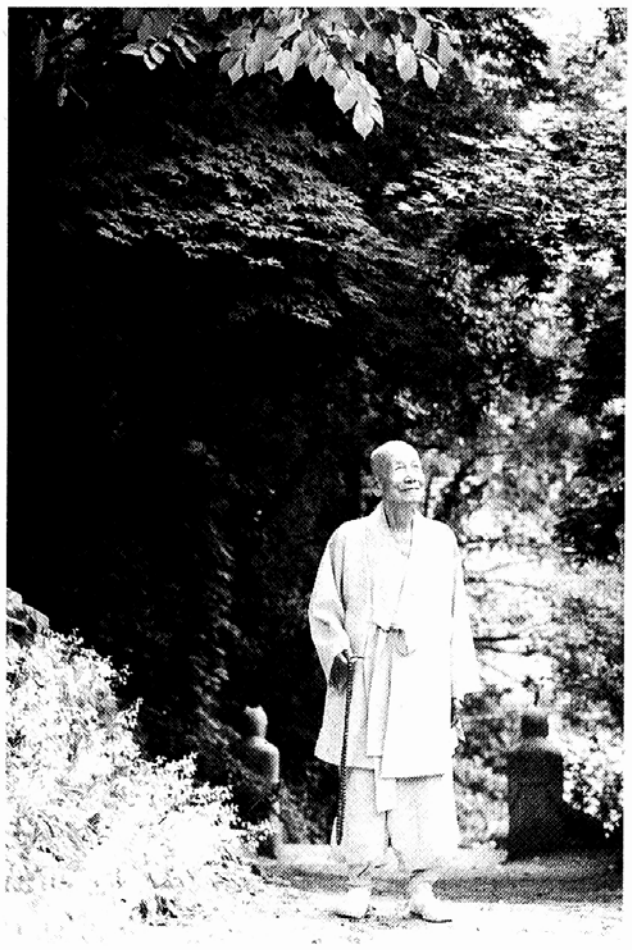
상담 및 주문처 : 080-565-8989 〈상담전화는 전국 무료 전화〉
♥ 24시간 연중무휴 ♥ 지금 상담하세요. ♥

찬스! 단! 특별 보급가로 할인해 드리는 것은 홍보기간에만 한하며, 드셔보시고 효과에 만족하시면 주변에 선전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 참나-참사람은
> 나와 남의 대립
> 시공의 일체를
> 초월합니다

平和世界

서옹스님 은 선서(禪書)를 "인간의 본성이 작용해서 형성한 문자" "영원생명이 무애자재하게 약동하는 동양의 독특한 미술"이라고 평했다.



◇서옹스님은 세수 89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자들을 제접한다. 내년 7월 개원하는 참사람운동본부 도량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상도동 백운암에 들렀다.

"불교와 과학의 조화 인류 구제"

"자비, 절대평등인 본연의 사랑"

가 대립 속에서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이지요. 헤겔은 중세의 신본주의를 넘어서 이성을 주장했지만, 변증법적 역사관, 즉 '대립을 투쟁으로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역사'라며 투쟁의 역사를 주장했습니다. 헤겔 철학을 이어받은 마르크스 역시 투쟁하는 주체를 국가에서 계급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니체는 서양의 전통적인 이성철학에 반발하여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권력의지'라고 말했습니다. 모두 전쟁과 투쟁을 절대적으로 긍정한 철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을 지배하는 철학은 투쟁철학인 것입니다. 이런 바탕 위의 과학기술은 자칫 파괴로 나아갑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극한 대립이 상존하고 있는 세상에서 착한 의도를 갖는 연구일지라도 쓰임새는 정반대의 경우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ㅡ스님께서 말씀하신 투쟁의 철학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투쟁철학의 본거지인 서구에서 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당연한 귀결처럼 생각됩니다. 과학의 발달이 곧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자각일 텐데요. 그래도 과학은 도달점도 없이 멈추지 않고 내달리고 있습니다. 선한 과학이 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앞에서 스님께서 과학을 이끄는 원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학문명이 인류에게 공헌한 바는 실로 지대합니다. 과학의 덕택으로 달을 탐사하였으며, 우주를 탐구하여 인간의 시야를 확대시켰습니다. 6억년 전의 세균화석을 다시 생명체로 재현하는 놀라운 기술의 진보를 이룩했습니다. 이처럼 과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으며, 모순된 사고체계를 규명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는 과학문명을 뒷받침해서 올바른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윤리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양의 다른 종교에 비해 현대의 과학과 조화를 이루며 인류를 구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인간관과 우주관에서는 전체가 한 생명체로서 평등하며 유일체라고 봅니다. 이 근본 생명체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이어서 근원적인 주체성을 띤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생명관에서 저절로 자비심이 나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대자연과도 조화롭게 이 세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개인·집단·국가 등 저마다의 이기주의로 과학문명을 발전시키고 역사를 만들어온 오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과학문명의 병폐는 정치의 힘, 과학의 힘으로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불법의 힘으로 교화하고 각성해서 참나·참사람의 바탕으로 과학문명을 다시 창조함으로써 평화스럽고 행복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서구사회에 유행하듯 확산되고 있는 선(禪)은 단순한 동양문화의 유출이 아닙니다. 동양의 정신문화를 희구할 수밖에 없는 서양문명의 근본적인 결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입니다. 그것은 20세기 초에 서양문물과 서양사상을 무분별하게 수용하였던 동양의 저개발 경제후진국의 예와는 다른 차원의 문화수용 현상입니다. 과학문명의 원리가 인간진리를 외면한 채 너무 외형적으로만 비대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는 인간의 내면세계가 공동(空洞)현상을 초래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구 사람들에게 동양의 선은 새로운 지남(指南)이 되는 것이지요.

ㅡ스님께서는 선의 궁극은 참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사람운동을 펼치고 계신데, 스님께서 쓰신 '참사람 결사문'에서 현대 과학문명의 폐해를 지적하시고는 "인간의 참모습은 본래로 참사람이니, 모든 인간이 자비로 행위할 때 이 지구는 종횡무진하게 자비의 망(網)으로 포용된 세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실천의 문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 '1%만이 불교이고, 사욕이 99%'라는 가혹한 비판도 있습니다.

▲내가 두어 달 전부터 백양사 천진암에서 벽암록을 강의하고 있어요. 닷새에 한차례씩 하는데 100칙 가운데 60칙을 하고 있어요. 40여경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블 필요는 없어요.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는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굴레를 벗고 팔다리를 쭉 펴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의 선은 대단히 역동적입니다. 한국의 선은 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들어 두껍게 덮인 무명(無明)과 욕망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분별(分別)과 아집(我執)을 타파하여 '참나(眞人)'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길입니다. '참나' 즉 참사람은 나와 남의 대립, 시간과 공간의 일체를 초월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이 한몸이요,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대 평등하고 대자대비하며 또한 자유자재합니다. 참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며 동시에 부단하게 자기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참사람임을 믿고, 참사람의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참되고 행복한 세계를 건설해야 합니다. 참사람에 이르는 길에 무슨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지레 멈칫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자들이라면 이미 익히 들어온 가르침입니다. 확철대오해서 참사람에게도 걸리지 않아 호호탕탕(浩浩蕩蕩) 자유자재하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참사람의 서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서옹스님께서는 '현대불교' 독자들에게 참사람주의로 살라는 당부의 마음을 담아, 최근 살림살이의 한 자락을 펼쳐 보이셨다.

隱顯自在絶蹤跡
無位眞人不可尋
烏飛兎走豈有窮
洛花又見隋流水

숨고 나타남이 자유자재해서 자취 끊었으니
무위진인의 자취를 가히 찾을 수 없네
까마귀 날고 토끼가 달리니 어찌 다함이 있으리요
물 따라 흐르는 떨어진 꽃을 보도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정화스님 ②

그는 공원 앞에서 엿장수를 한 경험이 있다. 엿장수 이야기는 선대의 노스님이 출가하시기 전에 몇 해 한 일, 또 만행 삼아 엿장수를 심심치 않게 한 다른 스님의 일화 등이 있다. 나도 엿장수라면 빠질 수가 없는데..... 하하하, 엿장수 가풍이라 할 수가 없는가 보다.

지금은 등에 지고 다니는 엿장수가 없다. 짤랑짤랑 하늘을 향해 몇 차례 큰소리 내는 가위질이라야 제격이다. 손수레에 끌고 다니는 엿장수도 드물다. 포터 짐차나 소형차를 엿장수로 쓰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

고물상을 겸한 엿 집, 그게 이삼 십 년 전까지 엿장수들의 풍속도이다. 함께 잠도 잔다. 엿을 고는 새벽에는 신참들이 나무 불을 지핀다. 침을 손에 발라서 엿을 늘인다는 이야기는 엿을 늘이는 방에 들어가 보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엿을 늘일 때에는 벽에 달린 지게작대기 같은 나무에 엿을 휘감는다. 몇 차례고 늘이기를 계속하면 노란 엿이 흰 엿이 된다. 삼각으로 엿을 모으기 때문에 그 틈에 공기 구멍이 생긴다.

맨발의 자유인 답게
처음먹은 마음 끝까지

엿장수를 하는 이는 방랑기질이 좀 있다. 늙은 엿장수들의 한(恨) 섞인 이야기 속에 그런 말이 들어있다.

"자네들, 젊어서 착실하게 잘 살게. 늙어지면 나처럼 외로와. 엿장수는 천생 역마로 사주팔자가 나왔어. 허허허"

정화 스님이 왜 엿장수를 했는지 모르나, 공원 입구에서 작업복 차림으로 엿장수를 하다가 학창 시절 은사를 만나게 되었다.

"아니? 지난번 들자니 입산 출가를 했다더니만..... 이제 엿장수를 시작했어?"

"예."

정화당은 이때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넘겼다.

한 스님은 지금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일을 한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하심(下心)하고 인욕(忍辱)하는 걸 익히기 위해서다. 택시 기사로도 있다. 아마 보살의 가지가지 모습인 것 같다. 정화당은 한군데 오래 머무는 법 없이 이곳저곳 옮아 다니지만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산다.

사경(寫經)을 통해서 유식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강원에서 신심이 나서 사경을 하다보니 알고싶은 게 생겼다. 유식은 원효기신론 소(元曉起信論疎)를 사경하다가 빠져들었다. 10년 동안 구사론 유식론을 한다는 정설을 깨고 독학으로 구사 유식의 산맥을 파헤쳤다. 그리고는 금강 광맥을 찾았다. 지금 유식을 강의할만한 스님은 많지 않지만 정화당은 확신이 선 목소리로 강의한다. 막힘이 없이 어느 부분이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발심(發心)해서 도를 성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난다.

그의 학교 선후배로 스님 된 이가 몇 사람이 된다. 물론 정하지 않았어도 좋은 전통으로 내려온 셈이다. 한 선배는 졸업식 무렵 학교를 찾아간다. 교실에 들어가서 모이라고 해놓고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은 진로를 말해주겠소. 출가 입산들을 하시오. 세상에 할 일은 이 일 뿐이오."

그렇게 권하기도 한다. 후배들과 묻고 대답 하면서 출가를 권유하는 데 생각이 있는 이는 뒷날 선배의 뒤를 따른다.

맨발의 청춘! 영화의 제목만이 아니다. 정화 스님은 맨발의 청춘으로 산다. 양말 신기를 거부한다. 그의 거친 발은 맨발의 청춘 탓이다. 양말을 신지 않으면 좋은 점이 많다. 무좀예방이 된다. 양말을 빨지 않아서 비누를 쓸 필요가 없다. 땅을 딛는 감촉이 좋다. 양말을 부지런히 신는 스님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정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모르나 부지런히들 신는다. 중국, 대만의 경우, 비구니들도 겨울에 양말을 잘 신지 않는다. 더운 인도 태국 스리랑카 등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도 우리만큼 양말을 잘 신지 않는다. 우리는 획일성 그대로다. 양말을 신지 않는 이는 인사받기 바쁘다.



그림 · 문병성

"아니, 양말을 왜 안 신지요?"

나도 요즘은 그런 인사가 싫어서 신고 지낸다. 한때는 맨발의 청춘 한 회원(?)이었다. 툭 튀는 게 싫어서 여름에도 양말을 신는다. 무좀이 있어도 신고 지낸다.

정화 스님은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양말을 신지 않는 배짱이 좋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 초지일관 밀고 나간다. 뜻이 굳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는 주지나 상좌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지요."

하고 싫지 않은 표현을 하나 하룻밤을 자고 나면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잘 도망치는 게 특기라면 특기다. 욕심이 없는 정화 스님에게 그런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송충이가 솔잎을 떠나서 살 수가 없듯이 자유를 떠나서 정화 스님이 어찌 하루인들 지낼 것인가. 〈끝〉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쭝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숨쉰식(2개월 50만원), 숨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액수영전고(2개월 100만원), 치신영기환(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오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이사장 비서실) ☎ (052) 254-2600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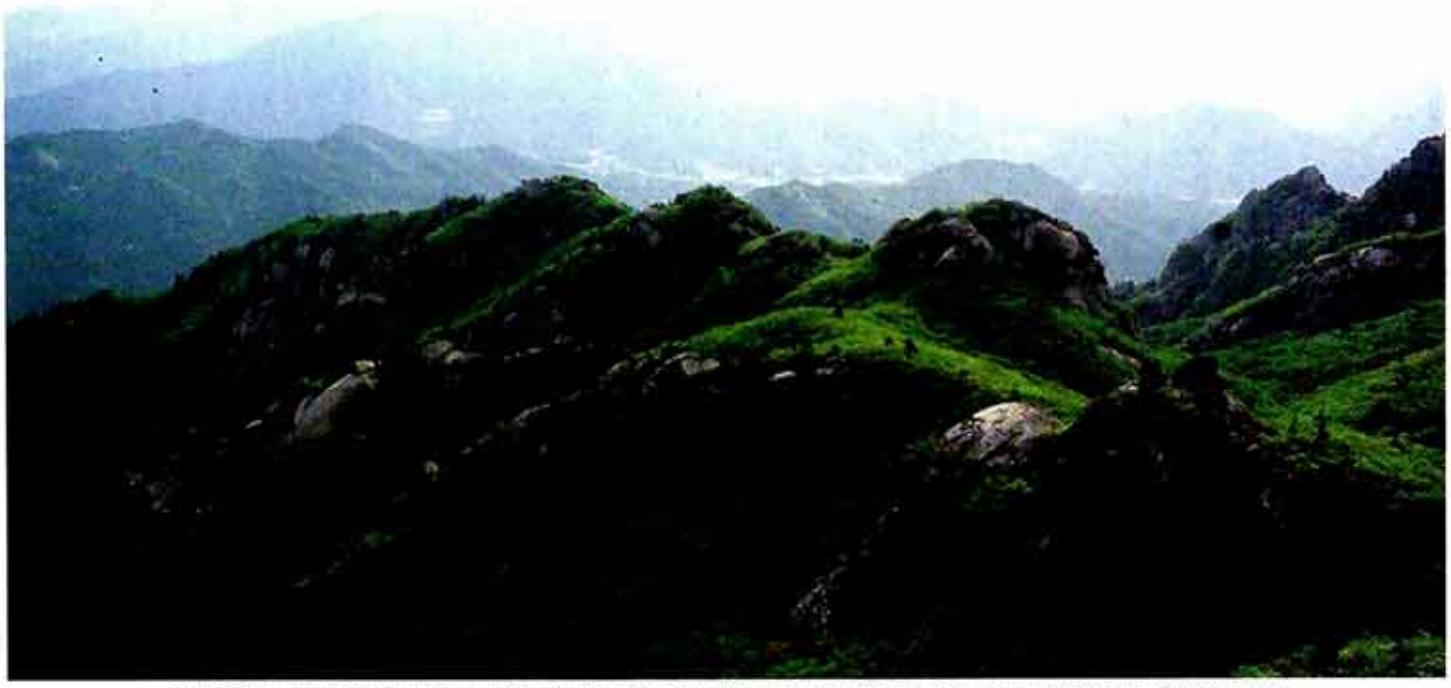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세사미놀」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품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불치병(병명을 못찾는 분), 기관지 천식, 위장병, 정신 질환, 간질, 중출, 고혈압, 당뇨 치료문의
무료진맥 · 완치!!

佛法 머무는 山…자락마다 역사 향기 간직



◇문장대에서 바라본 속리산의 봉우리들. 바위로 이루어진 정상부와는 달리, 긴 능선이 펼쳐놓은 동서쪽의 기슭은 깊은 계곡들을 간직하고 있다.



◇임경업 장군이 독보 대사에게서 7년 동안 무술을 닦은 후 일으켜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입석대.

백두대간 속으로 〈17〉 속리산 (2)

여덟 봉우리·여덟 대 갖춘 '小금강산'

상환암-세종 입석대-임경업 전설

사람(人)이 산(山)에 들면 신선(仙)이 되고, 사람이 골짜기(谷)로 들면 비로소 그곳은 속계(俗) 즉 사람 세상이 된다고 한다. 이렇듯 산은 누구에게든 신선의 경지를 허락할 뿐 아니라, 쉼없이 골짜기를 만들며 생명의 젖줄과 같은 물줄기를 이룸으로써 뭇사람들을 거두어 낸다. 골짜기를 이르는 한자인 '골 곡(谷)'의 자해(字解) 가운데 '기르다'는 새김이 있는 것도 산에 기댄 사람 살이의 오랜 연원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산과 계곡, 이 둘의 관계는 손등과 손바닥이다. 그렇다면 골짝을 흘러 내리는 물줄기는 필시 두 산의 손뼉춤일 터, 사람들은 그 신명에 장단을 맞추며 목숨을 이어가는 것이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경구는, 산에 올라 산을 볼 때도 유효한 말이다. 하나의 봉우리가 아니라 산줄기와 골짜기 모두를 봐야만, 산과 물의 관계 그리고 우리네 삶의 뿌리로서의 산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육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그때 바라본 산은 분명 어머니의 젖가슴이요, 골짜기는 유선(乳腺) 즉 젖샘이다.

코 방아를 찧을 듯이 가파른 비탈을 올라 천황봉(1,058m)에 오른다. 사방으로 탁 트인 시야가 오히려 눈 둘 곳을 잃게 한다. 천황봉에서 문장대에 이르는 기기묘묘한 암릉은 물론이거니와, 초록 비단을 펼쳐놓은 듯한 동서쪽 기슭의 유장한 흐름을 두루 살피게 하는 품새를 지닌 산이 바로 속리산인 것이다.

최고봉인 천황봉에서부터 비로봉·길상봉·문수봉·보현봉·관음봉·묘봉·수정봉 등 8개의 봉우리와, 문장대·입석대·경업대·배석대·학소대·신선대·봉황대·산호대 등 8개의 대(臺)로 유명한 속리산은, 예로부터 소금강산이라고도 불릴 만큼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다. 〈문헌비고〉에서는 이 산에 대해 "산세가 웅대하며 기묘한 석봉(石峯)들이 구름 위로 솟아 마치 옥부용(玉芙蓉)처럼 보이므로 속칭 소금강산이라 하게 되었다"고 적었고, 이중환도 〈택리지〉에서 "돌의 형세가 높고 크며, 겹쳐진 봉우리의 뾰족한 돌 끝이 다보록하게 모여서 처음 피는 연꽃 같고, 또 횃불을 멀리 벌여 세운 것 같기도 하다. 산 밑은 모두 돌로 된 골이 깊게 감싸고 돌아서, 여덟 구비 아홉 돌림이라는 이름이 있다. 산이 이미 빼어난 돌이고, 샘물이 돌에서 나오는 까닭에 물맛이 맑고 차갑다. 빛깔 또한 아청빛이어서 사랑스러운데, 충주 달천의 상류이다"며 사실적이면서도 다름다운 수사로 속리산을 그리고 있다.

또한 천황봉은 한강, 금강, 낙동강의 젖샘 구실을 하는데, 동쪽으로 흘러내린 물은 낙동강을 살찌우고, 서쪽 법주사를 거쳐 달래강에 이루어 흐르면 물줄기는 충주의 탄금대 아래서 남한강과 몸을 합친다. 그리고 남쪽 골짝을 흘러내려 보은 땅을 적시는 물줄기는 금강의 대청호에 몸을 누인다. 예로부터 이러한 세 물줄기를 삼파수(三派水)라 하여 충주 달천과 오대산의 우통수와 함께 조선의 명수(名水)로 기림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백두대간 위의 천황봉은 좀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봉우리에서부터 '한남금북정맥'이 솟가하여 일가를 이루기 시작하니, 세조가 말을 타고 넘었다는 말티고개를 지나 선도산과 보현산을 거쳐 안성의 칠현산에 이르는 산줄기가 바로 그것이다. 칠현산에서는 다시 두 갈래로 정맥이 나누어지는데, 북서쪽으로 '한남정맥'이 수원 일대를 왼쪽 옆구리로 끼고 인천 문수산에서 발길을 멈춘다. 그리고 남서쪽을 향하는 나머지 한 갈래 '금북정맥'은, 오른쪽으로 천안, 홍성을 끼고돌며 태안 반도의 안흥진까지 내쳐 달려 나간다. 이렇듯 천황봉은 세 개의 정맥을 거느린 봉우리이기도 하다.

천하의 명산이라 해도 명찰을 품고 있지 않으면 왠지 왜소한 느낌이 든다. 특히 속리산과 같이 그 이름으로 이미 세속의 경계를 뛰어넘은 산이고 보면 명찰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렇다, 법주사가 바로 그런 절이다. 명산과 짝하지 않은 큰 절집이 어디 있을까만, '속리산 법주사'야말로 처음부터 한 꺼번에 생겨난 말인 양 잘도 어울린다. '불법(佛法)이 머무른(住) 곳'이라는 뜻을 머금고 있는 절, 법주사, 그 이름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신라 진흥왕 14년(553), 의신 스님이 멀리 천축국(인도)에서 공부를 마친 뒤 흰 노새에 불경을 싣고 돌아와 머물만한 절을 찾아 헤매다가 속리산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갑자기 노새가 울부짖자 의신 스님은 문득 느끼는 바가 있어 노새의 잔등에서 경전을 내리고 절을 세웠다. 이로써 경전,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물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고 보니, 서쪽으로는 충청북도 보은군과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상주시에 걸쳐있으면서도 속리산은 뭇사람들에게 보은의 산으로 각인되었다. 법주사가 보은에 있음으로써 비롯된 일임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다.

이 밖에도 속리산은 그 넓고도 깊은 자락마다에 무수한 역사의 흔적과 절경을 간직하고 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연 이성계가 혁명을 꿈꾸며 백일 기도를 올린 산도 이 곳이고, 그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즉 태종이 왕권을 쟁취하기 위해 형제를 돌싹이나 도륙한 죄씻음을 하고 안심(安心)을 얻은 뒤, 그것을 기리기 위해 본래 보령이던 고을 이름마저 보은으로 고쳤다는 얘기도 이 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폭군 세조가 몸쓸병을 고치고 문장대에 올라 신하들과 삼강오륜을 강론했다는 얘기도 속리산 언저리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인조 때의 명장 임경업이 독보 대사를 스승삼아 7년 동안 무술을 연마했다는 전설도, 그가 일으켜세웠다고 해서 '입석대'라는 이름을 얻은 바위에 깃들어,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자연에 깃 역사의 이끼를 살피게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세조의 가마가 지나가자 가지를 들어올려 길을 열어주었다는 '정이품송', 세종이 7일간 머물며 법회를 열고는 '크게 기쁜' 자신의 심회를 이름에 담았다는 '상환암(上歡庵)', 세조가 목욕을 했다는 온폭(溫瀑)과 그때마다 그 위에서 학이 노닐며 세조의 머리에 똥을 떨어뜨렸다는 학소대 등 속리산 곳곳에는 그 이름과 정반대로 가장 세속적인 얘기가 질게 베어 있기도 하다. 성과 속이 결코 둘 아님을 풍문으로나마 듣긴 했으되, 하찮은 세속적 욕망의 지게기를 한보따리씩 안고 와서는, 이 산에서라면 행여 내려놓을 수 있을까 싶어 안간힘을 쓴 인간의 얄팍한 속내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다.

문장대 앞에 선다. 이곳에서부터 백두대간은 속리산을 벗어나게 되지만 — 참으로 아쉬운 순간이지만 — 나는 그저 문장대를, 바라보기만 한다. 문장대보다 키를 올린 통신 중계탑의 높이가 분수를 모르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배은망덕을 보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차마 문장대에는 오를 수 없었다.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선암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 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1300년을 이어온 청정 도량 '선암사에서
3박4일간의 출가수련으로 고요하고 맑은
처음 그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 바다에 한송이 연꽃피우소서

선암사 일반인 수련회 일정		
기 간	연 령	인 원
1차 7/15 ~ 7/18	20~60	80명
2차 8/5 ~ 8/8	20~60	80명
3차 8/12 ~ 8/15	20~60	80명

숲속 어린이 수련학교 일정		
기 간	연 령	인 원
7/22 ~ 7/24	9~13	100명

▶장 소 : 선암사 관음전
▶참가자격 : 불교신자, 무종교자
▶수련회비 : 일반4만원, 어린이 1만 5천원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운동화 지참
▶도착시간 : 오후 2시까지
▶접 수 : 3일전 접수 마감 (전화접수가능)
▶전화접수 : 051)803-7573, 803-7522
▶선 암 사 : 부산은행 : 054-12-084085-0
포 교 부 국민은행 : 116-01-0396-848(선암사)
▶주 소 :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3동 628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 암 사
주지 원 타 합장

천 황 사 약 초 선 식

(약초농장 직접 재배함) 발명특허 13629호

1999. 8 7. MBC고향은지금(방영) ▶백인스님





깊은산속에서 채취한 100종류의 약초와 천상부 9종9포 오관 법제기간을 거쳐 10년에 천상약초선식을 1999. 8 7일 MBC방송 고향은 지금에 방영된바있습니다.
대단히 인기 히트작이여서 불제자님 전화문의가 빗발쳤습니다. 20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천 여년의 秘家선식 (원효대사약초 비법)으로 환 및 가루선식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오장육부, 일체질환, 체질개선, 간염, 간경화, 간암 놀라운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사례◆
1. 속이 쓰리고 아프며 더부룩하며 장의청소, 변비
2. 비만, 다이어트 최고 (생리불순, 냉대하)
3. 얼굴이 예뻐져가는 약초(백지화초) 기미, 죽은해
4.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하신분 천견
5. 각종암 기관지 천식, 우울증, 정서불안

◆ 허가번호 부수영위 45-1◆
▶ 약초선식(100가지) 십팔만원
▶프로로얄원(로얄제리+프로폴리스) 십구만원
▶장뇌산삼 (1999. 8 7.MBC 방송 고향은 지금)
·신비의 영약 직접재배함 ·불로장생 이십오만원
▶당뇨선식
·갈증해소, 합병증 예방 ·탁월한 효과 십구만원

우체국 601039-02-026092 예금주 정광채
♣주문신청 : 051)723-1333 / 011)852-3357
주 소 : 부산시 기장군 시랑리 13-1 (천황사 약초농장)

불자의 기본수행법 수련

와서 보라! 그리고 직접 체험 실천하라!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출세봉, 반야봉, 희안봉 길상지에 재가불자의 수행 총람을 발원하며 매주 철야 정진시에만 실시하던 교육을 무시로 매일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내용 :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한글금강경독경, 참선의 기초, 석가모니불 염불(7), 와선호흡법(2), 행선, 도인체조건강법을 쉽고 재미있고 완벽하게 실천위주로 체계적으로 교육함
◆일 정 : 3명이상 예약시 언제나
◆평상수행 : 아침5~8시 저녁8시~10시 30분 예불수행시간에 동참하시면 절, 염불, 독경, 참선 비전의 테크닉으로 수행을 올곧게 잘하는 수행자를 보실수 있습니다.
◆매주토요일 철야정진 : 저녁8시 ~ 일요일 아침8시
◆보름 달빛 오로라 명상수련 : 저녁 7시 ~ 11시
◆특별기도 : 소원성취, 업장소멸, 대학입시, 사법고시, 병고액난, 독방토굴에서(3일,7,10,15,30,50,100) 용맹정진
◆출가 예정자 수행체험 특별교육 : 100일 개인지도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은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숫자는 자동으로 헤아려지고 단전호흡이 저절로 되는 완벽한 수행으로 숨이차 헐떡거리고 염주들고 시끄럽게 접그럭 거리며 정신없이 제각각인 방법과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비전의 테크닉으로 만병은 예방하고 치유하는 건강법으로 와선호흡법(2)과 함께 미국과 일본에 지적특허를 출원중임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1)771-7745
Fax (031)771-6736

남여 정토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 자경의 해설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건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시달림법(망출 위패 작성 독경 염불) 반혼1재~6재 천도 할인 화장 매장
·49재(시왕 대령 관욕 지장청 시식 봉송 소대)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목탁석 종성 예불기도 축원법 화선법(간화선 묵조선 선학역사)
·불공 기도 축원법(삼보통청 관음지장신중 산신 칠성 독성 발원)
·목탁 요령 죽비 정종 사용법 신중작법 구병시식 관음시식 상요영반
·화엄시식 종사 영반 점안식 상재물이 화혼식 원에 따라 수계식 봉행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공자 발취 강의 납골 재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 매월 1일 11일 21일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방정토극락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회참가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술, 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월 회 비 : 백미한가마(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안되고 되는 모든 것 자신이 쥐고 있어

각 지원과 본원의 앞날에 기둥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주천지를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주천지라 하니까 여러분은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빛보다 더 빠르며,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광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깝게 제각끔들 가지고 있으니까 우습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마음이라는 것이 죽이고 살리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담당하고 있구요. 내세에 다시 뒤바뀌어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그렇게 광대무변한 묘법인 것을 우리는 몰라서는 아니됩니다.

더불어 우리 생활은 물론 벌레서부터 우주천지에 이르기까지 돌아가는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이겁니다. 이심전심이라고 말들 하죠. 우주, 세계, 전체가 모두 나의 근본이나 벌레의 근본이나 부처님의 근본이나 근본은 다 같이 이심전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고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어떻게 입력이 되는가, 입력이 된다면 거기까지 어떻게 통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아마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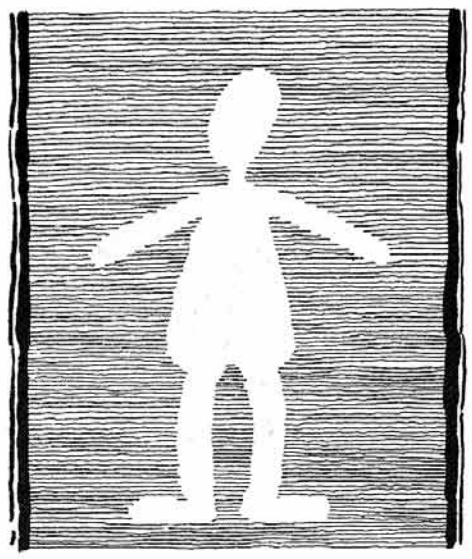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에 모든 것을 관하세요
아프면 약사 괴로우면 관세음
멍 짧으면 칠성으로 나퉈 줘요

젊은 청년들이니깐 앞날에 있어서 귀중하게 나날을 보낸다면 삶의 보람을 가져올 것이고 이 도리를 모르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너는 부자로 살아라 또는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정해 놓은 예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의 생각이 관습에 의해서 매달리고 끌어잡고 애쓰고 몰아간다면 그게 바로 운명이고 팔자인 것입니다. 팔자운명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모두가 생각하기에 달린 거죠. 그러니 팔자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남의 말에 끄달리지 마세요. 내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주인 없는 빈집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왜 우주와 더불어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겠느냐. 부처님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공생·공심·공용·공체 공식화 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벌레로부터 내 아님이 없느니라, 부처님 마음에서 태어난 천백억 화신은 바로 응신으로 화해서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벌레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짐승들이 원하는 대로 모두 나투어서 응신으로서 응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내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닥론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몸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그런 능력과 더불어 실천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실천 해 볼 때 소소한 거를 가지고 뭐 안된다 된다 이런 거에서 그만 매달리고 말죠. 그러나 안되고 되는 것은 다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안되고 되는 거를 다 내 손아귀에 쥐고 있잖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뜻은 움죽거림과 마음내는 거와 근본, 이 세 가지가 한데 합쳐서 여러분 개개인이 돌아가는 거를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다 주인공이죠 모두가. 여러분이 다 부처님이시듯. 그러면 안에서도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거니와 밖에서도 더불어 같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육신 속에는 천차만별의 의식들의 생명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 개체 하나가 세계와 같다 이겁니다. 이 개체, 몸 하나가. 이 몸 속에도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세계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 한 공장이 만약에 부도가 났다 이런다면 사람의 몸, 즉 집 자체가 쓰러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몸뚱이 자체가 나 혼자만이 사는 내 것인가. 아니죠?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죠? 그렇게 쉬지않고 돌아가면서도 고정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름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수억겁 전부터 진화돼서 온 자기 육신 속을 들여다 본다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인과로 인해서 바로 자기한테 인연이 돼서, 자기 영혼 근본과 더불어 부모의 정자 난자를 빌어서 같이 해야만이 이게 한 개체의 덩어리가 되니깐요.

또 한 가지를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과거에 살아나온 그 차원에 따라서, 이 몸 속에 인과성이 많으냐, 영계성이 더 많으냐, 유전성이 더 많으냐, 또 세균성이 많으냐, 업보성이 많으냐, 이 다섯 가지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으냐 크냐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이렇게 살았으니깐요.

사람에게는 오신통이란 게 있는데 지금의 컴퓨터와 같은 거죠.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입력된 그대로 나오는 거를 흔히들 팔자운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팔자운명이 없다 이런 거죠. 나오는대로 거기다가 되입력을 하니까 앞의 입력이 없어지므로 팔자운명이 붙을 자리가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진짜 이런 공부는 천년에 한번 만나기가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실천을 하면서 갈 수 있나를 얘기하기 이전에 이 소리를 안하면 안되겠기에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내 마음을 따라줘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주가 별성을 수없이 낳듯이. 블랙홀이 수없이 많은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 근본만 들여서 다시 생산을 시키듯이. 우리 인간은 이 마음 자체가 더불어 같이 사는 이 개체의 의식들을 다 내가 마음을 내는대로 따라서 하는 거니깐요. 내가 마음만 제대로 거기다가 나오는대로 되놓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따라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의식이 따라주니깐요.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죠. 나라가 쇠퇴해서 망하게 되니까 싸움이 벌어졌더랍니다. 이거는 방편상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는데 부처님 경계에는 급할 때에만 쓰는 거지 급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은 '이원대법'이지만 예전에는 '이보경계'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한마음 속에 들은 그 의식들과 더불어 안에서는 안에대로 급하니까 그 의식들을 내보내서 군사들한테 전부 투입한 겁니다. 이해가 가요?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영에다가 영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죠? 그래서 이원대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능력이 몇배로 솟아나죠. 이원대법이라는 것은 그 이차적으로 거기다 투입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싸우는데 군사는 적고 그러니깐 저쪽에다가는 무얼 넣느냐 하면 안이한 마음을 투입 했단 말입니다. 또 적으면 적은대로 저런 나무 이파리도 군사로 만들어 썼구요, 말로 어떻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면 왜 별성이 못되고 태양이 못되겠소? 우주가 못되겠소? 블랙홀이 못되겠소? 다른 혹성이 못되겠소? 날아다니는 새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앉아라' 하면 앉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려면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리예요. 그러니까 이 도리를 배우는 사람은 항상 남을 이익하게 내 몸과 같이 이익하게 하라 이런 뜻이죠. 자기 원한심을 품고 나쁜 마음으로 툭툭 건드리면 손오공 밖에는 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살아나가는 문제를 그냥 허탕하게 볼 게 아니예요. 우리가 사는 데는 중세계예요. 승진을 하느냐 좌천을 하느냐의 문제가 달린 중세계예요. 그럼 하세계는 따로 있느냐? 그것도 따로 있는게 아니라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보죠? 육식동물이나 채식동물이 살면서 서로 잡아먹고 하는 거 보시죠? 그것이 하세계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사는데가 중세계라면 그럼 또 상세계는 뭣이냐? 상세계는 마음으로 자유자재할 수 있고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상세계예요. 이 혹성에 중세계만 있는 건 줄 알지 마세요.

우리가 참 차원이 그만큼 올라간다면 하세계나 상세계에 다 접근할 수가 있고 이심전심으로써 통신할 수가 있죠. 그건 왜냐?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거든요. 우주의 생명, 하세계의 생명들이 전부 중세계의 생명들과 같이 이심전심으로 통하게끔 다 이렇게 중심에는 가설이 돼 있어요. 딴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근본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남을 아무리 속여도 나는 내가 못속인다는 말이 있죠. 내가 나를 못속이듯이 그렇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음 공부를 할 때에 심사숙고하게 정신 바짝 차려서 해라 이 소립니다. 왜? 못믿어 봤자야. 자기를 자기가 깎아먹는 거와 같고 무시하는 거와 같으니깐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없거든요. 이 도리를 완전히 알아야만이 서로 한마음으로 통해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는 그때는 누가 뭐랍니까? 참 대장부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도 남는 주먹을 쥘 수도 있죠.

그러니 맹세코 자기 뿌리는 자기가 믿어야 하고 또 항상 그대로 믿고 잘했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잘못되는 거는 '잘못되게 하는 것도 그놈이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냐' 하고 거기다가 굴려서 놔라 이거야. 굴려서. 가정에서 심부름을 시킬래도 '얘 아무개야! 뭐를, 뭐를 사가지고 오너라', 이래야만이 사가지고 오는 거지, '아무개야 너 알아서 해!' 이런다면은 무엇을 알아서 합니까. 그러니 육신과 마음의 부처가 둘이 아니예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콩씨를 심었더니 콩씨가 화해서 없어지고 콩싹으로 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화두를 가지고 그 과거의 콩씨를 찾으니 어디가 찾아요? 그 콩씨가 싹이 되버렸는데 어디 가서 콩씨를 찾느냐구요. 싹이 있는데서 콩이 또 달리는 법이지 어디서 콩을 찾아요? 그거는 백년, 천년, 만년이가도 못찾아요. 자기가 싹으로 돼 있으니까. 그 콩이 화해버렸으니까. 그러니 그 콩싹이 화한 거를 알고 무조건 그냥 콩씨를 둘 아니게 먹어치워라 이 소리예요. 자기한테 붙어있는 거거든.

예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수박을 들고 이게 뭐꼬? 이게 뭐꼬? 그러고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보니깐 자기 젊은 세월이 다 갔단 얘기예요. '수박을 들고' 라고 하는 건 '화두를 들고' 라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아, 그런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못 잘라 먹어보느냐 이거야. 그냥 먹어치워라 이거야 그냥! 먹어보면 그 속에 씨도 있고, 맛이 어떤 것도 알 수 있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야. 내가 맛을 보고, 내가 그 씨가 있어서 영원하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종자로 인해서 수천 수만이 벌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꼬? 하고 백날을 가지고 굴려도 거기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왕눈이 스님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계승시킨 편양 언기스님의 생애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강백으로서, 선승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스님이 언기스님의 법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이뭣고' 화두를 들고 살았기에 '이뭣고' 스님으로 불리워졌으며, 양을 치면서 수행한 일,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일 등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했던 스님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수일 글 · 그림/신국판/245쪽/값 6,000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재미있는 불교만화

화엄경 (전10권)



부처님 설법의 정수로 꼽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그 분량의 방대함과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만화는 어린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하며 53명의 덕 높은 스승들을 만나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 이야기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쉽고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전 10권/값 각권 5,000원

성철 큰스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수행과 정진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잠자던 한국불교를 깨워 일으켰던 성철 큰스님.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추앙 받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6,000원

불타석가모니 (전3권)

제1권 출가, 제2권 성도, 제3권 전법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태어나 위없는 큰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그 깨달음을 펴신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점들을 모아 재미있게 엮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각권 6,000원

반야심경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空)' 사상이다. 그런 만큼 '공'을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만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공' 사상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려 나가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희 그림/값 6,000원



백유경

부처님의 설법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비유와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백유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모은 경이다. 만화 백유경은 웃으며 보다가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재미와 교훈을 담은 100가지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희 그림/값 6,000원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한발짝 떼고 생각 안하면 그게 무심

☞ 15면에서 계속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대로 화두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아! 하면 벌써 이것이 화두다. 화두를 어느 큰스님이 주신다 해도 그거를 이름으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라, 이름으로 받는다면 만날 들고 돌아다녀야 하고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대로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내면에 내면처와 또 주신 분의 내면처가 마음은 그 체가 없기 때문에 둘을 한데 합쳐도 그냥 하나의 주인공이죠. 만불을 갖다가 하나로 넣어도 그것은 일불일 뿐이구요. 부처님 앞에 가서 빌고 기도하고 이럴 때, 여기저기 신중단이니, 칠성각이니, 독성각이니 또는 지장각이니, 관세음이니 뭐 쫙 늘어져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내가 필요한 대로 나투어 응해 주신다는 것을요. 이것이 아리송하걸랑 한 가정을 보세요.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형이 됐다가, 아우가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이렇게 바꿔지죠? 그거와 같은 거죠. 아플 때는 약사가 돼주고, 괴로울 때에는 관세음이 돼주고, 또 명이 짧다하면 칠성이 돼주고, 좋은데로 못갔다 하면 지장이 돼주고 이렇게 항상 나투죠. 그러니 온통 뒤죽박죽을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살려달라고 하지말고,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아프면 아프다고 관하면은 그것이 바로 약사로 화해서 나투어 주고 또 내가 가난하고 무슨 일이 생겨서 거기다 관하면 그대로 관세음보살이 돼줘요. 공부할 때도 과목이 따로 있어서 이거 배울 때 있고, 저거 배울 때 있고 그런 거지. 한데다 놓고 뒤죽박죽을 해서 배우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대로 화해서 그렇게 바꾸어준다 이거예요. 바꾸어주는 게 아니라 바꾸어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본래 자동적인 컴퓨터기 때문에, 대뇌에 자동적인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데 안되겠습니까? 용광로에 그냥 모든 걸 갖다 넣으면 저절로 재생이 돼나가듯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대성인도 모두 그랬어요. 못났든 잘났든 너 먼저 알아야 이 세상에 섭리를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 가난해서 못바운다, 바빠서 못배운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죠. 와선·좌선·행선·참선 이러는데 진짜 참선이라는 것은, 일을 하거나 눕거나 앉거나 자거나 할 때에 그대로 하는게 참선이거든요. 앉아서 하는 것만 좌선이라고 하는데 앉아서 관하는 거나, 일할 때에 관하는 거나, 섰을 때에 관하는 거나, 누웠을 때에 관하는 거나 뭐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근본에서 나오는 건 한자리지 두자리가 아니거든요. 몸뚱이는 이리 움죽거리고 저리 움죽거리고 해봤자 그것은 몸뚱이를 치는 게 아니에요. 움죽거리라고 해놓은 거 움죽거리지 못한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어디? 그러니까 움죽거리는 자체도 그 마음 근본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 근본에서 앉았든지, 섰든지, 일하든지 그건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거든 참선이라고 이름해서 부른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달이다' 이런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달이 된다면, 내 마음이 이 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달이 된다면 내 마음이 달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남을 해치지 않고 또 잘못되지 않게 할 수 있죠.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으니까요. 내가 또 태양이 된다 이럴 땐 내가 태양으로서 맘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태양이 된다면 태양이 타버릴 리도 없고 부패될 일도 없지 않아요? 그죠?

또 지구 역시 그래요. 모두가 오존층이 뚫어졌다, 에너지가 다 없어졌다 이러더라도 내가 만약에 지구가 된다면, 이 허공에 에너지가 꽉 차 있는데 그걸 자동적으로 끌어들여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를 모두 놓고 볼 때에 제일 우리가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금같은 마음이에요. 굳세고 금같은 마음이요, 빛나고 굳세고 그런 마음이요, 그 마음 하나가 우주천하를 덮고도 남아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남아요. 받치고, 덮고, 굴리고 해도 남아요. 저 스님은 엉뚱하게 저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이니깐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없다' 이럴 수는 없으니깐요. 귀가 잔뜩 먹은 사람한테 '아! 지금 천둥이 쳤다' 이랬다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천둥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귀가 뚫린 사람은 천둥치는 걸 들었겠죠. 그래 소리는 들었으나 쥘 수도 없고 갖다가 보일 수도 없는 것이 천둥이고 종소리죠. 모두가 그래요. 그러듯이 그렇게 갖다가 쥘 수도 없고, 갖다 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지만 분명 있어요. 갖은 소리 다 하게 하고, 가지각색으로 울죽거리게 하고, 가지각색으로 배우게 하고, 가지각색으로 먹게 하고 이거는 뭐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마음이라는게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광대하다고 볼 수 있죠.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 흡수하듯
한마음 믿을때 태양같은 힘 생겨

질문1: 대구 지원에서 온 유은숙입니다. 여기에 모인 전국의 청년 법우님들과 함께 한자리 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큰스님, 주인공 법을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큰스님 사랑합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경계가 다가왔을 때에 나름대로는 믿고 맡겨놓는다고 애를 씁니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이 상황으로서는 최선이다라고 하면서 주인공에 맡기고 가다보면 해결이 나고 감사의 회향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금 돌이켜보면 그때 상황이 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다가오는 경계의 인연 속에서 최선이라고 믿었던 그때의 제 그릇이 시간이 흐른 뒤에 조금은 커진 그릇으로 지나간 경계를 돌아보니 부족하게 느끼는 것인지요? 스님의 따스한 가르침 바랍니다.

스님: 어저께도 과거고 한시간 전도 과거듯이,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조금 지내고 보면 '아! 그거 조금 미흡했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차원이 높아지는 징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속에서 자꾸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걱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조그마한 걸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체험하는 건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다 똑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얽히고 설키게 일을 벌여놓으면 한가지가 풀리려면 여러 사람들한테서 풀려야 하니까, 좀 더디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이 모두 여러분이 벌여놓은 문제에 따라서 더디고 빠르고가 있는 거니, 그것을 '내가 주인공을 이렇게 찾았는데도 안되더라' 이러진 말아요.

왜? 안돼도 그놈이 하는 거고 돼도 그놈이 하는 거니까 누구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진짜로 통신이 되게끔 해야 대뇌로 통신이 돼서, 대뇌에서 이 사대로 하달을 해서 다 이렇게 작용을 해주고, 때로는 나가서 할 일이 있으면 원지에서 입자가 나가서 보살행을 하죠. 그래서 응신으로 화해 나가서 전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해결을 하죠. 찰나에 들고 찰나에 나고 하죠.

그러니 모든 게 자기 마음먹기에 달린 거고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 뿌리를 믿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생겼겠소?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 아니었더라면 아무리 정자 난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종자가 없는데 어떻게 낳겠소? 땅이 좋고 물이 좋다 하더라도 씨가 없는데 어떻게 그 싹을 바라겠소? 그러듯이 우리가 이 마음의 근본 종자의 주장자가 없다면 집도 비고 아무것도 날 게 없는 거죠. 그러니 그것은 오히려 자꾸 차원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둥글게 되는 거니까 감사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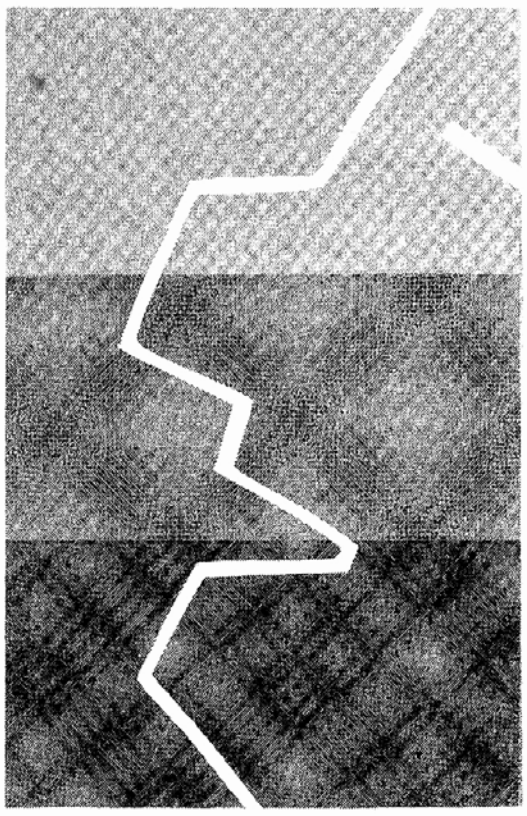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2: 안양 본원 이현석입니다. 이 자리에서 큰스님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뜻으로 푼 천수경 가운데서 '모습없는 일체 영령들도 물질과 둘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알듯 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의미이며 왜 그렇게 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주십시오.

스님: 모습없는 의식이라면 스무개 백개, 천개 이 허공에 꽉 찼다 하더래도 내가 한번 마음을 쓰면 그 한마음이지 두 마음도 아니야. 그지? 그러니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한 거 아니야? 그거는 뭐냐하면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하면 보는 사람이 그거를 얼른 알아채서 '너가 그렇게 해라' 이 소리거든. '내 마음을 빨리 지혜롭게 하게 하소서' 할 때도 자기가 그렇게 해라 이 소리지, 상대방에다가 기대고 하는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집은 이사를 갔는데 영계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난리들을 벌이고 뭐 사람이 자꾸 죽어 나간다 뭐 어쩐다 이러거든. 그런데 그게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거야. 한생각이면 그냥 없어질 걸. 생각해 봐 글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줄지 않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그러면 악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전부 내가 된다면 내 마음의 주인공에 한데 넣는다면 그냥 내가 돼 버리는 거야. 내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어? 내가 돼 버리니까.

그런데서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여기서 나가도 여기는 줄지 않는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야. 이건 마음, 영이라고 생각해봐. 영이 영한테 들어왔다가 영이 영대로 또 나가서 재생이 돼서 싹이 된다 하면은 그것 참 좋은 일이지. 재생을 시키니 좋은 일이요, 그 집에 그런 우환이 없어지게 하니 좋은 일이요, 그 도리를 아니까 떳떳하니까 이 세상에 주인이 되니 좋은 일이요, 진짜 부처가 되니 좋은 일이요, 모두가 그 얼마나 좋은 일이야 글쎄.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온 가정이 그냥 뭐 죽을둥 살둥 하거든. 그러니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이 공부를 잘한다면 그 가정은 아주 편안하게 나갈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지. 그러니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만 똑 부러지게 잘들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더없는 으뜸한 자유인이 될 거다 이 소리지.

그나 그 뿐인가, 시식을 하느니 무슨 뭐를 하느니 하고 그냥 온종일 뚝딱거리고 또 무당집에 안가는 사람 없지. 그러니 신세가 얼마나 고달퍼? 지금 먹고 살기도 죽겠는데 말이야. 참 공평치 않게 살아 모두.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 걸 그렇게들 괴롭게 사니 글쎄...

질문3: 저는 대구 지원에서 온 배완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자리 해주신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氣)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란 무엇인지, 또 마음과 기의 관계란 무엇인지 여기 대해서 우선 일차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스님: 기라는 것은 마음에 따라서 오는 따라지야, 그건. 마음에 따라지라고. 그건 마음먹기에 달렸어. 예를 들어서 내가 노곤하고 일어날 기운도 없다 그럴 때 '아이 의욕이 나지않고 왜 이렇게 기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 하고선 벌떡 일어난다면 그냥 의욕이 생기고 기가 생기는 거지. 기라는 것은 이름이야. 기운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거는 기라고 이름을 지어놓고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단전호흡을 해서 기를 갖다가 집어넣는다고 온통 야단이니 정수리로 화가 미치고 귀로 화가 미치고 등으로 화가 미치고, 온 몸뚱이로 화가 미쳐서 병들이 나가지고 가정 파탄이 나고 그러지.

도대체 기가 뭔데? 정맥 동맥이 잘 돌아가고 핏줄이 잘 돌아가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기가 잘 돌아가는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따라지지, 마음에 달렸다 이 소리야 그것도, 전후사가 다 마음에 달린 거야. 차가 운행을 하려면 바퀴를 꿴 그 중심과 그 엔진이 없으면 그건 아예 굴러갈 수도 없지,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으면 되고 말이야. 그게 기름과 같은 거지. 내 몸뚱이 차가 기름이 없게 해서는 안되잖아? 그러니 항상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관하면서 살아야겠지.

지금 그 웃는 얼굴에도 기가 있어. 기는 딴데서 오는게 아니고 딴데서 생기는 것도 아니야. 단, 자기를 진짜로, 진짜로 믿는다면, 그냥이야. 저 나무는 내가 너를 믿는다 안믿는다도 없이 자기 뿌리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지. 그러면 뿌리에서는 지분이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칠분등 모든 거를 흡수해서 그냥 올려보내는 거야.

우리가 한마음이라는 거를 믿고 진짜로 내 뿌리를 믿는다면 그 믿는 마음이 즉 태양력과 공기력을 내려보내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라는 이름을 누누히 생각 안해도 그냥 저절로 기운이 생긴다 이 소리지.

질문3: 네,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단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래로 전해오는 어느 책에 보면 몸 공부와 마음 공부 그리고 기 공부 이렇게 삼합이 일체로 이루어져야만 완성자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 여러분이 지금 배꼽 밑으로 해서 기를 들인다고 합시다. 무당이 귀신을 몰아만 놨지 내보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일이 터지게 돼 있거든. 그것처럼 기를 모아만 놨지 풀지를 못해. 옛날엔 너무 몸이 부실하고 그러니까는 그 기법을 가르쳐서 몸을 풀기 위해서 가르친 거지, 그것이 뭐 기에다가 착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야.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면 그렇게 해서 와짝 풀었지 그걸 넣어두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울이 있으면은 전부 그 울 안에 있듯이 한마음 안에 있으면 그 마음으로서 급하면 대치할 수 있는 거지. 기를 왜 미리 창고에다가 잔뜩 갖다넣고 딴 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놔? 그래 가지고는 오히려 병을 얻게 되지. 생각해 봐. 먹을 때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먹고 그릇을 항상 씻어서 치우지? 씻어 놨기 때문에 다음에 먹을 때는 또 그 그릇을 꺼내서 담지? 만약에 그릇에다가 항상 뭘 담아 놓으면 그 그릇엔 나중에 무엇을 담을래도 쓸 수가 없지? 그거와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기를 모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어. 급하면 저절로 기가 다 생기게 돼 있으니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저절로 기가 생기게 돼 있어. 자동적이야. 그걸 믿어야 돼. 자기가 자기를 못믿어 봤자지 뭐.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탄기탄하고 기가 없으니까 기를 넣어야지 어쩌고 하면 '허, 너 실컷 해봐라' 속에서 그럴 거라고, 아마. '니가 너라고 이렇게 자청해서 야단법석인데 니가 있으면 니가 알아서 해봐라.' 그리고는 자기 참자기는 아마 등한시 할 걸?

질문4: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 라고 말로써 풀이할 수 있는데요, 무심의 상태란 무엇이며, 도란 무엇인지 스님의 뜻을 받자옵고자 합니다.

스님: 허... 무심이란 건 지금 여러분도 전부 무심이야. 왜냐? 말하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보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만남도 고정됨이 없지, 먹는 것도 고정된 게 없지, 자는 것도 고정되게 몸을 움죽거리지 않고 자는 게 없지, 그냥 하나도 고정된 게 없지, 일거수 일투족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마음쓰고 그대로 무심으로 왔다갔다, 그냥 오고 가고,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그냥 찰나찰나 넘어가, 찰나찰나 그냥, 돌아가. 그게 무심이야. 그대로 무심이라고, 왜 괜히 붙들고 무심이냐 유심이냐 하느냐고. 유심도 무심도 둘이 아니단 얘기야. 알고 보게 되면 우리가 합이 없이 그냥 행을 하는 거고, 말하는 것도 합이 없이 말을 하고, 듣는 것도 합이 없이 듣고 있고, 우리가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사는 건데, 몰라서 전부 마음으로 붙들고 늘어지고 온통 야단들이지. 그냥 무심이 따로 없어. 우리가 한발짝 떼어놓고 그걸 생각을 안하면 무심이야. 한발짝 떼어놓고 뒤 발자죽을 생각을 안하고 그냥 앞으로만 가면 돼.

그런데 만약에 한 발자국 떼어놨는데 그 뒤 발자취가 금이라고 한다면 돌아다보게 되거든. '아이고! 저놈의 금을 내가 밟았는데 금을 내가 가져야겠다' 한다면 한발짝도 걸을 수가 없지. 그런데 아까 저기서 올라올 때 그냥 무심코 걸어서 올라왔지, 내 뒤 발자취가 어떤가 요렇게 떼어놨나 저렇게 떼어놨나 하고 걸어오지 않았지? 그런데 보는 것도 무심히 보지 저게 어떤가 하고 미리 생각을 하고 보지 않지? 듣는 것도 그래. 미리 생각하고 듣는 게 없어. 듣고 나서 판단이 되지.

그러니까 무심이야 그냥, 무심! 왜 그냥 여여한 거를 몰라? 반야심경에도 그렇게 해놨지 않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여여하니라' 하고 말이야. '색도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그대로 고정됨이 없으니 공과 색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무심이라는 여여한 도리만 알면 그냥 무심이요 그냥 무심도야. 좀 잘 좀 생각해 봐 응? 허허허. 여러분이 조금조금씩 자꾸 체험을 해야만 진짜로 믿어지죠. 공부하는데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요. 제발!

※위 법문은 1995년 11월 5일 전국청년연합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고 침 제276호 '길을 묻는 이에게' 법문중 '부와 자가 상봉한다는 뜻'의 답변내용에 '그 체험 하나하' 뒤에 '나를 통해서 감응이 오게되고 자신의 부를 진정으로 만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가 빠졌기에 바로잡습니다.

기쁘든 언덕을 넘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수련원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5)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명당(음 · 양) 氣 탐지기

특허

※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강화도 마니산	→ 65회전
해인사 독성각	→ 46회전
팔공산 갓바위	→ 16회전
P대통령 생가	→ 50회전
K대통령 생가	→ 50회전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 보급가 35만원
보급가 40만원

※ 추석때 집터, 묘터 한번만 사용하셔도 본전을 뽑을 수 있으며, 이 측정기만 있으면 30년 공부 한 풍수보다 낫다

TEL:053)982-4976/011)813-3679

강좌

易學 수강생

남녀 누구나 쉽게 배울수 있는 특별교재로 역학의 원리와 이치를 깨우쳐주는 체계적인 교수법으로 확실하게 책임지도 하오며 역학의 성취는 인연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 포교원 운영하시는 스님, 보살님
※易學을 노력해도 완성이 안되는 분
※易學은 기본과정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 수강시간 : 4개월(주 5일 수강)
▶ 수 강 료 : 월 25만월 (교재일체 무료)
▶ 강의시간
오전 10:00시-12:00시(일 120분)
저녁 19:00시-21:00시 (일120분)
▶ 접 수: 2000년 6월 5일 - 10일
15:00(냉방완비)

☎051)469-1239/442-5712

萬佛 철학연수원
(구)침례병원 앞 성빌딩

사주명리학

책임개인지도 완성까지
숙식제공 가능

※공양주 하면서 역학공부
하실분 환영함

진주시내이면서 조용한 기도 도량

0591)755-6997/759-1514
016)612-9204

철 학 (개인지도)

▶ 주역(周易)
1. 四柱로 손님을 감정하다.
(한계를 느끼고)벽에 부닥친분들
2. 아무리 공부를해도 말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
3. 기초는 없으나, 늘 배워보고 싶은분들
4. 혼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분들
5. 혼자 책을 봐서 지친분들
6. 처음 배워서 개업 하실분

※ 노력여하에 따라 3~5개월 에 개업확신

02) 571-4773 (578-0480)
018) 419-4167 고 운 처사

역학 강의합니다

▶ 과 목 : 서주 · 관상 · 육효
▶ 교 재 : 千江月(봉인저) 복서정종
▶ 과 정 : 4개월
▶ 장 소 : 관음사 포교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천년을 이어온 중국 정통역학
· 불교 도교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 출장도가능

02)396-6079/016)852-525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 내려온 비술
▶ 손하나만으로도 몇년전, 몇월, 몇일의 운세 점검 몇년후, 몇십년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 내림굿을 받았어도 점쾌가 시원치 않는 분

인연있는 분에게 전수합니다

02)918-5554 / 017)317-1597

구인구직

스님 없는 사찰을 구합니다

가정화목, 사업발전,영가천도
불치병치료등 친견으로 사찰을
번창시키겠습니다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8)611-0675

노적사 행자 모집

입산 수행할 행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02)353-5016(종무소)
353-4924(주지실)

조석예불드릴 노스님
모십니다.
(연세55-68세)
월용돈 80만원

0546)
452-084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연세50-60세)

개심사

0331)
292-1498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2)
885-5685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연세40-50세 초반)

0613)
337-3440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휴양

▶ 산림욕, 약수, 참선, 기도 최적
▶ 경관이 수려한 현대식 목조주택
▶ 화병, 우울증, 불면증, 신경통 관절염,요통, 만성두통 및 피로 등 즉각 효험

강원도 홍천 건강샘터
0336)435-6166
성 림 선 원

출가수행 농장에서 수양생활 하실 분

▶ 절 일을 도와주실 보살님, 거사님, 절에서 살고자 하는 보살님, 거사님 노스님 수행원 건립에 화주 시주자 기다립니다.
▶ 어린이 법회 위기 선생님 급구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02)885-1558
수련원 농장 0433)542-2238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기타

강원 버섯 농장 (太白山)

1. 상황 버섯(자연산 및 뽕나무 재배)
2. 동충하초
3. 아가리쿠스
4. 송이 버섯(자연산)
5. 장뇌 산삼 (太白山체취)
6. 지장수(황토에서 추출한 물)

※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 우송하여 드립니다.

강원버섯 농장 김 동 수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6리 1814
0353)458-8077/017)355-8995

▶ 초등학생 유학(만12세 미만)
▶ 중 · 고등학교 유학및 랭귀지 스쿨, 단기 어학연수
▶ 대학입학목표
(AUT,UNITEC--대학부설 어학원 추천)
▶ 어학연수후 본과로 진학
▶ 대학생및 성인 대상 랭귀지스쿨
▶ 홈스테이및 가디언쉽제공
(불자가정 및 현지인 홈스테이)
▶ 공항 픽업 및 학생비자신청 대행
▶ 단기 어학연수 ▶ 골프유학 및 연수

우 등 불 유 학 Email:rafaga@world-net.co.nz
PH:64-9-416-4252~3 HP:64-9-021-2132666
FAX: 64-9-416-4252

새천년 새인연 팔공산 약사정사
(천년도량)신비한 맥반석약수

뇌졸증, 중풍, 당뇨병, 위암
간암, 위장병, 피부병, 관절
병고자는 기적같은 성취

※불사 원생함께 하실 처사님, 보살님 구함

051)244-3360
011)9554-6900

지식정보화시대 **인터넷포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각종 프로그램개발

[CGI, PHP, ASP, JAVA]특별
서비스 상담전화 02)2242-2376
http : //www.mapsi.net
E-mail : webmaster@Mapsi.net
한국불교예술문화원 후원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현 대 자 동 차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스님 · 불자님의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믿음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 구 진 천 점
원응 곽영순 합장

011)509-9456/053)639-1100
(부재시 메모주시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 사업성공, 건강 ▶ 부부화합, 승진
▶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 결혼성공, 득남득녀 ▶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전화주시면 팜플렛 안내서 보내드림.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50명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당뇨 · 간질 · 관질염 완치

한국불교 태고종 **서산사**

주지 진성

0667)762-2204(fax겸용)
761-5799
011)696-4848

전북 광양읍 칠성리

사찰안내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천 8백평 현재 천탑, 천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자금관계로 급매)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격 : 답사후 절충
0373)378-1618/011)512-7155

사찰 안내

◆ 위 치 : 서울 특별시내 (최고요지)
◆ 부 지 : 4000평(종교용지+임야)
◆ 법 당 : 100평(목조) ◆ 요 사 : 250평
◆ 현시세 : 130억 (땅 값만)
◆ 양도가 : 65억 (50%는 일시불, 50%는 분할가능)
※ 매각사유 스님 건강상, 사찰포교 조건으로만 양도가능(타용도 불가)
※ 주변산세 뛰어나며, 고찰로써 참선수양 도량임
※ 전화문의사양하며, 본사 방문 스님에 한해서 상담가능(일반인 상담사절)

한국최고의 사찰전설팅 **한국불사**
02)561-7791
018)273-9390

사찰운영하실 분

◇위치 : 포항
◇법당 : 20평
◇요사 : 30평
◇부지 : 820평
◇가액 : 5억5천

※ 불심 돈독하고 내 집처럼 생활할 노보살님 및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0502) 713-5634
청송기획 02) 998-1994
011)713-5634

사찰부지 안내

◇위치 : 영천
◇부지 : 690평
(대지82평, 준농608평)
◇가액 : 평당 20만원
◇특징 : 영천시내에 인접하고 산새 수려하고 웅장한 바위가 있고 강이 내려다 보이는 천해의 기도도량터임

청송기획 0502) 713-5634(서울)
011)713-5634

포교원(급) 안내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4거리
◆평수 : 3층 45평(법당), 4층 45평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가격 : 보증금1천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343)469-1562
011)9807-674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강원 경계지역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부지 : 2만 7천평
◆ 건물 : 대웅전, 무량수전 지장전, 산신각, 용왕각, 선방 요사3동(전체 단청완료)
◆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계곡물이 흐름
◆ 가격 : 답사후 절충
(중간소개배제/직접당사자임)
017)373-5998

사찰 안내

◆위 치 : 경북 김천
◆대지 600평 (사용부지 1000평이상) 법당28평(사무실포함), 산신각, 창고 주차장, 요사채55평, 방7개
◆특 징 : 경관이 좋으며 산속 맑은 계곡을 끼고 있으며 별장이나 기도처로 적합, 대형차량 진입
◆가액 : 1억 7천 (절충가능)

0547)436-5036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산면 210번지 영주암
서천에서 차로 5분거리
◆ 대지 : 100평
◆ 건물 : 5평짜리 방2개, 목욕실 주방, 태양열, 법당, 산신각4평, 요사채10평, 홍탱화
◆ 가격 : 4천 5백만원

0459)953-3478/951-3308
011)9805-5315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천보사 포교원
◆ 건물 : 1층 요사채 28평 주방10평, 2층법당 28평
◆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 시설이 완벽함
◆ 가격 : 보증금 5천만원, 월10만원시설비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 017)741-1467

사찰 안내

◆ 위치 : 중랑구 상봉동
◆ 건물 : 2층 58평, 법당35평, 방3칸, 입식주방1개,에어컨설치, 각방 기름보일러
◆ 특징 : 법당 일체 조성되어 있으니 즉시 법회가능, 개금 삼존불 조성
◆ 가격 :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2500만원 월세 60만원

02)439-9409

포교당 안내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중동역 (동심 APT역)
◆ 건 물 : 3층 24평 법당1, 방1, 상담실, 삼존불, 탱화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32)654-5859

암자교환 원함

◆ 위치 : 익산시 신용동 원대뒤 700미터
◆ 부지 : 등기필130평, 국유지 40평, 총 180평
◆ 임법당 10평, 주방9평, 큰방1, 차량진입, 부지 넓은 산속 암자와 교환원합니다.
◆ 가격 : 전세3천, 양도7천

0653) 853-1666

사찰 안내

◆위치 : 국도 대전 논산간 중간지점
◆대지 : 602평
◆건평 : 대웅전 35평(목조로 외5포 내7푸), 삼성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35평(현대식건물) , 가건물 22평
◆특징 : 산속에 있어 기도도량으로 적합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0461)733-3048
011)458-3048

토굴 안내

삼존불 모셔진 토굴입니다.
신심있는 불자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신원확실한분
◆지리산 홍대마을 깊은 계곡 토굴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아주 좋은 절입니다.

0596)973-9630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 평 수 : 약 60평,법당30평 큰방2개, 주방
◆ 특 징 : 불사시설 완비 3층건물의 3층
◆ 가격 : 보증금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절충가능

019)473-7613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외관
◆ 평수 : 90평
◆ 특징 : 전망 좋고, 교통편리 법당, 요사채
◆ 가액 : 1억 2천만원

017)565-1599

포교당 안내

◆ 위 치 : 수원
◆ 평 수 : 80평 방3개 샤워시설
◆ 특 징 : 아미타불 삼존불 등불 有, 108지장전 有 사찰의 모든시설 일체
◆ 가격 : 2천만원 월70만원 시설비 일체포함 5,500만원

019)310-8818

포교당 안내

◆ 위 치 : 상계동 당고개 아주 조촐한 포교당
(산이깊은절)을 인수할 인연깊은 스님을 기다립니다.
◆ 근린상가 5층에 3층 약32평 법당, 방2개, 세면장 옥상소재

02)939-7121011)9972-7121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중심상가지역 3층건물 3층(옥상사용가)
◆ 건물 : 법당시설(특급)대형에어콘 신설, 신도방1, 조리장1 화장실1,(현재운영중의 집기 물일체 무료 제공함)
◆ 가액 : 보증금1천만원(월55만원), 시설권리금2천5백

011)458-2955
(운영실태를 파악제공함)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 부지 : 약70평, 법당30평(단층) 요사채60평
◆ 가격 : 3억
◆ 특징 :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의 도심사찰로 뒤쪽은 관악산으로 숲이 울창하며 포교 및 기도도량으로 아주 좋음

※ 전국의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인연됩시다

02)326-1060
053)964-2060
018-334-9021
동진불사

사찰 안내

◆위치 : 부산시내 적요지
◆대지 : 250평이상(국유지포함)
◆건물 : 법당40평 요사채70평 주택4가구
◆특징 : 교통편리(지하철 5분거리) 포교최적, 산세수려(靑山) 신도1000세대(현재)
◆가액 : 답사후 결정

051)208-1122
※ 부산시내 사찰신축, 실버타운적지 부지3000평 있음

포교당 안내

◆위 치 : 진구 전포동 (송상현 동상삼거리)
◆건평130평, 법당70평 (방5개) 법당시설 일체완비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60만원 시설비 절충

051)818-0664
0525)326-0671

포교원 안내

◆위 치 : 울산시 우정동 APT단지 2500세대
◆시설비 500만원, 보증금1천만원 월 20만원, 전세 2500만원 가능

052) 245-6689
011)9576-6338

불자 세상보기

사이버 세계 '죄책감 없는 행위' 부추긴다

음란-폭력-도박 '사이버 3惡'

"그대들이여, 마음이 삿되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음탕하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며, 생각이 악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생각이 부귀해지려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라.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말라. 마음은 사람을 그릇되게 만들며, 사람을 죽이기도 하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이 만드느니라."

이 말씀은 〈불반니항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중 '제자들'을 '그대들'로만 바꿔 인용한 것이다. 아마도 부처님이 현세에 있었다면 사이버 윤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저 옛 성현이 삶의 원칙을 얘기한 것쯤으로 치부한다면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인터넷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악(惡)은 사회제도와 규범으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각종 비도덕적인 행위 중 음란, 폭력, 도박은 사이버공간의 3대 악(惡)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 행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터넷 경매가 유행하면서 장물이관을 치는 등 인터넷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죄책감 없는 행위'를 부추기는 범죄의 온상이 돼가고 있다.

지난해말 정보통신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정보 중 약 10%가 음란물이며, 음란사이트만도 10여만 개에 이르고 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성폭력이나 원치 않는 성적 대화 요청행위는 물론 누드모델 사진이나 성행위를 묘사한 비디오와 사이버섹스에 이르기까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심지어는 원조교제의 마당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행위도 심각하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해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이 난무하고,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쏟아냄으로써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최근에는 게임 프로그램에서 이유없이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이버 조폭'도 생겨났다. 이런 사이버 폭력은 실제로 두들겨 맞거나 돈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한 좌절감과 복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이 느끼는 피해감은 실제 폭력 이상이다.

사이버 도박도 연간 수백만 달러의 외화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과 연계된 국내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도박을 즐기는 등 경찰이 추산하고 있는 사이버 도박꾼만도 100만 명에 이를 정도. 게다가 관공서나 기업체, 학교 할 것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그 폐해를 짐작케 한다.

또 최근에는 인터넷 경매가 환기를 띠면서 음란물과 장물도 거래되고 있다. 한 대학생은 음란 CD 400여장을 판매했다가 구속됐고, 전직 대학강사는 훔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경매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의 특성상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개를 기둥에 묶어 놓으면 개는 끈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기둥을 빙빙 돌면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며, 눕기도 하지만 기둥을 떠나지는 못한다. 이와 같이 범부들은 육신에 묶여 탐욕을 일으키고 매달려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증을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이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중생계 또한 맑고 깨끗해지느니라." 〈잡아함경〉

개를 우리 인간에, 기둥을 인터넷에 비유해보자. 답은 간단하다. 끈만 끊으면 된다.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끈은 갖가지 유혹이요, 폭력의 근원이다. 사이버 시대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더욱 가까이 와 닿는 것은 평범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기독·힌두교 등 12개 종파 '종교유엔헌장' 서명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비구가 설법할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저이가 말한 글귀는 바르지 못하다. 그러나 그 뜻은 바르다"고 말했다 하자. 비구는 그 말을 듣거든 옳다고도 말하지 말고 그르다고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그 사람에게 말하라. "어떤가, 내 글귀는 이러하고 너의 글귀는 이러하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 만일 그 사람이 곧 대답하되 "내 글귀는 이러하고 네 글귀는 이러하다"고 하면, 비구는 또한 말하기를 "이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그르다고도 할 수 없다"하고, 마땅히 그 사람과 함께 연구하라. 이렇게 다함께 화합할 것이요, 서로 싸움을 하지 말라. 동일한 스승의 제자는 동일한 물과 젖이다. 여래의 정법 가운데서 마땅히 자기 등불로 유쾌한 안락을 얻어야 한다.

〈청정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화합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6월 25일 기독교·힌두교·유대교 등 전세계 12개 종파 대표들이 미국에서 모여 '세계종교연합창설헌장(URIC)'에 서명했다. 더욱이 URIC가 타 종교인에 대한 공격적인 포교 금지 등 21개 항목을 발표하고 상호간의 교류 및 각 종파간 이해방안을 협의한 것은 〈청정경〉의 부처님 말씀과 그 뜻이 같다는 점에서 매우 값진 성과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종교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종교간 화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공격적인 선교활동과 타종교 비방 행의가 그치지 않고 있다. URIC 창설을 계기로 국내외의 종교간 화합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각 종교의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다.

결식아동돕기 국토대장정

목원대생 54명

대전 목원대학교 학생들이 주변의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국토대장정에 나서 갈채를 받았다. 이 학교 학생 54명은 26일 지리산을 출발해 남원시~진안군~무주군~금산군 등을 거쳐 학교에 이르는 총 210㎞의 대장정을 마쳤다.

학생들은 대장정 1Km마다 학생회 임원들의 장학금 가운데 1만원씩을 적립하고 교수와 직원들로부터도 성금을 모아 대장정 이후 대전시교육청 등에 기탁할 것이라고 한다.

또 대장정 기간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수필이나 시 등을 작성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한편, 대장정 코스 주민들에게 결식아동돕기 홍보활동도 펼쳤다.

'수돗물 불신' 더 늘었다

"식수 부적합" 70%

환경부, 국민의식조사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등 수돗물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21세기 국민환경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1%가 수돗물이 식수로 부적합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97년의 61%에서 10%나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의 환경이 그만큼 오염돼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는 정부의 말을 국민들이 믿지 않는 탓도 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과오를 뉘우쳐야 한다"는 부처님 말씀을 정부는 깊이 새겨야 한다.



우리 마늘 지키기 전국 마늘생산 농민 2000여명이 6월 27일 서울 중국대사관 부근에서 전국 마늘생산농가결의대회를 열고 우리 정부의 중국산 마늘 긴급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쪽의 무역보복 조처에 강력히 항의했다. 마늘생산 농민들은 "99년 한국의 중국산 마늘수입이 4년 전보다 9배 이상 늘어나 한국 마늘농가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한국정부가 취한 긴급관세 부과는 당연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시론

극한 대립, 안된다

세상사는 과연 제로섬게임일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더러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라, 또 관계된 개인이나 집단의 대처양상에 따라 제로섬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의 진리이다.

국민 볼모 의료대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로섬게임이 우리 사회의 작동원리이어서는 곤란하다. 제로섬게임은 미개한 사회의 전형적 갈등양식이다. 나 하나 더 먹기, 상대방 입속의 떡 빼앗아먹기, 너 죽고 나 살기의 제로섬게임은 성숙한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다. 인류의 발자취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김병관 (아주대 사회학과 교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제로섬게임은 종종 일어난다. 왜? 그것은 인간사회에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과 그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있다.

원색적 이해관계의 추구는 갈등의 증폭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문제의 해법은 타협과 상생의 길의 모색에서 찾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첫째는 갈등의 상대방에 대한 인정이요, 둘째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해관계의 추구이다. 갈등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은 타협의 여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즉각적 이해관계의 추구는 극한대결을 부를 수 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의 전개 및 조정과정에서 협의의 즉각적 이해관계 당사자를 뛰어넘는 대의와 이를 견지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의 상충과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조정은 보다 높은 차원의 이해관계에 종속되어야 한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에는 엄정한 규칙을 적용하고 또 직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의 틀을 뛰어넘는 상위의 이해관계를 상기시킬 수 있는 적극적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의약분업 사태는 우리 사회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이다. 의약분업의 궁극적 이해관계 당사자는 우리 국민 모두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실종되어 있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소동을 벌였는지 조차가 불분명하게 끔 사태를 몰고 간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의약분업의 즉각적 당사자는 의사, 약사, 제약업계, 의료보험 당국이다. 문제가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오래 동안 지속되어 온 제도적 균형을 바꾸는 것은 정부의 밀어 부치기식 오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세상은 변하는데 정부는 아직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뻔히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의 상충을 두고 사전 조정도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밀어붙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왜 이 사태를 제로섬게임으로 몰고 갔는가? 진정 국민을 볼모로 삼은 것은 정부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의 대응방식은 어떠한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존경과 대우를 원한다면, 스스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속박되는 행로를 택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군다나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다루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현실적으로도 잃은 것이 많은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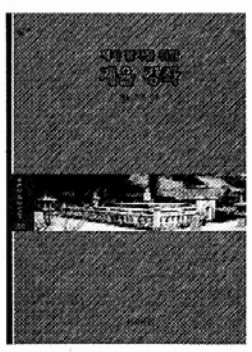
해법은 타협과 상생

뿐만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해 이익집단들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가 팽배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과 폭력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극단적 이기는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뿐이다. 유럽과 일본의 시위문화로부터 교훈을 얻어야겠다. 이해관계 상충의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타협의 자세, 장기적 관점의 대화가 있어야 집단간의 갈등이 공존과 상생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다. 같이 사는 길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된 최의 아무님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6,500원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믿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삼귀의계(三歸依戒) — 사불괴정경, 염삼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바새경
- 팔관재계(八關齋戒) — 지재경, 불설우바이타사가경, 불설팔관재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가람경, 가미니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까경, 더없는 행복, 파멸, 천한 사람, 대부호, 마낫탓다, 효자, 사랑스런 이, 교계싱갈라경, 옥야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화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화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염주, '마음의 훈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발심수행장, 대승육정참회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6월2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열린 '교법사 배출 55주년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스님이 법문 하고 있다.

청소년 '율전' 출간·사이버법당 운영

교법사단 창설 55돌 법회

전국교법사단은 지난 6월2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교법사 배출 55주년 기념 법회 및 청소년을 위한 율전 출간 기념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 스님을 비롯해 동대부고 우화수 교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상운 스님은 법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교법사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며 "교법사들이 부처님의 법음을 시대에 맞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한다면 청소년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법사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청소년을 위한 경전 자료집(율전) 출간 기념식이 열렸다.

한편 법회가 끝난 뒤 교법사들은 총회를 갖고 내주 중으로 교법사단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해 본격적인 청소년 사이버 법당 운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소는 www..sarana.com

김주일 기자

독경·명상 수행하면 영혼 맑은 아이 낳아요

파계사 '태교명상' 인기

"청소년 때부터 윤회·업보·인과사상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에 익혀 수행하면 IQ도 높고 EQ도 높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6월 28일 오후 5시 태교명상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 대구 파계사내 영산율원. 성우 스님(파계사 주지)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40여명의 대학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듯이 강의를 펼쳤다. 참석자들도 임산부나 듣는 줄 알았던 태교 강의에 신기한 듯 귀를 쫑긋 세우고 강의에 집중한다. 이번 수련회의 하일라이트는 20년간 불교식 태교법을 연구한 성우 스님의 태교강의 시간.



◇불교식 태교법을 강의하는 파계사 '태교명상 수련회'가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윤회·인과사상 익히면 IQ·EQ 높아져

성우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강의를 이어나간다. "하나의 생명체는 스스로 지은 업의 작용과 부모의 인연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그래서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서는 선업을 많이 쌓고 참회정신에 입각해 죄업을 녹이는 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며 좋은 인연을 위한 독경과 명상 수행을 강조한다.

스님의 강의가 끝나자 진지한 얼굴의 참석자들은 기다린 듯이 질문 보따리를 풀어 헤쳤다. 여름산사 수련회를 겸해서 참석했다는 전미선(대구과학대 2년)양은 "태교는 임산부들 한테나 중요한 것인줄 아는데 스님은 왜 청소년 태교를 강조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스님은 "청소년시절은 아직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답고 순수한 심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명상하기 좋은 시기"라고 설명한다. 이색적인 참석자도 눈에 띄어 주목을 받았다. 1회부터 8회까지 모두 신청한 극락성보살(50)은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여서 불교식 태교의 중요성을 익혀 널리 보급하기 위해 참여했다"며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계속 수행해 남편과 함께 태교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태교에 대해 생소한 남학생들도 처음에는 쑥스러운 듯 구석에서 얼굴만 내밀며 소극적인 자세로 경청했지만, 업(業)사상에 대한 강의에 흥미를 느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과 메모를 반복하며 진지한 자세로 변해가는 모습도 보였다.

전통 차문화 강의·시연

이번 수련회에서는 태교 강의 이외에도 우리차문화연합회의 '차문화 강의'를 비롯 행다 및 시연도 함께 이뤄져 참석자들에게 우리 전통 차문화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태교 명상수련회'가 본격적으로 사찰에서 숙식하며 수련회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95년 정기법회 때부터 성우 스님의 태교법문에 이어 98년 불교TV '태교명상 강좌'로 인기를 얻자 산사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현대인들에게 맑은 영혼의 자녀를 짝 지어주기 위한 취지로 정례화시킨것.

이번 수련대회를 개최한 성우 스님은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구분지어 교육하는 것은 각자의 근기에 맞는 눈높이 태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종교를 초월해 건강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태교의 포교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계사 태교명상 수련대회는 △3차: 15~16일(대학생 및 일반) △4차:29~30일(고등학생) △5차:8월5~6일(중학생) △6차:8월12~13일(대학생 및 일반) △7차:8월19~20일(대학생 및 일반) △8차:8월26~27일(대학생 및 일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53)984-4550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⑪ 동농의 신원사·봉정사 편액



동농 김가진(東農 金嘉鎭/1846~1922)은 1877년 문과에 급제해 사헌부감찰, 동부승지, 주일본판사대신, 안동대도호부부사, 전우국총판, 공조판서, 농상공부대신, 황해도관찰사, 중추원 의장, 충청도관찰사, 규장각제학 등의 벼슬을 지냈다. 또한 그는 1909년 대한협회 회장이 되어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했고, 비밀결사인 대동단의 총재로 추대돼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했으며, 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으로도 활약했다.

대 웅 전 충청 관찰사 시절 쓴 근엄한 서체

천등산 봉정사 강직한 성품 드러난 1913년 작품

동농은 이처럼 조선 말기로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행정요직을 두루 지낸 문신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독립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였다. 그는 16세에 이미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모두 배워 한학에 밝았고, 진당(晉唐) 이후 제명가의 필의를 체득해 당대 명필로도 이름이 높았다. 사찰에 남아 있는 그의 글씨로는 공주 신원사 〈대웅전〉, 문경 김룡사 〈운달산김룡사〉, 안동 봉정사 〈천등산봉정사〉, 〈덕휘루〉, 부산 범어사 〈금정선원〉 편액 등이 대표적이다.

공주 신원사 〈대웅전〉 편액에는 액판 좌측에 '동농, 김가진인(東農, 金嘉鎭印)'이라는 2과의 도서가 있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80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1876년 보연 화상(普延 和尙)에 의해 중건되었다고 하는데 편액의 글씨는 1906년 동농이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해 있던 시기쯤에 쓴 것으로 보인다. 편액의 글씨는 미불과 동기창(董其昌)의 글씨를 익혀 쓴 해서로 서품이 근정(謹整)하며, 변화보다는 후실한 맛이 나는 글씨이다.

안동 봉정사 만세루 앞쪽에 걸려 있는 〈천등산봉정사〉 편액에는 액판 우측에 '백운동리인(白雲洞裏人)', 좌측에 '동농노어서(東農老漁書)'라는 관지가 있다. 이 편액은 함께 쓴 것으로 보이는 만세루 안쪽의 〈덕휘루〉 편액에 '시년육십유팔(時年六十有八)'이라는 도서와 '계축중하 김가진(癸丑中夏 金嘉鎭)'이라는 관지가 있어 1913년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편액의 글씨는 그의 다른 글씨와 마찬가지로 서품이 강직(剛直)하고 근정(謹整)함이 드러나는 글씨이다.

안병인 〈대한불교진흥원〉

건강백과

여름철 건강 목욕법

장마와 함께 찾아온 후덥지근한 초여름.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고 더위까지 겹치면 매사에 짜증만 나기 쉽다. 이럴 때 냉수마찰을 해보면 어떨까. 한방에선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 냉수마찰이나 건포(乾布)마찰을 하면 하루가 개운해진다고 말한다. 더구나 수은주가 부쩍 올라간 요즘은 냉수마찰이나 건포마찰을 시작하기 좋은 계절이다. 여름철 건강에 좋은 목욕법을 알아보자.

▲냉수마찰=뜨거운 물에 발을 1~2분 정도 담근 다음 시작한다. 처음엔 미지근한 물에 면장갑을 적신 뒤 물기가 약간 남을 정도로 짜서 온몸을 5~8초 문지른다. 심장에서 먼 팔 다리부터 문지르고 심장은 맨 나중에 하는 것이 좋다. '장갑마찰'이 끝나면 마른 수건으로 재빨리 몸을 덮고 마른 수건으로 계속 문지른다. 면장갑을 적시는 물 온도를 3~4도씩 낮추면서 위 방법을 3~5번 되풀이한다. 냉수마찰은 몸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열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는 피한다.

건포마찰 - 감기예방·지방제거

음양교차욕 - 기순환·피로회복

▲건포마찰=내장을 튼튼히 해 주며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고, 비만일 경우 지방 제거에 좋다. 마른 수건으로 몸의 각 부위를 약간 뜨거운 느낌이 들 때까지 문지르면 된다. 순서는 △팔(손끝에서 어깨쪽으로 마찰) △다리(발끝에서 허벅지쪽으로 마찰) △배(배꼽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둥글게 마찰) △등(수건 끝을 양손으로 잡고 사선으로 문지르며 마찰) △양 가슴(양쪽 가슴을 나눠 시계방향으로 마찰) △목(앞쪽은 턱에서 가슴 방향으로, 뒤는 목뼈가 툭 튀어나온 곳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마찰 △가슴 한 복판(둥글게 마사지)의 순으로 한다.

▲음양교차욕=열탕과 냉탕을 오가며 목욕하는 것을 말한다. 기의 순환을 촉진해 몸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을 돕는다. 온몸을 섭씨 16~17도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열탕에 3분 정도 들어가 있는 것을 5차례 되풀이한다. 냉탕에선 손으로 몸의 결리는 부분을 부지런히 주무르고 열탕에선 몸을 가만히 놔둔다.

청소년 단신

용주사서 연꽃어린이캠프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22일부터 2박3일간 용주사에서 '제6회 연꽃 어린이 캠프'를 진행한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사찰예절 교육, 참선, 불교레크리에이션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참가자격은 유치부에서 초등학생까지이며 참가비는 3만원이다. 선착순 5백명 모집. (02)738-7860

청소년 풍물놀이 경연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는 6월17일 해변 공연장에서 '제2회 청소년 풍물놀이' 경연대회를 펼쳤다..

제주고 삼성여고 등 제주도내 고등학교 7개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인 이번 행사에서는 삼성여고 풍물패가 장원을 차지해 제주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부모와 어린이 문화학교

경주 신라문화원은 2일 '여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 문화학교'를 열었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괘릉, 옥룡암, 사천왕터, 남산 등 4개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괘릉 코스에서는 도자기 제작 실습도 함께 이뤄졌다. 문화 답사가 끝난 뒤에는 황성공원에 모여 사물놀이 공연과 우리 민요 배우기 등의 시간을 가졌다.

밀레니엄시대 청소년 지도자 교육

청교련 28~31일 리더십캠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이하 청교련)는 28일부터 3박 4일간 아산 옥련암에서 '2000 청소년 리더쉽 캠프'를 연다. '밀레니엄 시대를 대비한 지도자 양성'이란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과정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건강 증진 프로그램 △놀이를 통한 인간 관계 프로그램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중 교양 프로그램에는 리더쉽 배양을 위한 기본 교육 강의와 아산현충사 등 문화 유적지 답사, 통일을 주제로 한 역할극 해보기 등이 포함돼 있다. 참가 자격은 학생회 간부 및 청소년 지도자이며, 접수마감은 7일까지다. (02)735-8165

氣발생의 신비 전자파 수맥파 차단 행운의 달마도 순금카드!

氣 인증서 획득

나쁜 氣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속에
간직하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정통 달마조사도의 대가(大家)이신 오인(悟印)법사님의 달마도 원본 작품


앞면 : 오인법사달마도


뒷면 : ①반야심경



뒷면 : ②사업번창부

부처님 오신날 천만불자 보시용품

(주) 골드타운은 불사보급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판매수익금의 일부분은 불사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뒷면 : ③차량안전부



뒷면 : ④시험합격대길부

행운과 氣를 선물하세요



달마도 상반신

예로부터 달마도는 신비스런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판 액자
순금판크기 : 11×16㎝
표구액자크기 : 27×32㎝


달마도 전신상


앞면:달마도


뒷면:반야심경(外 3종)

〈순금판 열쇠고리〉

▶ 순금의 함량과 제품의 품질에서 최고임을 자신합니다.

달마도 신비의 기(氣)

달마도는 TV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카드

일반 지갑 소지용으로 얇게 편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 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 없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대형(5×7.5㎝) 20,000원, 소형(3×5㎝)15,000원이며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크기로 오인법사의 전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표구액자(27×32㎝), 달마도 순금판 크기(11×16㎝) 일반판매가격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3×4㎝)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셋트 25,000원

구입문의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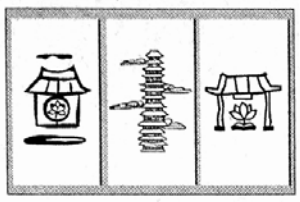
주문방법은 전화접수 후 전국내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 및 불자회 보시용품 각 영업회사 판촉사은품으로 최적상품이며 다량구매시 가격할인 및 원하는 그림,사진,글씨,로고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셋트 및 액자구매시 사은품증정!

제조판매원 : (주)골드타운

10만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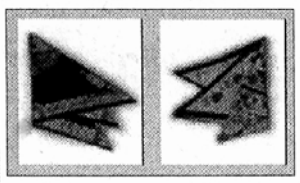
☎ 02)926-7377/7315
(24시간 공휴일 접수함) http://www.goldsale.co.kr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스카프



백제 향로 스카프 가격:₩90,000

무영총스카프 가격:₩90,0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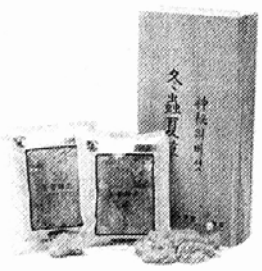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신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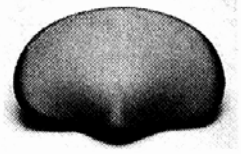
가격 70,000원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숯가반 ₩35,000
황토반 ₩35,000

- 실용신안1998-025009
- 의장등록140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쉐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백화향 선물셋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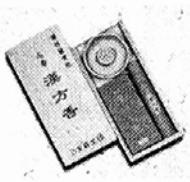
백화+신자단+천연목향+향꽃이



가격: ₩5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통+한방향+향꽃이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가격: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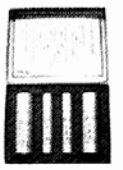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석씨향방 오분향,생기향세트



규격 : 4개 1세트

효능 :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영가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야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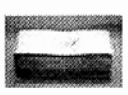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물, 헌공, 법회, 의례, 찬물가까지
- 신행생활과 생기참 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엄의로 구성

가격
일반형(인조피혁)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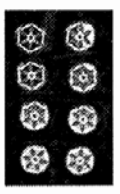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체 형 : ₩20,000원
무개체형 : ₩15,000

조상묘지용 동 히란야



▸종도및효능
산소수맥차단 氣에너지감응 벤처시키 명당이 됨
▸형태
원형, 자수정 부착
히란야 8개 (1set)
▸크기
원형, 지름30mm

가격 :₩240,000

순금도금 은 히란야메달



▸종도및효능 남녀공용 프로지형 배달
▸재질 천연자수정大부착 은매달순금도금, 루비 세팅
▸효능 : 정화치유에너지가 방생, 가슴(차크라) 심장에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경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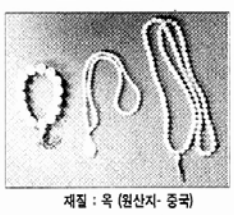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다 구 (茶具)

다구라 함은 차를 맛있고 향기롭게 마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요한 그릇 및도구이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관 (茶罐 :차주전자)
물과 잎차를 넣어 우려내는 도자기 주전자. 보통 주전자와 같이 손잡이가 위에 동글게 붙은 것과 물 따르는 주둥이의 반대편에 붙은 것이 있다. 주구의 안쪽은 거름망이 있어서 차의 찌꺼기가 주둥이를 타고 나오지 않게 한다. 주로 도자기로 만들어졌으며, 금은으로 만든 것도 있다.

■다완 (茶碗 :찻잔)
찻잔(다완)은 다관에서 우려난 차를 따라 마시는 작은 잔을 말하며, 시대와 모양에 따라 여러 이름이 전한다. 구는 원통형의 통잔, 완은 사발형의 가루차용, 중은 작은 반구형의 잎차용을 이른 것 같다. 찻잔은 악간 두툼하여 쉬 뜨겁거나 쉬 식지 않는 것이 좋으며, 잎 찻물의 색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잔의 안쪽은 백색이 좋다. 잎찻잔은 보통 5개(5인기)와 3개(3인기)로 손잡이가 없다.

■차시 (차숟가락)
마른 차 잎을 다관에 일정량 떠넣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 주로 대나무나 먹감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며, 차축, 차살죄라고도 한다.

■차탁 (차반, 잔 받침)
찻잔의 물흐름을 받쳐주는 받침. 찻잔 받침은 원형, 타원형, 사각형, 배모양 등으로 주로 도자기나 나무재료이다.

■숙우 (熟盂 : 물식힘사발)
다관에 물을 붓기 전에 끓인 물을 적당량 부어 알맞은 온도로 식히는 사발이다. 물을 붓기 좋도록 귀가 있어 귀사발또는 물식힘 사발이라고도 한다.

■다포 (茶佈 : 찻상포)
찻상 바닥의 깔개 혹은 찻상 위에 덮는 것으로 삼베나 무명을 사용하여 물기가 흡수되어 정갈해 보인다.

■차통
차통은 차의 변질을 막고 차를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석, 양철 등으로 만든 것에서부터 나무, 대나무로 만든 것도 있다. 모양은 통형, 기둥형, 단지형이 많다.

■다선 (차솔)
대나무 껍질을 잘게 쪼개어 만든 것으로 찻사발에 가루차와 끓인 물을 붓고 휘저어서 용합 시키는 기구이다. 차선은 보통 80본,10본, 120본의 세 종류가 있으며 차의 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보통 차선(80본)으로 100회 정도젓는다.

■찻상
다구들을 올려서 행다를 하는 목재로 만든 상. 사각. 육각. 팔각. 원형,서랍형등이 있다.

■개인다기
편리함을 위해 고안된 잔과 거름망, 잔 뚜껑으로 구성된 다기.
탕관 (湯罐 : 물 끓이는 솥) 물 끓이는 그릇으로, 신라 때에는 돌 솥도 있었다. 지금은 의식 다례가 아니면 화로나 탕관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주전자나 전기포트를 사용한다.
퇴수기 개수그릇이라고도 불리우며 처음에 다관과 잔을 데운 물을 버리거나 차를 우려낸 다음 숙우나 찻잔에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데 이용한다.

■여행기
여행을 위해 부피를 줄인 작은 개인용, 다인용 다기.
끝으로 다기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다기는 진열용이 아니다. 다른 도자기 제품처럼 예술성과 골동품적 가치만을 따질 수 없는 생활 자기임으로 우명도예가의 고가품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둘째, 실용적이어야 한다. 매일 사용하려면 편리한 기능과 도자기 제품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셋째, 아름다워야 하고 쉬 싫증을 느끼지 않을 만한 것이 좋다.



고산다기 세트

찻잔5개 그릇1개 주전자1개
가격 :₩120,0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차 시

제품에 따라 모양이 다름
가격 :₩15,000

불 성 차



가격 : 우전 ₩ 90,000 / 세작 ₩ 50,000
중작 ₩ 30,000 / 대작 ₩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삼보죽염순소금



천일염에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을 볶아 먹었던 조상의 슬기로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필요한 식생활 습관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500g 가격 :₩6,500

반야심경 향로



(기징옹) 규격: 4(높이)×7cm(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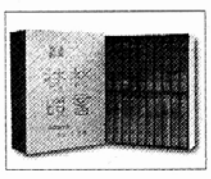
가격:₩2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테잎



■ 가격: 66,000

삼보미용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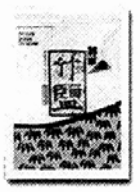


피부에 기생하는 진심균류나 방선균류의 세포표면을 감싸서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50g 가격 :₩6,500

음식조미용 장군죽염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맛을 낼수 있는 제품

용량 : 300g
가격 :₩4,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청살

가격:₩5,0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60,000 (2달분 2통 3,000정)

삼보죽염 낱개 1통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곰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려퍼져 희망찬 미래를 영원합니다.

■재질 : 순면 100%(20수) ■색상 : 순백색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크기 : XXL, XL, L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단체명 인쇄
■가격 : 6,0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참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8,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8,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	12,000원
· 나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불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이렇게 들었다 — 장마철 건강

온 집안이 습기로 눅눅해지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30도를 웃도는 기온과 습도가 60~70%에 육박하는 덥고 습한 기후는 병원균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이 번식하기에 적당한 환경.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질병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중앙식중독 예방대책본부'를 구성, 9월말까지 4개월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식약청 관계자는 "예년보다 기온이 크게 올라가 식중독 환자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흔히들 '건강은 제일의 재산'이라고 말한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보자. 〈편집자〉

의복 침구는 항상 깨끗이

▨사람의 몸은 지(地), 수(水), 화(火), 풍(風) 4대가 화합하여 된 것이므로 하나가 조화를 잃으면 백한 가지의 병이 생기고, 4대가 함께 조화를 잃을 때는 사백네 가지의 병이 동시에 생긴다. 〈오왕경〉

▨계절을 따라 5근(根,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의 4대가 뒤바뀌어 늘거나 줄거나 함으로써 몸에 병이 나게 된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는 좋은 의사에게 저 보여 적절한 시기에 잘 다스려 4대를 조화시키고, 병에 따라 약을 먹도록 해야 한다. 〈금광명경〉

▨병든 사람에게는 선택해 때맞춰 먹이고, 의약을 쓰며, 걱정, 기쁨, 진심을 품지 않게 하며 간병인을 향하여 순종하게 하라. 〈증일아함경〉

▨너무 과하게 먹으면 숨이 차고 몸이 거북하고 맥박이 고르지 못하여 마음이 막히게 되니 어떤 자세를 취하더라도 편하지 않느니라. 〈증일아함경〉

▨네 가지 법을 필요와 분별에 따라 성취하면 큰 의왕이라 하나니 네 가지 법이란 첫째 병을 잘 아는 것이며, 둘째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며, 셋째 병을 잘 다스리는 것이며, 넷째 다시 발병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잡아함경〉

▨병은 일어난 곳을 알아서, 그를 따라 약을 써야 한다. 병은 풍으로 생기기도 하며, 황으로 생기기도 하며, 담으로 생기기도 하며, 음으로 생기기도 하며, 또는 골절에서 생기기도 하며, 모여서 생기기도 한다. 이런 병의 일어난 곳을 알아 거기 따라 약을 써 고쳐서 안락을 얻게 해주어야 한다. 〈의유경〉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탐내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다. 비록 한때는 젊다 해도 반드시 늙음이 오리니 젊음은 애착할 것이 못된다. 비록 건강하다 해도 언젠가 병들 때가 있으리니 건강 역시 뽐낼 것이 못된다. 비록 현재는 목숨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나 매달리고 집착할 것이 못되느니라. 〈증일아함경〉

▨비구는 보름마다 목욕해야 하는바, 병 없는 비구는 응당 이를 받아들여 그냥 지내는 일이 없어야 된다. 〈사분율〉

▨밥을 다 먹고 나면 치목(齒木, 이를 닦는 버들가지)을 깨물고 맑은 물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근본유부비나율경〉

▨더러운 손으로 물그릇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을 응당 배워야 한다. 〈해탈계경〉

▨비구는 깔개와 발 씻는 그릇, 발 닦는 수건, 물 담는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 〈사분율〉

▨만약 가래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사람 없는 곳을 향해 뱉어야 하며, 병 있는 사람은 타기(唾器)를 사용하되, 모래나 돌 풀 흙 따위를 그릇 속에 넣어 넘치지 않게 하고, 자주 씻어서 냄새가 없도록 해야 한다. 〈근본살바다부율〉

▨비구는 마땅히 방사(房舍)를 치장하고 침대를 털며, 침구는 볕에 쬐고 방안의 거울을 치우며, 방을 청소할 때는 깨끗한 물을 길어다가 닦으며, 일정한 곳에 수건과 각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오분율〉

▨모든 대중은 모름지기 물을 걸러 마셔야 한다. 물을 거르고 나서 자세히 보아, 손바닥의 가는 금이 비쳐 보인 뒤에 써야 한다. 〈승기율〉

▨보살은 깨끗함을 좋아하여 번뇌가 없으며, 의복이나 침대도 역시 깨끗하기에 병이 적다. 〈방광반야경〉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 〈유교경〉

신행 캘린더

"민요 배우고 전통부채 만들어요"

국립민속박물관 18~20일 우리문화교육

국립민속박물관은 18~20일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을 실시한다.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은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민속문화를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2학년 3~4학년 5~6학년별로 세분화돼 진행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18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민요배우기와 종이접기(인정문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19일과 20일에는 초등학교 3~4학년생들에게 민요와 종이로 거북선 만들기를 가르친다. 5~6학년은 20일 박물관 전시실을 관람하고, 전통 부채를 직접 만든다.

이번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은 단순한 볼거리 위주의 기존 박물관 학습과는 달리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그리고 흥미에 따라 프로그램이 구성돼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월 4일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 02)734-1341(담당자 이영균) 도필선 기자

7월5일 (수)

■전북불교회관 낙태영가 천도 백중기도=전북불교회관은 오는 8월 14일까지 낙태방지와 낙태영가(靈駕)를 천도하기 위한 49일 백중기도법회를 봉행한다. 매주 화요일에는 낙태영가를 위한 특별제사도 지낸다. 063)277-3492

■한국불교연 불이상 시상식=한국불교연구원은 오후2시 서울 구도법당에서 제15회 불이상 시상식을 갖는다. 02)3411-6167

7월8일 (토)

■한국불교음악협회 불교음악캠프=한국불교음악협회는 10일까지 완주 송광사에서 불교음악캠프를 개최한다. 캠프는 찬불가 편곡, 찬불가 분석과 역사, 찬불가 지휘법 및 발성법, 불교 신앙과 교리 등의 강좌로 진행된다. 02)723-0440

■조계종 전국 직장직능 신행단체 지도자대회=조계종 포교원은 다음날까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전국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02)720-7060

■불자교정인 임원 하계수련회=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는 9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임원 하계 수련회를 개최한다. 02)6734-3536 오희창

■현대사회의 제문제와 불교연구=불교학연구회는 양일간(8~9일) 불암산 불암사에서 여름 워크숍을 갖는다. '현대사회의 제문제와 불교'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생태철학과 불교 △불교와 매스컴 등의 논문 12편이 소개된다. 02)2260-3128

■신수회 철야기도법회=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당선자 모임인 신수회는 서울 사천왕사에서 오후7시부터 다음날 새벽4시까지 철야기도법회를 봉행한다. 02)939-3900

■서초경찰서 경승실 개원=서초경찰서 경승실은 8일 오전10시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식은 1부 관세음보살상 점안식, 2부 개원법회로 진행된다. 02)3460-5300

7월9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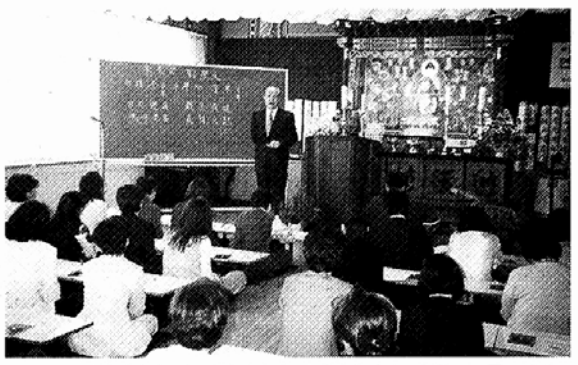
■삼보여름불교대학=삼보회는 오전10시 삼보정사에서 '불교의 본질과 신행'을 주제로 한 전북대 강건기 교수의 초청 강연회를 연다. 02)913-2859

7월10일 (월)

■통도사 부산포교원 경전읽기=통도사 부산포교원은 각성스님을 강사로 〈도덕경〉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매주 월·화요일 양일간 열린다. 051)816-2241

7월11일 (화)

■박민수 참선교육원 무료참선교실=박민수 참선교육원은 오전10시30분~11시30분, 오후7시~10시30분 두차례에 걸쳐 무료 참선 교실을 연다. 참선교실은 '마음을 보면 질병, 습관, 잡념,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갈등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02)2601-9486



◇무더위와 눅눅한 날씨때문에 물패지수가 높아지는 요즘, 경전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려보자.

법회안내

'금강경' 강의



진옥 여수 석천사 주지는 6일 오후2시 자비신행회 강의실에서 자비신행회와 광주전남교사불자회 회원을 대상으로 〈금강경〉을 강의한다. 061)222-1165

부산구도회 법문

지안스님은 6일 오후 7시 부산구도회 정기법회에서 〈금강오가해〉에 대해 법문한다. 051)462-5061

화엄불교대 법문



일초 전 동학사 승가대학장 스님은 24일 오후7~9시 화엄불교대학 여름특강에서 '정업난멸'을 주제로 법문한다. 063)277-3497

삼보불교대 강연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는 16일 오전10시 삼보여름불교대학에서 '현대불교와 과학'을 주제로 강연한다. 02)913-2859

교사 대상 강설

권경술 새생각실천회 지도법사는 6일 오후 6시 혜화동 민들레영토에서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금강경〉을 가르친다. 02)313-7028

게시판

알림

▲우수학술도서 선정 공고=문화관광부는 학술도서 출판진흥을 위해 실시하는 '2000 우수학술도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선정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 기간에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학술도서로 선정분야는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역사 등 9개 분야다. 신청기간은 11일까지며 신청서류는 소정양식과 신청도서 2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사)대한출판문화협회. 자세한 문의는 02)735-2701~3

▲무료법률상담=조계사는 14일까지(토·일요일 제외) 오전9시~오후6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생들이 맡는다. 02)720-1390

▲석불연구회 석불친견법회=한국석불연구회는 경기도 광주군 일대로 석불 친견 순례법회를 떠난다. 오전 8시 이대부속병원 응급실 앞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02) 760-5171

▲국청회 〈유마경〉 강좌=국청회는 청·장년 및 일반신도를 대상으로 오후7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원당빌딩 3층에서 〈유마경〉 대강좌를 개최한다. 법사는 무진장 스님. 02)730-1249

모집

▲불교북한학과 개설=동산불교대학은 민족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북한 동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문적으로 포교할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불교북한학과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입학일시는 오는 8월5일 오후5시이며, 모집인원은 20명이다. 02)732-1206

▲마스코트 공모=양정청소년회관은 마스코트 'POWER 1318'의 이름을 16일까지 공모한다. 1등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되는 이번 행사의 지킴이 캐릭터는 www.power1318.com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다. 051)868-0750

▲〈법화경〉 청강생=법화경 수행교육원 부산지부는 〈법화경〉 청강생을 모집한다. 개강은 6일 오후7시30분에 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수강가능하다. 051)583-8711

▲아동·청소년 심리검사 실시=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내용은 진로탐색검사, 특수인성검사, 학습능력진단검사, 학습방법진단검사 등이다. 상담시간은 매일 오후2시~6시이며 소요시간은 각 검사당 4~50분이다. 02)852-0525

▲중고자전거 기증자=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은평구 관내 생활보호대상 어르신들에게 식사배달 서비스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 자전거를 기증받는다. 02)385-1351

▲발관리 서비스 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발관리 서비스에 동참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전화접수 가능. 02)2203-3677

▲결식청소년 도시락 배달봉사자=자양사회복지관은 광진구 내 결식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린다. 봉사시간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11시. 02)458-1664

▲주간보호실 자원봉사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낮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개별학습, 독서, 음악 등을 지도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443)652-0900

▲세탁기 후원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 정수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8~10kg가량의 세탁기를 후원해 줄 독지가를 기다리고 있다. 02)2282-1100

구인

▲사무장 및 법사=영각사는 사무장 및 법사 일을 맡아 볼 신심있는 대졸이상의 남성 불자를 구한다. 응모자격은 행정·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PC사용 및 법회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0345)498-7700

▲행자=노적사는 입산수행할 행자를 모집한다. 02)353-5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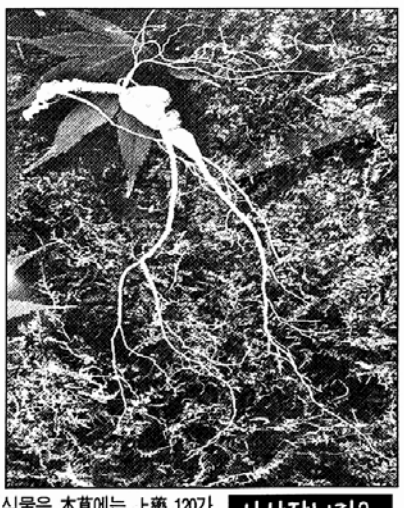
▲스님 초빙=정안사는 사찰 운영을 도맡아서 해 줄 스님을 모신다. 052)271-6659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敬愛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목욕 재개향
· 관불의식, 관욕에 사용
· 어떠한 의식 전후에 목욕함
· 상가집, 영안실 왕래후에 목욕하면 상문살이 침범하지 않는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

실상사 귀농학교 교육장 세운다

정부 2억4천만원 지원…연내완공
유기농법 · 생태교육장 활성화 등 기대

지리산 실상사 귀농전문학교가 전용 교육장을 마련하고 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실상사 귀농전문학교(교장 도법스님)는 6월26일 정부로부터 2억4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총 3억원의 사업비로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에 부지 3,750평의 '친환경농업 교육장'을 설치하게 됐다. 이로써 실상사 귀농학교는 2년만에 정부 지원을 받는 공인 귀농학교로 발돋음해 교육과 생활공간이 결합된 생태 산촌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15일까지 친환경적인 흙집으로 건물 기본 설계를 완료, 연말까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신축해 내년부터 정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와 전북도로부터 22명의 위탁교육을 의뢰받아 6월26일부터 7월21일까지 교육을 실시중인 귀농전문학교는 이미 전남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을 받아놓을 정도여서 유기농법 · 생태교육의 중심도량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98년 설립된 귀농전문학교는 그간 80명의 농사꾼을 배출하는 동안 사찰 경내지에 위치한 비닐 하우스 안에 임시 사무실과 강의실 · 숙소를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는등 열악한 조건이었으나, 교육장이 건립되면 명실상부한 귀농전문교육의 요람으로 우뚝 설 전망이다.

실상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3만여평의 농지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농업교육장, 생태농장, 청소년 생태학교, 생태 주거지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기 위한 지역복지공간으로도 활용해 불교도농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다.

실상사는 98년 9월부터 불교귀농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생태 유기농을 하고 있다. 성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식구들 다 생태적 삶, 즉 한 몸 한 생명체적 삶에 대한 의지는 뚜렷하다는 것이 교장 도법스님의 말이다.

"생태공동체가 전국에 10여 곳 정도 되지만 세계관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에 부닥쳐 그 대안으로 궐쳐지고 있는 생태공동체는 그 한계를 가져온 2분법적 ·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 자체를 마땅히 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안운동 역시 혼란과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상사 생태공동체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신토불이(身土不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98년 3월 도법스님에 의해 시작된 불교귀농운동이 자연과 인간의 화해를 강조하는 생태적 귀농에서 더 나아가 인간과 인간간의 화해를 강조하는 공동체적 귀농으로 확대되고, 생활협동조합운동, 대안학교 운동 등 다양한 불교적 사회 대안운동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교육생들이 정옥기(가운데)선생의 '우리옷 만들기(천연염색)' 강의를 듣고 있다.



◇2일부터 신도시 포교에 나선 일산 여래사 전경.

통도사 일산포교당 여래사 개원

지상 5층건물…4천여명 신도 확보

통도사 일산 포교당인 여래사가 2일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신도시 포교에 나섰다.

일산 신도시 정발산 자락에 자리잡은 여래사(주지 정우스님)는 2일 대법당인 만불전 본존불 점안 법요식을 열고 불교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산 시민들을 상대로 한 법음 전파에 나섰다.

건평 3천여평에 지하 3층, 지상 5층의 초대형 포교당인 여래사는 한식 통기와 5만장으로 채워진 지붕과 전통한식 추녀 그리고 대리석 벽 등 전통 · 현대의 조화미가 눈길을 모은다.

4 · 5층은 조계종 단일 사찰규모로는 최대인 대법당과 인등실이 자리하고 있고, 3층은 극락전과 승방, 2층은 기도실, 1층은 청소년회관과 종루 · 전산실, 지하층에는 소극장과 시청각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97년 2월 착공후 3년만에 문을 연 여래사는 이미 4000여명의 신도를 확보, 일산의 신행요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우스님은 "문화시설이 부족한 일산 시민들을 위해 여래사 지하 소극장에 극단 '신시'를 입주시켜 연극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할 계획"이라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포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활동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래사는 본존불 점안 법요식이 끝난직후 인간문화재 임이조씨의 승무, 박병천씨의 진도 북춤과 사물놀이, 변제남씨의 대금산조 및 일본 정행사 불교 아악단의 아악공연 등 특별 문화공연도 함께 개최했다. (031)905-7766

김재경 기자

일주문 안에 일반주택 허가 '물의'

옥천군 탁상 행정에 약사사 반발…소송 준비

충북 옥천군 동이면에 소재한 여래종 본산 약사사(주지 명안) 일주문 경내에 옥천군이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내어줘 문제가 되고 있다.

약사사 사하촌 주민인 천모(43)씨가 최근 약사사 일주문 내에 위치한 300여평의 사유지에 30여평의 일반주택 건축허가를 옥천군으로부터 받아내 사찰측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천씨의 건축 예정지가 사찰 부지로 둘러싸인 소규모의 개인 사유지인데다 건축시 사찰 사도(私道)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사찰측의 도로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청이 이를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어줬다는 데 있다.

그러나 옥천군은 건축허가는 적법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개인 사유지를 매수하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약사사는 당초 천씨가 관할 동이면이 사찰 경내지안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지 않자,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옥천군에서 허가를 취득한 것도 군청의 탁상행정에서 기인한 행정착오로 보고 있다.

특히 천씨는 사찰로부터 몇배의 합의금을 받을 생각으로 사찰 부지내에 포함된 (사찰이 미처 매입하지 못한) 짜투리 땅에 건축허가를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스님은 "군수 면담 등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종교편향의 시각에서 신도회와 함께 강력한 항의와 법적 소송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김재경 기자

베트남 쾅도스님 노벨평화상 후보올라

베트남의 저명한 불교학자인 쾅도(72) 스님이 최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쾅도스님은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베트남 불교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온 공로를 인정받아 후보로 추천됐다. 권형진 기자

지리산 불락사 빨치산 천도재

50년 만에 빨치산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재가 6월 24일 오후 전남 구례군 토지면 불락사에서 봉행됐다.

'지리산 원혼 천도재'라는 이름으로 치뤄진 이번 행사는 한국전쟁중 지리산에서 스러져 간 남부군이나 빨치산, 군경토벌대, 양민들의 원혼을 천도함으로써 가슴아팠던 과거를 벗어버리고, 남과 북이 하나되는 시점에서 7000만 한민족의 성숙된 만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 진주, 김해 등지서 100여명의 불자와 관광객이 참여해, 영혼들을 극락 세계로 이끄는 지전춤과 승무 등을 함께 감상했다.

이은자 기자

운천사 마애불 보호각 기공



태고종 광주 · 전남종무원(종무원장 금명)은 6월23일 광주시 운천사 마애여래좌상(광주시 유형문화재 제4호) 보호각(법당) 복원공사 기공식을 사부대중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사진〉

마애여래좌상 보호각은 전통 한식 주심포 맞배지붕에 법당 25평 규모로 총공사비 4억3천만원이 소요되며, 올 연말 완공된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6 · 25 50돌 위령대재 부산사암련 유엔묘지서

부산 남 · 수영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원)는 6월25일 UN 묘지 위령탑에서 6.25 한국전쟁 50주년을 추모하는 전몰 영령 위령 대재를 봉행 했다. 또 문수불교문화원(원장 설곡)은 같은 날 문화회관 야외 광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어린이 백일장도 개최했다.

천미희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봉선사 여름숲속학교 열어

2교구본사 광릉 봉선사(주지 밀운)는 19~21일 '자연과 함께 부처님의 품으로'란 주제로 제27회 여름 숲속학교를 연다. 유치부, 초등부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여름학교의 동참금은 3만5천원이며 발우수건, 필기도구, 담요 1매, 수영복 등을 지참해야 한다. (031)527-1951

직지사 주지선출 산중총회

제8교구본사 김천 직지사는 15일 오후1시 설법전에서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의 건'으로 산중총회를 연다. 승납 25년이상, 세납 45세 이상으로 비구계를 수지한 지 5년을 경과한 교구 재적승 중 자격이 되는 후보자는 4일까지 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054)436-6174

진각종

21세기 포교방향 세미나

창종 53주년을 기념해 6월 23일 송현클럽에서 '21세기 포교현실과 새로운 방향모색' 대주제의 포교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김경집씨(진각종 종학연구실 상임연구원)는 '한국불교 포교현황과 전망'에서 "노인신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가 새로운 시대 포교의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포교사를 양성해 어린이 학생 주부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상대에 따른 다양한 포교가 이루어져야 하고 포교사 자격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생 밀교문화연구원장은 '불교포교의 현대적 방향'에서 현대에 맞는 효과적인 포교방안으로 △인적자원 개발 위한 기금 마련 △포교 대상과 분야를 세분화해 상호 협력 보완 △불전 번역 등에 공동 및 연합 작업 △포교의 일관성 유지 △각 종단과 단체들, 연구 포교를 위한 조직과 기관 등이 만다라적 구조로 전문성 발휘 △포교에 첨단과학기술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종남 위덕대 강사가 '서구에서의 불교수용과 포교방향', 차차석 동국대 강사가 '개방후 중국내 불교의 사회적 위상변화와 그 역할, 덕일 위덕대 교수가 '진각종의 초기 교화 이념', 무외 진각종 포교부장이 '진각종 포교의 현황과 과제' 등을 발표했다.

태고종

선암사 가족수련회

총무원은 26~29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2회 여름불교 가족수련회를 개최한다. '우리 모두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가족수련회에는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반과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반으로 나뉘어 찬불가 율동, 참선실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추도문 작성 등의 수행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홍성에 기원정사 개원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대지 150평 건평 240평 3층 규모의 기원정사(주지 동우)가 6월 21일 개원됐다. 인곡 총무원장스님, 지성 총무부장 스님, 이상선 홍성군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된 개원식에서 주지 동우스님은 "홍성 서산 등 낙후된 서해지역의 불교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일붕선교종

영평사 삼존불 점안

경남 창원시 영평사(주지 정림)는 6월 29일 삼중스님(자비종 총무원장)을 증명법사로 약사관음 지장 보살 등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아봐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봐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봐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21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밝은길 아봐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응진코웨이에서 2000년도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렌탈사업에 동참할 지부장 후보을 초빙합니다.

支部長후보자 (사업) 설명회

지부장이란?
응진코웨이는 독립채산 성격인 지부 단위 사업의 집합체입니다. 모든 지부는 회사가 일용한 지부장에 의해 경영하고 있으며 제반사업 여건을 회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 장 점
자본 부담이나 실패에 따른 두려움없이 자영사업의 보람과 능력만큼의 소득을 목표로 할 수 있으며
98년 5월 렌탈사업 착수에 힘입어 다른 어느때보다 활기찬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 부 장 임 용
일정한 과정을 걸쳐 3개월 전후하여 임용되거나 특채 또는 특전에 의해 조건없이 임용됩니다.

♣ 자 격 : 서울, 경기지역 거주 35세이상 59세 미만 남 · 녀
※ 경력이나 학력보다는 근면 성실한 사업 자세가 더욱 중요합니다.
♣ 접수일자 : 2000년 7월 3일 ~ 7월 5일(3일간)
♣ 설명회일시 : 2000년 7월 4일 ~ 7월 5일 11:00
※구비서류는 당사 소정양식에 따라 면접시 작성합니다.
♣ 실무교육과정 기간 동안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불자님 우대합니다.
♣ 접수 및 문의 02)734-1058

WOONGJIN 응진코웨이개발 (주)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오가피 알아봤더니 숲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 화 : 0333) 682-5033, 682-4965
FAX : 0333) 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님!

6월은
잔잔한 바람
그리움 되어

하늘 끝
님 오시는 길 따라
연꽃등 밝혀들고

다시 태어나
고해의 바다건너
어린 중생 품어주시려

억겁의 세월은
온누리 자비광명
피안의 언덕으로 ...



원장 이 영 숙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7-2호 현대 골든텔(오피스텔) 8층 811호
강남역 (2호선) 3번출구
☎ 대표전화 : 02) 522-5121
핸 드 폰 : 018) 277-5592

공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동 76-2
무량정사 주지 이태순(영관)

위 사람은 본 종단에서 서기 2000년 6월 30일자로 제적 처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0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314-7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권한대행 총무원장
양 지 은

진안군 탑사 관리인 군수로 변경…"종교탄압이다"

마이산 탑사 "산문폐쇄 불사"

마이산 탑사와 진안군이 문화재 관람료 배분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안군이 최근 탑사 관리인을 진안군수로 교체함에 따라 탑사측은 이를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철회되지 않을 시 산문폐쇄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진안군(군수 임수진)은 탑사(주지 왕선)가 문화재관람료 배분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전북도 문화재위원회에 "마이산탑사 관리인 변경 신청"을 해 16일 전북 문화재위원회(1분과)는 마이산 탑사 관리인을 왕선스님으로부터 진안군수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고 6월24일 왕선스님에게 이를 통고했다.

탑사측은 지난 82년부터 진안군측과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배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관람료 일부를 납부해 왔으나 임대료를 부과함이 적법하다는 전북도지사의 유권해석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에 따라 97년부터 관람료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진안군 소유로 되어있는 탑사내 부지 3백평에 관해서는 임대료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진안군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탑사 주지 왕선스님은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관람료 배분 수입금을 군 잡수입으로 일반회계에 혼용함은 부당하며 더욱이 97년 예치금 폐지로 인해 관할 관청의 승인없이 자율화됨에 따라 배분에 관한 약정서도 불평등 계약으로 자연 폐기된 것"이라며 "법적으로나 관행으로나 부동산을 임대함에는 일정액의 임대료를 정해 지급함이 관례로 군소유 토지 300평에 대해 임대료를 내겠다는 데도 군에서는 문화재 관람료 납부를 강요해 군의 잡수입으로 쓰려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군에서는 천지탑이 있는 산 18번지 임야 약 300평 사용을 빌미로 관람료를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대법원의 판결(99. 11. 26)에 이갑룡이 탑을 쌓고 원시 취득하였다고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마이산 경내에 태고종 탑사로 등기된 토지가 약 22000평, 본인 소유 토지도 수천 평이 있는데 군에서 사찰토지는 무상사용하는 반면 군 소유 300평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며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안군수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탑사 소속 종단인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탑사문제를 불교자주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안군측에서 문화재관람료 배분 불이행을 이유로 탑사에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종교탄압"이라며 조만간 전북도지사를 항의 방문, 탑사 관리인변경 철회를 강력 요구하기로 했다.

왕선스님은 전북도가 지난 76년 마이산탑을 전북도기념물로 지정한 이래 마이산탑 관리자를 맡아왔으나 기독교신자로 알려진 임수진 현 진안군수가 95년 부임하면서 천지탑의 소유권 확인, 대웅전 철거소송, 예치금 사용 승인권, 관람료 지급의무부존재 확인 등 연이은 4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탑사가 3건을 승소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사형제폐지 운동본부 추진

불교인권위, 준비위원장에 진관스님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스님등 3인)는 6월28일 200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불교 사형제 폐지 운동본부'를 결성키로 하고, 준비위원장에 진관스님을 선임했다.

불교인권위는 이날 사형제 폐지운동, 양심수 석방운동, 70세 이상 고령자 석방운동, 소년수 교육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불교인권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9개 지역불교인권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결의했다. 불교인권위는 또 진관스님과 한상범 동국대 교수와 함께 일할 공동대표에 지원문수암 주지를 추대하고, 불교인권위원회 10년사와 진관스님의 옥중서신 및 시집 발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계 50여개 국가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국내에서는 서울구치소의 사형수 20명을 비롯 부산·대구·광주교도소에 사형수가 분산·수감되어 있으며, 현정부가 들어서서는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불교인권위의 이번 사형제 폐지운동 추진은 천주교·개신교·원불교에 뒤이은 것이지만, 불교가 어느 종교보다 생명존중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옥중(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의 눈물겨운 참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형제 폐지운동을 발원하게 되었다"는 진관스님은 "진심으로 참회하는 인간에게 누구도 생명을 뺏을 권리가 없다"면서 불자들이 앞장서 사형제 폐지 운동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자비의 도시락 '김 모락모락'

교계 20여곳 결식이웃돕기

3일 낮12시 광주시 북구 각화동 구석진 곳 가건물에 둥지를 틀고 있는 광주 맑고향기롭게.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가 창문새로 새어나오는가 싶더니 돼지고기 냄새가 진동을 한다.

광주 맑고향기롭게는 지난해 1월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거르는 어린이와 독거노인들을 위해 매일 80여 명분의 도시락을 싸고 있다. IMF 체제 이후 결식이웃이 급증하자 광주 맑고향기롭게가 이웃사랑 실천에 나선 것.

도시락 이름은 '자비의 도시락'. 매일(월~금요일) 3~4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사무실에 딸린 3평 남짓한 부엌에서 만든 80여개의 도시락은 광주 서석초등학교와 관내 독거노인들의 가정에 배달된다.

서울 노원구 상계6동의 사천왕사도 매일 150개의 저녁식사용 도시락을 만들어 노원구뿐만 아니라 성북·강북·중랑구 결식아동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일 오징어전, 코다리찜 등 갖가지 밑반찬을 만들어 관내 30여 결식아동 가정에 배달한다.

이 밖에도 좋은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자비신행회, 낙동·구로·본동·냉림·한솔·인천종합사회복지관 등 불교계 20여 곳에서 결식이웃돕기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도필선 기자

"북 가족공동체 해체현상 심화"

좋은벗들, 탈북난민 대상 '북한 사회·경제 인식' 조사

탈북 난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좋은벗들(이사장 법륜)이 '북한주민의 북한 사회 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조사' 결과를 6월29일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것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식량난으로 국경을 넘어와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난민 중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식량난으로 사망과 행방불명을 경험한 북한 가정이 86%로 가족공동체 해체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98.1%가 북한의 치안상태에 문제가 많다고 대답해 사회불안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100%), 식량난이 해결된 후에도 장마당이 존속되기를 원하다(100%)고 응답해 자유시장 경제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좋은벗들은 재중 30만 북한난민 문제 해결책으로 북한 정부에 △집단농장 주체농법 폐지 △장마당 전면 허용 △난민 처벌 금지 등을 요구했고, 아울러 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을 늘려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김두식 기자



◇종교·시민단체 대표등 3천여명은 '온겨레 평화대행진'에서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발원했다.

7대종교 3천여명 '온겨레 평화대행진'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화해"

정대 조계종총무원장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와 신도, 강만길 민화협 상임의장 등 시민단체 대표와 회원 3천여명은 25일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온겨레평화대행진을 갖고 "평화의 세상을 향해서 지난 역사를 떨쳐버리고 힘차게 달려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6.25전쟁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와 대회사, 김대중 대통령 메시지, 추모사, 온겨레 평화선언 등의 1부 공식행사에 이어 '화해로 평화로 통일로'라는 주제 기념공연으로 이어졌다.

온겨레 평화대행진 상임대회장 정대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남북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온겨레가 하나되어 화해와 협력을 길로 나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성재 정책기획수석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6월을 내일에의 희망으로 승화시키는 달로 만드는 데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반도를 분단과 갈등의 지역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심는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의 '온겨레 평화선언'을 채택하고, △전쟁피해 어린이돕기 △18세미만 군입대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평화의 새시대를 향한 온겨레의 염원과 희망을 1만 8624개의 오색 풍선에 담아 하늘로 날리며 대미를 장식했다. 1만 8624란 숫자는 6.25전쟁 발발 이후 이날까지의 일수이다.

이날 행사에 불교계에서는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성초 통리원장,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총지화 총지종 통리원장,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 8백여명의 한마음선원 신도 등이 참석했다. 정성운 기자

목탁소리

이경숙 〈취재1부 부장〉

태고스님이 빠졌다

문화관광부가 일찌감치 내년도 문화인물을 발표했다. 문화인물중에 보조국사 지눌스님과 대각국사 의천스님이 들어있다. 지난 98년 문화인물에는 불교관련 인물이 하나도 없었고, 보통 문화인물을 선정할 때 스님은 1명 정도 들어가던 관례를 볼 때 이번엔 스님이 두분씩이나 되고, 더구나 한국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종조격인 보조국사 지눌스님과 천태종 종조인 의천스님이 같이 들어 있어 반갑기 그지없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태고 보우스님 때문이다. 태고 보우스님(1301~1382)은 한국의 장자 종단과 제2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의 종헌에 거론되는 우리 불교사에서 아주 중요한 스님이다. 태고종은 종단 이름조차도 태고스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한국의 스님중 태고스님의 문손이 아닌 스님이 없다 할 정도로 태고 스님이 불교사에 끼친 영향은 혁혁하다. 내년 2001년은 스님께서 탄생하신 지 꼭 700주년이 된다. 탄신 700주년이란 의미깊은 해를 맞아 '문화인물'로 모시어 국민 모두가 스님을 기리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았을 뻔 했다.

물론 '문화인물'로 안 되었다고 해서 태고스님을 기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문화관련 일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불교계가 공동으로 스님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불자들은 물론 태고스님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까지도 스님에 대해 알게 하고 흠모케 하는 계기를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다.

내년 탄신 700주년을 맞아 태고 보우 라는 큰 봉우리에 걸맞는 알찬 행사가 준비되었으면 한다. 종단들이 연합으로 다례식, 학술세미나 등은 물론 일반에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준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뉴스 & 뉴스

구민체육센터 반환소송

양천구청이 조계종을 상대로 반환을 요구했던 양천구민체육센터에 대해 6월16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수탁재산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양천구청이 퇴역 공무원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센터를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두식 기자

자원활동가 양성 워크숍

(사)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가 자원활동가 또는 희망자, 생명나눔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7월 8일부터 9일까지 경주 콩코드호텔에서 '자원활동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입제식을 시작으로 본 행사에 들어가는 이번 워크숍은 △국민건강 예방과 민간단체의 역할 △의학발전과 해부학의 조건 △생명나눔운동의 상당기법 등 다양한 강의와 장기기증운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토론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두식 기자

두송복지관 ISO9001 인증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이 지난달 27일 국내 사회복지분야로서는 처음으로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9001(품질경영시스템규격)은 제품설계 개발에서부터 제조, 설비, 서비스에 이르는 품질보증체제로, 두송복지관은 ISO9000 인증기관인 영국 NQA(National Quality Assurance)에 인증을 신청해 경영책임, 문서관리 및 자료관리, 교육훈련, 부가서비스 등 20개 항목에 걸친 심사기준을 통과했다. 김두식 기자

전등사서 고려 궁궐터 발견

강화 전등사 경내에서 문헌기록으로만 남아있던 고려의 강화도읍시절 임시 궁궐터가 최초로 발견됐다.

이형구 선문대 역사학과 교수는 99년 7~8월 인천시 강화군 전등사 경내를 지표조사한 결과 정면 32m, 측면 10m의 대규모 건물터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6월26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이 건물터가 고려가 강화로 수도를 옮긴 고종 46년(1259) 4월 삼랑성에 지었다고 〈고려사〉에 기록된 임시 궁궐터라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압수문화재 31점 사찰 반환

문화재청은 지난달 28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압수문화재 61건 152점 가운데 정확한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54건 121점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주 흑석사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된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4 등 7건 31점의 문화재는 해당사찰에 반환한다. 권형진 기자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 참 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 참 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 자연산(茵蔯蒿)은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덮이 속에서도 피란잎과 줄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임정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蔯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 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천식·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티벳 불교의 정화 "깔라차크라" 의식 참관

히말라야 성지 순례

명상여행



히말라야의 오지 해발 4,200미터 산중에서 달라이 라마를 직접 만난다. 히말라야 성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갠지스강의 시원(始原)까지 찾아간다.

■ 히말라야 명상여행단 모집 (선착순 25명 마감)

일 정 : 8월 3일 ~ 8월 25일 (22박 23일)

참가비 : 299만원 (비자요금, 공항세 별도)

주 관 : 인도로 가는 길 02-723-0333

신청 및 문의 : 정신세계원 02-747-7033 (담당 황길재 019-464-7033)

▶입금 호텔 숙식, 전세버스, 전용텐트, 요리사 대동

연락 주시면 자세한 일정이 담긴 정신세계 회원지 "나의 정신세계"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성지 순례 여행 무료 설명회

■일 시 : 1차 7월 6일(목) 오후 2시 2차 7월 8일(토) 오후 7시

■장 소 : 정신세계원 (02-747-7033) 안국역 3번 출구, 비원 옆길로 300미터

정신세계원 (02)747-7033 서울 종로구 원서동 원서빌딩

公 告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은암정사의 양영수(지은)이 관장하는 종단(무량종)과는 불기2544(2000)년 양력 5월 23일자로 결별하였으므로 본인(이령관)과 본종단(무량본종)과는 무관함을 공고함.

불기 2544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홍지동 76-2

대한불교 무량본종

총무원장 이령관

☎ 02)3216-1600

Fax 02)3217-1600

주부 신행담 관세음보살과의 인연



그림 · 이준석

시집살이 · 난치병속에 찾은 절
생명 잇고 마음의 평화 얻어
불은 갚고자 매일 관음기도

내 나이 44살 되던 1969년, 시집살이를 하며 어렵게 살던 나는 어느 날 몸이 나빠져 병원생활을 하게 되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비로소 절을 진심으로 찾게 되었다. 친정도 시집도 불교와 인연이 있기에 자연스럽게 절에 가게된 것이다.

절에 다니면서 많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대체 부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 염불을 하면 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많았다. 그 시절의 나는 시집살이로 마음도 몸도 억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었고 그곳을 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심장관막증이라는 무서운 병명을 가지고 새가 새장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듯 나도 그러한 마음이 가득한 때였다. 이때의 심장관막증은 대부분 소생할 수 없는 병이었다. 너무 괴롭고 힘이 들 때면 절에 가서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때 친정어머니께서 '조용한 절이 있으니 같이 며칠 휴양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시골 절에 갔다.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 절이었다. 절에 가서 머무는 것은 처음이었고 그런 만큼 스님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호기심도 많았다. 뭔가 내가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득했다. 이때는 지금처럼 어디서나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도, 배울 수도 없었던 때였다. 또 그곳 스님들은 극히 의례적으로만 대해 주어서 무척 냉정하다는 느낌만 받았다. 지금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번뇌와 집착으로 가득한 내가 찾아갔을 때 스님들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마음에 가득한 번뇌를 녹일 수 있는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단 한마디라도 심어주었다면 훗날 나의 헤매임이 많이 단축되었을 것을 그렇지 못했던 것이 두고두고 아쉽기만 하다. 아쉬움을 안고 집에 돌아온 나는 병이 점점 악화되어 숨이 차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밤이면 산란한 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병원에 입원했다. 어느날 낮잠자고 깨니 친정어머니께서 울고 계시고 원장님을 비롯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으며 "깨워도 일어나지 않기에 네가 죽은 줄 알았다"하시기에 나는 내 꿈 얘기를 했다. 꿈에 내가 쓰는 방 천장 한가운데가 둥그렇게 뚫리더니 선녀같은 사람과 4, 5세 정도의 동자가 따라 내려오는 것이었다. 옷은 화려한 혼례복 같은 옷이었고 머리에는 보기에도 눈부신 화관을 쓰고 있었다. 내 곁에 사뿐히 앉은 이 선녀는 다름아닌 여학교 후배이자 시이모 막내딸이었다. 그 시누이가 내 등을 만지며 "고생이 많았지요" 한다. 얼굴은 자비 그대로의 모습이고 그 손길이 친정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같이 느껴졌다. 이때 무심코 문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대문에서 부엌까지 양쪽으로 남자들이 막대기 창을 들고 늘어서 있는 것이었다. 내가 놀라자 자기가 데려온 사람이라며 "앞으로 언니를 도와줄께요" 하고는 천장으로 구름같이 다시 올라갔다. 나중에 절에 다니면서 그때 늘어선 남자들이 신장님이라는 것을 모습으로 알게 되었다.

꿈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무당집을 다녀오더니 산신기도를 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나는 부처님에게가 아닌 산기도를 시작했고 내 신앙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7년여를 꾸준히 기도를 해왔는데 건강은 더욱 나빠져 산에 갈 수가 없어 화계사 뒷산으로 옮기게 됐다. 화계사 뒷산에는 무인들이 기도하느라고 을긋불긋한 것을 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있어 차마 갈 수가 없었다.

나는 화계사 총무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더니 산신각 뒤쪽으로 안내해 주시며 미국스님들이 와서 공부하고 운동하는 곳이라며 맘껏 기도하라고 해주셨다. 거기에는 보살상이 스물네 구가 모셔져 있었다. 나중에 알게됐지만 거기 보살님은 바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었다. 이 곳에 갔을 때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다녔다. 일요일이면 가족이 다함께 가서 같이 참배하고 쌀을 가지고가 짐승들 먹이로 뿌리고 오곤 했다. 그렇게 매일 다니기를 3년 4개월이 지날 무렵 거동이 불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부처님에게 좀더 가까워져 있었다. 절에 가지는 못했지만 마음 속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정근을 계속했다. 산기도를 시작한지 만 10년이 되는 해였다. 그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얼마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있다가 쓰러졌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서있는 나는 매일 같이 눈물로 간청해 수술을 받았다.

나는 어렵게 어렵게 생명을 이어주신 관세음보살님께 보은하고자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 때 우연한 인연으로 관음회에 입회하게 돼 십여년동안 〈법화경〉을 열심히 읽었다. 또 의정부 포교원 원장스님과 인연이 닿아 포교원에 다니게 되었다. 송암스님은 자비롭고 포교에 큰 뜻을 가진 스님이시다. 포교원에 다니면서 연화회를 만들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모아 몇몇 법우님들과 같이 부처님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중고등부 법회도 열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철학박사인 김공철 박사님이 주도하는 한국불교교육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했다. 한 달에 두 번씩 7년이라는 긴 코스를 끝마치고 4년을 더 다니며 한사람의 법사로 거듭나 의정부 포교원에다 군법회를 만들어 삼년동안 이끌었다. 또 의정부 가까이에 있는 부대를 찾아 부처님 말씀을 전했다.

나는 관세음보살님이 도와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지금은 관세음보살님의 사진을 나의 방에 모시고 큰일이 없는 한 하루 한번씩 참선과 염불독경의 수행을 하고 있다. 처음에 왜곡되게 들어간 신앙의 세월이 아까워 나같은 길을 밟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1994년 〈연꽃으로 피어나리〉라는 신앙수기집을 펴내 2천여부를 주위에 나눠주었다.

두번이나 심장대수술을 받아 관막을 기계로 대체하여 살고 있고 나이도 많지만 아직까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만은 누구못지 않게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요즘은 24시간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머리 속으로 정근하며 가슴 속에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자비로운 모습을 안고 산다. 나는 세번을 꿈에 관세음보살을 친견했고 또 관세음보살이 가피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두려움이 없다. 부처님의 가피는 한 생명 다 바쳐 기도 정진하면 꼭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연기법인 인과법이 아니겠는가.

이해숙〈서울 송파구 방이동〉

새천년, 우리 몸에 부족한 氣를 충전시켜주십시오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잠이 잘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240,000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체험사례)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병운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저혈압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좋아짐(주부 장양심씨)
- 뇌막염아기 건강이 호전(이호준씨)
₩350,000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봉 (침21개 순금도금)
₩80,000



· 전화를 주시면 氣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다로그 氣측정기 무료우송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책자우송

韓國氣硏究院 ☎ 02)455-6944, 02)453-5851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6-011003(예금주:김 건순)

장엄도량을 이루는 모든 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 규격간판(도로지주용 간판) 허가 대행, 제작, 설치, A/S
◐ 각종 사찰 불사 및 event 대행

■사찰 이정표
- 스텐레스 재질로 반영구적인 수명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 - 가격 저렴
- 녹슬거나 칠이 벗겨지지 않음
- 자체 제작공장 보유 - 신속정확 시공
- 허가 대행 및 A/S 철저

■사찰연혁판
- 스텐레스 재질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방문객에 대한 사찰연혁을 정확히 전달

■전주용 간판 ■게시판 ■현수막
■목간판 ■난간대 공사
■휀스공사(울타리공사)
■각종 event 대행
- 아크릴판, 상패, 불사, 각종행사 등

태영산업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335번지
TEL:02-433-9544 FAX:02-433-9543 H.P:019-278-1119
이 태 영 합장

♣ 사찰이정표 건설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 전주용 간판



♣ 사찰 연혁 게시판



♣ 화재안전 포맥
사찰화재 방지용 포맥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찰은 무료로 드립니다.
- 규격 40cm × 10cm

참배후 촛불을 꼭 끄주시기 바랍니다.